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느껴라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6255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7
하나님은 사랑이다.....	9
1747 영원한 사랑의 비밀.....	9
6272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귀환.....	10
7285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11
8289 하나님은 자신의 아주 큰 사랑을 믿는 것을 요구하신다.....	12
하나님은 말씀이다.....	15
5829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	15
4967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한다. 사랑의 증거.....	16
하나님의 말씀은 혼에게 힘을 준다.....	18
3288 영에 의해 생명력이 있게 된 말씀.....	18
6401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다.....	19
3162 힘의 공급은 혼이 느낄 수 있다.....	21
7026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22
몸 - 혼 - 영.....	24
1874b 혼의 불멸성.....	24
4757 몸과 혼과 영. 이에 대한 설명.....	25
3963 혼의 생각과 의지의 방향. 영 또는 육신.....	26
4732 혼이 영과 하나가 되는 일.....	27
사람 안의 신성한 영적 불씨를 점화시키는 일.....	29
6210 영의 불씨와 혼에 대한 설명.....	29
7726 심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불씨.....	31
7761 영의 불씨가 아버지의 영을 향하게 촉구한다.....	32
6994 사랑의 불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34
사람 안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	36
4060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조건.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36
4869 영의 역사. 영의 거듭남.....	37
8004 올바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영의 역사이다.....	38
8214 영적인 생각의 교체 가운데 일어나는 영의 역사.....	40
모든 생각은 영의 힘이다.....	42
1757 생각은 영적인 힘이다.....	42

2111	생각의 근원은 사람의 심장.....	43
5484	생각은 저세상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흐름이다.....	44
6680	생각의 파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일.....	46
	심장의 느낌.....	48
2104	내면의 느낌은 생활의 길잡이.....	48
4736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통해 말한다.....	49
6702	하나님은 단지 의지로 평가한다. 가장 깊은 내면의 느낌.....	49
	내면의 음성과 심장의 음성.....	51
3199	내면의 음성.....	51
4104	하나님의 의지 - 심장의 음성. 내면의 자극.....	52
5766	영이 촉구하는 일. 불만족.....	53
5402	내적인 말씀의 특징.....	54
3381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56
3408	환란의 때의 내면의 음성.....	57
	양심의 음성과 선과 악에 대한 느낌.....	59
1565	양심의 소리.....	59
3901	선과 악. 영원한 법칙.....	60
7432	선과 악에 대한 느낌.....	61
8639	자유의지. 선과 악을 깨달음. 사랑의 불씨.....	62
	가족이라는 느낌과 인간의 특성과 관계.....	65
5207	친척관계라는 느낌에 대한 설명. 혼의 입자.....	65
1573	인종. 내면의 삶.....	66
1933a	이전 단계의 성향이 성격을 정한다.....	67
1933b	유전. 성향. 부모.....	68
8306	호감과 혐오감.....	69
	자연적인 창조물과 영적인 창조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72
0396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과 사람들을 위한 자연의 아름다움의 목적.....	72
3512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다.....	73
3670	영적인 창조물. 사람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는 축복.....	74
	이 땅의 축복.....	76
3761	이 땅에서 이미 얻는 축복.....	76
6683	진실의 빛은 축복이다.....	77

8319 단지 사랑이 축복이다.....	78
8659 의식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축복이다.....	79
878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	81
영적의 나라의 축복.....	84
1585 은혜. 영적으로 보는 일. 행복한 상태.....	84
1792 천상의 축복. 영원한 영광.....	85
1812 영적인 세계. 낙원의 상태.....	86
4291 빛의 나라에서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 인간의 눈으로 본적인 없는 나라.....	86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심장을 준비하는 일.....	89
6730 의식적인 혼에 대한 작업.....	89
7895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하는 일.....	90
1062 심장 안으로 주님을 모시는 행복.....	91
사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93
7099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 영원한 빛.....	93
7101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일.....	95
7446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임재.....	96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는 일.....	98
3308 내적인 독촉은 하나님의 조언이다. 의지의 복종.....	98
5632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라.....	99
7003 하나님의 능력에 흐름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	100
세상과 물질을 극복하는 일을 통해 혼을 영화시키는 일.....	102
3414 혼을 영화시키는 일. 문질을 극복하는 일.....	102
3968 내면으로 향함. 세상과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진리의 성공.....	103
7215 세상의 유혹과 이를 극복하는 일.....	104
고난을 통한 혼의 성장.....	107
7157 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고난 또는 사랑.....	107
5194 질병과 고난의 축복. 성숙하게 되는 일.....	108
6149 인내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	109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혼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	111
5499 이 땅의 과제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 하나님의 은혜.....	111
4664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한다.....	112
7857 이웃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일. 진리.....	113

6687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114
심장의 겸손.....	116
5587 겸손.....	116
7116 겸손한 기도. 교만은 대적자의 요소이다.....	117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으라.....	119
7229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119
7165 올바르게 자녀로서 처신하는 일.....	120
4008 하나님의 자녀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심.....	121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123
7489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123
7496 지도자 예수님.....	124
4008 하나님의 자녀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심.....	126
기도의 축복.....	127
7489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127
7496 지도자 예수님.....	128
7129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일.....	130
4769 기도의 축복.....	131
사랑의 중보기도의 힘.....	133
3734 단순한 형체의 기도.....	133
6012 침묵의 기도. 세상 앞에 고백하는 일.....	134
7417 하나님을 향한 의심하지 않는 신뢰.....	135
8059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	136
6637 죽음에 대한 두려움.....	137
인간에게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	139
5609 효과적인 혼을 위한 약: 하나님의 말씀.....	139
3974 불쌍한 혼을 위한 기도.....	140
5161 중보기도의 능력.....	141
혼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의 평안이다.....	143
3550 생각의 방향에 대한 책임.....	143
6302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일.....	144
7073 책임감의 중요성.....	145
3656 깊은 믿음을 통한 혼의 안정과 평안.....	146

6580 진정한 평화.....	148
7508 하나님 안의 평안.....	149
3676 심장에 거처를 준비하라. 주의 만찬.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있다.”.....	150
4645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권면.....	151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B.D. No. 6255

1955년 5월 12일

어두움 속에서 빛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체험해야 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증거를 체험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의 사랑으로 전하는 그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큰 영적 위험에 처해 있고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입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그에게 자신을 여는 사람들의 심장에 그의 영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빛을 준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하는 깨달음을 준다. 왜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단지 사람들이 그의 뜻대로 살고 그를 추구하게 만들고 사랑이 단지 사람 안에 영원한 사랑과의 결합하려는 갈망이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신에 대해 알려주고 너희가 이 땅에서 가야만 하는 길을 밝게 비추는 빛을 너희에게 밝혀주는 일은 진실로 너희 사람들을 향한 아주 큰 사랑의 증거이다. 그가 한 때 자유의지로 자신을 떠난 너희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가고 너희에게 말하고 유일하게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을 다시 추구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일은 은혜와 긍휼의 역사이다.

너희의 사람들은 너희 자신의 잘못으로 밤 가운데 살고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한때 모든 빛의 충만함으로 너희 사람들에게 비취주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빛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이 빛을 받아들이라. 빛이 다시 너희에게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잘 활용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가운데 역사하고 빛과 힘으로 충만한 축복된 존재가 다시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단지 사용하면 되는 수단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준다. 이 은혜는 너희가 벌어드린 것이 아니다. 왜냐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얻기 원하고 너희가 그의 자녀로서 너희 아버지 집의 아버지에게 돌아 가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의 사랑이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향한 이런 사랑은 영원히 그치지 않고 그러므로 그는 너희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사랑을 끊임 없이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너희를 위하고 영원히 너희를 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자신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심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게 하면, 너희는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랑과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자신

의 임재를 느낄 것이고 너희 심장이 사랑에 타오르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에게 속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너희 심장을 열고 싫어하면서 너희 심장을 닫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해주기 원하는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영의 밤을 피하게 될 것이다. 찬란한 아침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게 될 것이고 이 빛이 너희 심장을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날을 향해 다가가고 더 이상 어두운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원한 빛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와 빛나는 빛으로 너희 심장을 채우기 때문이다.

아멘

영원한 사랑의 비밀.

B.D. No. 1747

1940년 12월 22일

영원한 사랑의 비밀은 인간이 헤아려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로 상상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재이고, 그러나 사랑은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와 느낌은 함께 속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충해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한 존재로써 하나님이 가장 높은 사랑의 정도 안에 있어야만, 단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이런 설명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사랑의 비밀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기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모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이 사랑은 단지 같은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지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런 신비를 꿰뚫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항상 단지 자신의 사랑 정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더 많은 사랑을” 단순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에 성공해야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 자체로 생각하는 일이 더 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인간으로서는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 실체도 인간의 관점에서 상상할 수 없지만, 그는 실제 하나님을 실제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실체를 실체로써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신체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은 그의 생각으로는 어떤 형체를 취할 수 없으며, 사랑에게 형체가 주어지자 마자, 사랑을 이제 다시 존재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이런 신비를 소개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그런 일은 단지 인간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할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아마도 이 땅의 삶과 접촉하는 것과 연관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려면, 사랑을 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가 사랑을 행하면, 그의 성품은 사랑이 되고, 혼이 몸에서 분리되면, 단지 실체가 남는다. 이 실체는 자체가 또한 사랑이다. 다시 말해 그러면 두 가지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을 통해 존재가 존재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다시 존재와 사랑은 동일하다. (23. 12. 1940)

자신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실체로만 상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지 실체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사랑을 느낀다면, 그는 영원한 신성을 단지 느낌의 세계에서 어떤 것으로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느낌을 그가 비로소 존재에 속한 것으로 보지만,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힘이고, 하나님은 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은 같아 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실체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신성의 존재에 대한 기본 개념이 누락될 것이다. 비록 존재가 또한 영원한 신성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두 개념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면 존재에게 그가 아직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존재는 이 땅의 법칙과 일치될 수 있는 것만을 영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이해하지 못하고 머물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귀환.

B.D. No. 6272

1955년 6월 1일

내 사랑이 너희를 창조했다. 나는 내 피조물인 너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하다. 무한한 사랑이 영원히 영원까지 너희를 감싸줄 것이다. 내가 해주는 이 말의 아주 깊은 모든 의미를 이해하는 일이 너희에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절대로 너희를 영원히 되돌아 올 수 없는 타락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내 말을 진리로 영접하고 믿는 수밖에 없다.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의 힘으로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너희는 내 사랑으로 채워지고 서서히 너희가 왜 나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너희는 너희를 얻기 위한 내 사랑이 너희를 뒤따르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단지 응답하는 사랑으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고 너희가 나를 떠난 이래로 내가 너희의 응답하는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다.

끝없는 내 사랑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창조물이 생성되는 일과 지속적으로 창조물의 생명을 유지되는 일과 새로워지게 하는 일과 이 땅의 너희 삶과 내 운명적인 간섭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내 사랑은 또한 모든 불행과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해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내 피조물들이 나로부터 전에 없이 멀어져 그들이 내 사랑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할 때가 되면, 내 사랑이 기존의 땅을 분해시켜 변화시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실로 너희의 귀환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또한 창조할 필요가 없고 또한 나를 떠난 영이 육신을 입게 된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온전하고 너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내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대적할지라도 너희를 타락하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또한 너희가 언젠가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원하면,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너희와 함께 역사하기 원하고 복되게 만들기 원하고 같은 진실 된 사랑으로 응답받기 원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너희와 너희의 응답하는 사랑을 얻기 원한다.

너희는 영원히 내 사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자유의지로 응답하면, 내 사랑이 단지 너희를 축복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을 체험하고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되고 내 사랑이 너희에게 행한 일과 행해야만 했던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내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어 영원히 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B.D. No. 7285

1959년 2월 17일

너희는 단지 너희를 향한 내 끝이 없는 사랑을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 안에 사랑의 불씨를 불을 붙여 화염이 되게 하고 이 화염이 다시 나를 향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일에 도달하기 원한다.

이로써 사랑없음이 한때 너희를 나로부터 떨어지게 한 것처럼 너희 안에 불타오른 사랑이 우리는 영원히 연합시킬 것이다. 너희의 운명을 인도하고 내 대적자에게 너희를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 묶어 두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의 눈과 너희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창조한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에 대해 그리고 너희의 모든 이 땅의 삶을 관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열린 눈으로 너희 주변을 바라보면, 너희는 모든 것에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볼 수 있다. 내 사랑이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주변에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삶에 이미 어떤 질서도 사라진다.

왜냐면 내가 나를 전적으로 떠난 의지를 가진 자들에 대해 자연법칙을 적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웃들이 성장하게 도와야 할 모든 것을 파괴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이 그들에게 제한을 가하고 너희 모두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에 그들이 개입하는 일을 막는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자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내 사역과 역사를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너희가 모든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여기고 안락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는 내가 내 자녀로 만들기 원하는 그러므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나와 그들이 연합되기 위해 그들이 나에게 내 사랑에 응답해야 할 내 피조물인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직 줄어 들지 않았고 항상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자신에게 사랑이 없고 내 사랑의 비추임에 너희를 열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는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한번 너희를 향한 내 큰 사랑을 의식하면, 너희 심장의 얼음은 녹고 내 사랑의 빛이 이미 역사하기 시작한다. 너희는 내 사랑에 응답하기 시작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 사랑의 불을 피우고 이제 타오르는 불길인 영원의 사랑의 불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 너희 사람들은 단지 얼마나 자주 은혜스러운 운명이 특별한 염려와 고난으로부터 너희를 지켜 주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행복한 것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이를 체험하게 하신 분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지혜로운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의 인도를 알 수 있는 너희 삶에서 일어난 모든 가장 작은 일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는 어떤 일도 내 뜻이나 또는 내 허용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계속하여 너희를 생각하고 내 사랑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함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항상 단지 내 사랑이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제 내 사랑을 전적으로 의식하면, 너희 안에서 나를 향한 뜨거운 느낌이 타오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와 연결을 이루기를 원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의 흐름의 영역 안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심장에서 안식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는 행복을 느끼며 사랑이 너희에게 비추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직접 너희에게 역사할 수 있다. 내 사랑은 너희가 단지 나와 긴밀하게 연결 된 경우에만 체험할 수 있는 계속되는 증거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주 큰 사랑을 믿는 것을 요구하신다.

B.D. No. 8289

1962년 10월 2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좋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너희 안에 내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복종하면, 너희가 버림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기 위해 너희 안에 내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가 어떤 것을 견딜 능력이 있는지 안다. 나는 너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도움을 의지하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는 내 모든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장이 너희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왜냐면 내 사랑 안에서 보호를 느끼는 사람에게 비록 그가 외부로부터 자주 공격을 받을 지라도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믿음에 크기를 알고 있고 이 믿음이 유일하게 너희의 위험의 크기를 정한다.

나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게 허용되었다는 것은 너희에게 사랑과 지혜와 권능인 내 성품에 관해 설명함을 너희가 알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에게 이미 내 사랑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믿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더 이상 불안이 없게 되고 너희는 항상 내 안에서 너희 아버지를 깨닫게 된다. 너희가 아버지를 항상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그의 자녀들이 이 땅의 길을 가는 동안 돕기 위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은 내 사랑이다. 왜냐면 이 사랑이 너희를 타락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원한기만 하면, 사랑은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해 너희가 남김 없이 구속을 받을 수 있게 이 땅의 운명을 정할 것이다. 이 사랑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랑이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너희가 한때 대적자를 자유의지로 따랐기 때문에 너희의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구매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원수와 대적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녀를 위해 싸우고 그의 권세로부터 구한다. 너희는 이런 큰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젠가 너희를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만든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보장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는 과정을 가면,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자녀들을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자유롭게 되게 구매해 다시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운데 너희가 속함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영원한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이 땅에서 이미 끝 없이 행복하게 하고 언젠가 영원 가운데 행복하게 하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드러야 함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제 내 끝없는 사랑을 믿을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두려움이나 불안함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항상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너희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모든 것을 나에게 의지하고 그가 너희를 모든 위험 가운데 도와준다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자신의 이웃에게 사람들의 기술과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도움을 주면서 특별하게 역사할 수 있다.

왜냐면 나와 긴밀하게 연결 된 가운데 그 자신이 내 능력을 활용하고 그가 나와 함께 역사하고 내가 그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너희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면 자주 스스로 제안을 가한다. 강한 믿음은 사랑의 삶의 결과이다. 왜냐면 사랑이 비로소 믿음을 생명력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안에 더 이상 의심이 없다. 그는 내 임재를 의식한다. 그러면 그는 내 사랑이 제한이 없음을 그가 능력을 다시 사랑을 행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면, 그에게 제한이 없는 능력이 제공된다는 것을 안다.

내 크고 끝없는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스스로 사랑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이 땅에 마지막 의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그는 의식적으로 영원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된다. 왜냐면 그는 자신을 아버지에게 끌어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가 나를 구하게 하고 그가 나를 믿는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고 내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내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 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요구하는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와 하나로 만들어 주는 사랑을 나에게 드리게 된다.

그러면 그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나가서 불행하게 되었던 나와 다시 자유의지로 하나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삶을 살게 되는 목적을 이루는 성공을 한다. 내 사랑은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줄 것이다. 내 사랑은 언젠가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

B.D. No. 5829

1953년 12월 17일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는 내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게 한 것이고, 너희가 나와 직접 연결을 이룬 것이고, 너희가 이제 너희를 향한 내 사랑과 돌봄의 증거인 내 임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항상 내 말씀을 너희 심장 안에서 듣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는 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고, 말씀이 심장 안으로 깊이 스며들게 하고, 말씀이 귀를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생명력이 있게 너희와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지를 너희 자신이 스스로 정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언제든지 너희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말씀의 형태로 내가 실제이고, 진정으로 존재하고, 너희와 연결을 구한다는 증거를 너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면, 너희가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계시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또한 자녀들이 나와 연결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부름을 받지 않고서 이 땅에 온다.

나는 또한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 내 말씀을 세상 한가운데 선포하는 내 대변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의식적으로 내 음성을 들려주기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일부의 사람들을 얻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과 나 자신에게서 나온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느끼고, 내 말씀이 심장 안으로 스며들게 하고, 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심장 안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스스로 내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고, 생각으로 나와 연결을 이룬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들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모르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우선 자신을 열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들이 언제든지 의식적으로 원하는 일이 나를 움직여 내가 그들에게 말하도록 움직인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이로써 그들이 내 인도아래 이 땅의 삶의 목표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하는 일을 멈추지 않거나 또는 그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그들이 만나게 해서 이로써 그들이 내 사랑과 돌봄을 깨닫게 하고, 나 자신이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제공되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와 공훈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영원한 파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은 빛의 말씀이다. 왜냐면 말씀이 너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준 가장 큰 은혜의 선물로 평가한다면, 말씀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다. 아버지의 음성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그는 단지 아버지께 긴밀한 기도를 드린 후에 그가 생각하는 것을 또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여겨야 한다. 왜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아주 사랑하고 자녀와 연합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아버지를 갈망하는 심장의 긴밀함이 항상 아버지의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에게 자녀의 사랑을 드리는 사람은 심장 안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깨닫게 한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에게 항상 계속하여 임재하고, 그의 임재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그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이미 맺고 이 땅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아버지는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말씀 안에서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속해 있고, 아버지는 그들을 자신에게 이끌고, 절대로 더 이상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증이고, 하나님이 소유하기 원하는, 그러므로 자신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형성시켜야만 하는 인간의 혼을 항상 계속하여 보살핀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에 대해 혼들에게 끊임없이 권명하고, 가르친다. 이로써 사람들의 영적 재물을 증가시킨다.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 가운데 영적인 재물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재물이 영의 나라에서 혼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않고 일하는 생명을 보장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은 사람 자신이 이 말씀을 갈망한다면, 즉 사람이 자신을 형성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다면, 절대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왜냐면 말씀이 인간의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심장에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으로서 생명을 깨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듣는 일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을 전제로 한다. 즉 심장과의 연결을 전제로 한다. 왜냐면 단지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따라 자녀들을 배려한다. 그는 자녀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 자녀들이 그를 느낄 수 있고, 자녀들은 또한 그가 자신을 알리는 선명한 생각을 통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믿는 이 땅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선물한다. 그의 말씀은 축복되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이 그의 은혜로 그를 깨달은 사람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항상 들리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영에 의해 생명력이 있게 된 말씀.

B.D. No. 3288

1944년 10월 11일

영이 생명력이 있게 하고, 영이 말씀을 생명력이 있게 하지 않으면, 말씀 혼자서는 죽은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들으면, 너희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왜냐면 힘은 단지 영을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이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게 되면, 즉 너희가 귀로만 듣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긴 심장으로 들으면, 너희가 말씀을 힘으로 느끼게 될 것이고, 말씀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 혼자서는 단지 이성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말씀 안의 영은 심장에게 말한다. 말씀 혼자서는 단지 세상적인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영에 의해 생명력이 있게 된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왜냐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즉 영에 의해 생명력이 있게 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이 실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은 단지 인간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이성의 산물이다.

몸에 닿을 뿐 혼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죽은 말씀이다. 그러나 혼이 영을 생명력이 있게 하는 말씀을 느낀다. 왜냐면 말씀이 사람 안의 영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의 영의 불씨와 접촉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혼에게 표현하고, 말씀이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게 하고,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아버지 영과의 연결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은 생명을 주고,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고, 절대로 죽은 말씀으로 간주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말씀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절대로 죽은 말씀이 될 수 없고, 단지 사람이 말씀 안의 영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람이 말씀 안의 생명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왜냐면 단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영의 고향의 나라로 들어가려는 시도하는 구하는 사람에게, 즉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찾는 사람에게 영이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영이 이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큰 사랑으로 사람 안의 영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효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왜냐면 살아 있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활동이 비로소 생명임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비추임을 받으면, 말씀은 절대로 효력 없이 머물 수 없고, 그러면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에 의해 생명력이 있게 된 말씀은 그 안에 힘이 있고 영원히 역사하지만, 그러나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장이 영접한다면, 영원히 역사한다. 말씀을 실제 이성으로 받아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인간의 혼에 침투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혼은 단지 내면의 영으로부터 전달된 것을 받아드리게 때문이다. 그러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사

람 안 영의 불씨와의 연결을 이루고 따라서 혼은 영의 불씨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즉 생명력이 있는 말씀 안에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심장의 생각과 이성의 생각의 차이를 모르는 동안에는 사람이 내면에서 깊은 지식을 얻는다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 축복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셀 수 없이 제공될 수 있지만, 말씀의 힘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심장을 열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의 생명인 영이 사람 안의 영의 불씨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도 효력을 나타내지 않고, 죽은 말씀 처럼 사람의 귀를 스치고 마치 생각 없이 영의 생명이 없이 말한 말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깊은 사랑으로 말한 한 마디는 또한 생명력이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사람 안의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순수한 능력이자 사랑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자신의 사랑을 이웃 사람에게 발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 사람 안에 아직 잠자고 있는 영의 걸형체를 통과해 도달하고, 이 영이 생명으로 깨어나기 때문이다. 말씀의 힘이 이제 또한 사람 안의 영이 활동하게 한다. 왜냐하면 말씀의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이고, 사람 안의 영의 불씨와 접촉하고, 이제 하나님의 발산이 방해 받지 않고 사람의 혼에 도달할 수 있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일하려는 의지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장이 이 전에 항상 자신을 열어야만 한다. 즉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우선 귀에게, 이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서, 이로써 사람의 의지를 통해 자신 안의 영에게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사람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역사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형성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다. 사람이 자신의 초기의 저항하는 본성을 바꾸고,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다. 사람이 영원히 영원한 사랑에 속하기 위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다.

B.D. No. 6401

1955년 11월 14일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내 대적자가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가 내적인 음성으로 받은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너희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너희는 진지하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한다. 비록 너희가 항상 승리할지라도 너희는 항상 자주 이런 의심에 빠진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나와서 긴밀한 관계를 끊으려는 대적자의 노력이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가 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말이 빛임을 알기 때문이고 이 빛 안에서는 그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해 그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내 증거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생명력 있는 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내 말씀은 너희에게 빛과 능력을 준다. 내 말씀은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이 한가지만 가지고도 이미 영원한 사랑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증거이다. 내 사랑의 가르침 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생명으로 깨어나고 그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너희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과 빛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비록 내 말씀의 근원을 알지 못할지라도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은 내 말씀에서 감동을 느낀다. 왜냐면 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근원이 숨겨질 수 있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것의 생성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그는 말씀이 진리임을 느낀다. 그의 혼이 반응을 느끼고 깊은 감동을 받는다. 왜냐면 말씀 안에 나로부터 온 내 힘이 들어 있고 이 힘이 모든 대항하는 일을 포기하는 곳에서는 절 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빛을 꺼버리기 원한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직접 빛을 받는 곳에서는 대적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실제 항상 또 다시 사람들의 심장에 의심을 뿌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빛이 이미 너무 밝아져 그의 교활함과 술책이 들어나지 않게 될 수 없고 내 말씀 자체가 나와 진리를 증거한다. 내 말씀은 진리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준다.

그러나 내 말씀은 항상 단지 나를 대적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다. 내 말씀은 또한 비록 그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잘못 된 생각을 할지라도 단지 진리에 합당한 것을 인정하려는 사람에게 항상 역사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현명한 존재로부터 나온 말을 들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이제 자원하여 내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이다. 전적으로 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단지 이런 권세와 아무런 연관을 갖기를 원치 않는 나를 대적하기로 맹세한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다.

질문하는 사람은 항상 답변을 받을 것이고 답변이 단지 진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말씀이 감동을 준다. 왜냐면 나 자신이 내 말씀 안에 그와 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말씀이 한 사람에게 전해질 때, 이로써 그에게 나타나는 효과에 단지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너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그가 내 공개적인 대적자가 아닌 사람에게 빛을 선물할 수 있다. 이 빛은 내 사랑으로부터 발산되었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준다.

다음 사항이 누가 너희에게 말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되어 한다. 내 말씀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취가 된다. 내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갈망이 항상 더 커지게 하고 항상 양식을 먹기를 원하게 한다. 그들은 이제 또한 사랑의 빛이 비추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이 즉 잘못 된 지식이 절 대로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없고 그러므로 사람을 또한 축복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깨달음의 빛을 피하고 깨달음의 빛을 다시 꺼버리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한다. 그러나 한번 생명으로 깨어난 사람은 절 대로 다시 어둠과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다. 이를 통해 너희는 누가 너희에게 말하는 지를 깨닫고 제공자에 대한 모든 의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힘의 공급은 혼이 느낄 수 있다.

B.D. No. 3162

1944년 6월 19일

혼은 영적인 힘의 모든 공급을 깨닫는다. 그러나 육체는 영적인 힘의 공급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지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가 성숙하고, 몸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영적인 진보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으로써 자주 순수한 육체의 욕망과 연약함에 맞서 싸워야만 하는 반면에 혼은 이미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혼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이로써 다시 혼이 좋아하지 않는 것에 다시 묶이게 되면, 혼이 끊임없이 힘을 받고, 빠르게 육체를 정복하고, 육체의 욕망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고, 대부분 혼이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곤경에 빠지면, 영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유혹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힘이 저항을 통해 성장해야 하고, 혼이 받는 저항은 혼이 합격해야 하는 모든 유혹이기 때문이다. 몸은 혼이 몸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즉 몸이 혼이 추구하는 일을 따르게 할 때까지, 그렇게 되면 혼이 마침내 물질을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세상에 속한 것을 몸을 위해 요구한다. 왜냐하면 혼 안의 영이 이제 더 강해지고, 영이 혼과 육체를 다스리고, 영의 말에 자원하여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의 공급은 단지 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저항하려는 의지가 특정한 강요에 의해 즉시 꺾이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은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동인이 되어 온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람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육체적 쾌락을 억압하도록 움직일 것이다. 그러므로 유입된 힘이 단지 혼에 영향을 미치고, 이 힘은 육체의 행동과 욕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혼이 사랑을 행하도록 이끌고,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게 하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게 한다.

그러나 혼은 자신 안의 영이 명하는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서서히 세상과 세상의 기쁨과의 연결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비록 육체가 처음에는 망설임과 아직 세상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혼이 육체에게 요구하는 일을 항상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힘이 더 강하고, 혼이 자신 안의 영에게 완전히 항복하면, 육체의 저항은 무너지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는 혼의 갈망과 노력에 동참하고, 세상적이 될 모든 위험이 끝이 난다. 인간이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적을 수록, 그의 성숙한 상태가 높다.

만약 그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그가 다시 투쟁할 때까지, 그가 다시 포기하는 일을 통해 혼에게 실패하지 않게 할 힘의 공급을 가능하게 할 때까지, 그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그럴지라도 세상의 유혹은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유혹을 통해 자신의 힘을 시험해야 하고, 유혹에 맞서는 싸움과 모든 승리가 높이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혼은 온전하게 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고, 영적인 친구의 지원을 얻기 위한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혼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일과 추구하는 일이 세상을 향하

거나, 영의 나라로 향하게 하는 지에 따라, 힘의 유입을 줄이거나 증가시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육체는 육체를 극복하도록 혼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면 혼이 온전하게 되려는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유혹을 통해서만 혼의 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B.D. No. 7026

1958년 1월 27일

혼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는 일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왜냐면 그러면 단지 혼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기 원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과 연결을 더 깊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은 항상 혼에게 영적인 재물을 준다. 왜냐면 이런 혼의 양식은 단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을 통해 혼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단지 사람들에게 양식과 음료를 약속한 하나님 자신에게 자원해 굶주림과 굶주림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일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외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이나 또는 아름다운 말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일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내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흐름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서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심장을 여는 것과 같다.

왜냐면 그의 말은 살이요, 피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혼에게 올바른 양식이고 그의 말은 그가 직접 사람의 심장에 비취주는 사랑의 비추임이기 때문이다. 혼은 이 말씀을 올바른 양식과 올바른 음료로 느낀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공돼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은 혼에게 영적인 성장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전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람들의 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 전에 먼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가 설교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로써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지나게 하는 설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단지 문자를 말한 것뿐이고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는 말로 이해하거나 또는 단지 설교한 말로 이해할 뿐, 말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런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 자신에 의해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이 비로소 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하고 혼에게 능력을 주고 혼이 높이 성장하게 하는 양식으로 혼에게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다. 왜냐면 하나님과 연결은 의무적으로나 또는 형식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일이 축복이 되려면, 사람들 내면에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진정한 진지함은 어느 때나 모든 곳에서 사람을 채울 수 있다. 그는 항상 모든 곳에

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의 식탁으로부터 분배되는 선물인 능력의 흐름이 그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각으로 자신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런 생각은 사랑으로 더욱 더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은 생각으로 그와 대화 하고 혼이 필요한 것을 그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고 이런 유익이 중단될 필요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듣기를 갈망하는 이로써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가운데 그의 말을 듣거나 읽거나 또는 생각으로 하나님에게 말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혼은 성장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양식을 충만하게 얻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계속하여 양식과 음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이 "받아먹고 받아 마시라. 이를 나를 기념해 행하라." 고 약속한 것처럼 계속하여 주님의 식탁에서 활기를 얻고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혼의 불멸성.

B.D. No. 1874b

1941년 4월 4일

사람의 존재는 항상 같은 구성원인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겉 형체인 육체는 혼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육체는 단지 기관이고, 이 기관을 통해 혼의 의지가 수행이 된다. 죽음의 순간에 혼은 이 땅에서처럼, 즉 볼 수 있는 창조의 작품 안에서 혼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기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혼이 거하는 장소를 바꾸어,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영역으로 가기 때문이다. 혼이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도록 혼을 양육해야 할 이 땅의 과정을 위한 단지 수단이었던 육체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사람의 존재의 세번째 구성원인 영은 실제 모든 사람 안에 잠자고 있지만, 혼의 의지가 육체보다 영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때, 다시 말해 항상 세상적인 욕구를 뒤로하는 것을 의미하는, 혼이 영이 혼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요구들을 덜 중요하게 여길 때,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한다. 육체와 혼과 영은 실제 함께 속해 있지만, 그럴지라도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혼이 자신의 의지를 육체의 요구에 더 많이 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은 육체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자신 안의 영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지의 방향이 저세상의 삶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삶 이후 혼이 거하는 상태를 정한다. 이 상태는 혼에게 행복이나 또는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혼이 거하는 이 땅의 삶과 육체의 기능은 단지 일시적인 단계이다. 혼은 이 땅에서 사람이 모든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육체가 그의 기능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된다면, 혼이 사라진 것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혼은 실제 육체를 떠난다. 왜냐하면 혼이 자신의 겉 형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영역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혼이 사라진 것처럼 여기는 것은 혼의 특성에 대한 전적으로 잘못된 관점이다. 왜냐하면 혼은 소멸될 수 없는 어떠한 것이기 때문이다. 혼은 실제로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육체의 기관의 기능을 정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혼은 자신의 부족한 성장정도로 인해, 다시 말해 혼이 자신 안의 영에게 아주 적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행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절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혼은 영적인 것이고,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육체는 물질로, 세상적인 입자로 되어 있고, 그러므로 지속적인 변형 아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혼이 육체를 벗어난다면, 원래의 구성요소로 분해된다.

아멘

사람들은 육체와 혼과 영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영의 역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영은 육체와 반대이다. 반면에 혼은 둘 사이에서 거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육체나 영을 결정해야만 하고, 절대로 양쪽으로 향할 수 없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초기의 혼은 몸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러므로 혼은 단지 몸의 모든 소원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즉 인간의 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것이 단지 몸의 요구를 따르고, 아직 물질인 몸과 연합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물질적 재물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면 물질이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은 영이 혼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고, 영은 자신을 관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육체가 아직 우세하고, 육체가 혼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육체가 혼의 감각과 갈망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혼은 또한 세상적인 것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수 있고, 육체의 욕망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혼은 이 땅의 삶에서 물질적인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영이 권리를 얻게 되고, 영이 이제 자신을 혼에게 표현하고, 혼이 영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혼은 다른 방향을 취하기 시작하고, 육체를 위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영적 재물을 위해 추구하게 된다. 혼은 자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한다. 다시 말해 혼은 영이 혼에게 전해주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실제 행복하게 느끼고 항상 더 적게 육체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는 혼이 영이 혼에게 영적인 재물과 교환하기 위해 이 땅의 물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육체가 관심을 갖게 하려고 시도한다. 영이 이제 육신을 이기고, 영과 육체가 혼을 자신들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영이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는 일에 성공하면, 영이 승리자가 된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은 사람 안의 신적인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특징짓게 한다. 영은 사람을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시키는 끈이다. 영은 사람이 자신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히 연결되는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한다.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깨닫는다. 그전에는 그는 단지 자신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 생물체로 의식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깨닫는다면,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아니고, 그는 더 높은 재물을 구한다. 그러면 그의 생각은 영의 나라로 향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분과 접촉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그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고, 그의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혼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가르치게 한다. 이로써 육체와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애쓴다. 왜냐면 사람 안의 영은 끊임없이 자신과 떨어질 수 없게 연합이 되었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합이 되어 머물게 될 아버지의 영에게 다가가도록 재촉하기 때문이다.

아멘

혼 이 자기 안의 영에게 적게 대적할수록, 영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은 더 쉽게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혼이 영의 영향력을 따라, 신체의 감각 및 기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의지가 먼저 내면의 삶에서 나와야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주된 생각과 의지가 육신의 안락함과 이를 유지하는 데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충만할 수 없다. 왜냐면 그러면 혼이 영의 음성을 자신 안에서 들을 수 없고, 이성이 마찬가지로 영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성의 기관에게 영적인 내용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안의 영으로부터 배우려는 진지한 의지가 영이 표현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의지는 혼에서 나오고, 영을 향하거나, 육신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지가 생각을 정한다. 그렇지라도 이 생각은, 영이 역사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면, 사람 안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러면 사람은 전적으로 영의 영향에 자신을 맡길 수 있고, 그는 항상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과 의지가 먼저 자신의 내면을 향해야만 하고, 그가 육체가 아니라, 혼을 돌보기를 원해야만 한다. 더 나가서 그는 이 땅에서 해야 할 과제에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자기인생의 길잡이로 삼아야만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그는 더 나아가 가장 순수한 진리를 열망해야만 하고, 이 진리를 내면에서 구해야만 한다. 그는 내면의 귀를 기울여, 진리를 주는 분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에게 주는 것을 들어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르침을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에 합당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은 항상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즉 그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야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제한 없이 역사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자체는 영의 세계에서 힘이 전달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심장 안으로 자신을 발산해주는 일이고, 이로써 사람은 단지 신적인 것을 자신 안에 담고, 이는 지식을 통해, 깊은 지혜를 통해, 빛이 충만한 깨달음을 통해, 겉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지식을 가진 상태는 자체가 순수한 빛이며, 능력인 영원한 하나님을 이미 닮은 것이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빛으로 둘러 싸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반면에, 육체의 눈은 단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볼 수 있는 많은 지식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역사 외에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빛으로 쌓여 있으면, 그 자신이 빛의 전달자이다. 그 자신이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능력의 저장소가 된다. 이 저장소는 이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힘을 전해줄 수 있다. 모든 힘과 빛이 전달되려면, 받는 사람의 받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주 작은 반발도 전달하는 일을 방해한다. 이런 저항은 생각과 의지로, 혼이 자기 안의

영에게 등을 돌려, 육체를 향하는 일로 나타난다. 즉 육체의 소원과 정욕을 따르는 일로 나타난다.

그러면 혼은 자기의 과제대로, 자신 안의 영과 하나가 되기 보다 육체와 하나가 된다. 자신 안의 영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기 위해 추구한다. 혼이 어느 방향을 택하든지 혼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혼은 영 쪽에서는 항상 지원을 받지만, 육체 쪽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육체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영은 방해받지 않고 역사할 수 있기 위해, 다시 말해 영이 전적으로 모두 혼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단 한가지의 거절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혼이 영의 도움으로 육체도 영의 소원을 따르게 만들면, 육체의 영화가 보장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물질적인 입자들도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빛이 비취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다. 이로써 혼은 자기 안에서 영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다. 이 음성을 육체의 귀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반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울리는 음성을 자기 안에서 듣고, 가장 밝은 빛 가운데 거한다. 즉 가장 깊은 지식으로 충만해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를 온전히 충만하게 감싸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자기 안의 영이 하나가 되었고, 혼이 충분히 성숙해, 빛의 존재로써 상상할 수 없이 복된 영의 나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혼이 영과 하나가 되는 일.

B.D. No. 4732

1949년 9월 4일

너희의 혼이 성숙하게 되도록 주의하라. 이로써 너희 안의 영이 혼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라. 즉 영이 혼을 이해시킬 수 있게 만들고, 영이 내 뜻대로 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즉 선한 모든 일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너희가 너희의 실수와 약점에 맞서 싸우고, 온전하게 되려고 추구할 때, 너희의 혼이 성숙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안의 영이 혼에게 해야 할 일을 알리는 정도로 역사하게 하는 일은 의지로 이미 충분하다. 이로써 혼이 느낌에 따라 나의 뜻을 행하려고 추구하게 되고, 혼의 성장 정도가 높을 수록 혼은 영이 표현하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는 영적인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즉 인간은 더 많이 자신의 내면의 삶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기 보다 자신의 혼의 상태가 더 높게 성장하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한다. 이런 모든 역사는 사람 안의 영의 역사이다. 영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제 영과 하나가 되어 자신을 높은 곳으로 이끌게 하는 혼에게 행사한다. 왜냐면 사람 안의 영이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은 단지 나에게 인도할 수 있고, 영은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혼이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려는 자세를 가질 때, 사람이 사랑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 그를 나와 분리시켰던 장애물을 제거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

사람 안의 혼과 생각과 느낌과 의지는 강요를 받지 않고 나에게 향해야만 한다. 그러면 혼은 자신 안의 영의 불씨가 생명으로 깨어나게 한다. 영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루면, 너희 안의 영은 더 이상 쉬지 않을 것이

고, 항상 또 다시 반복해서 혼에게 정해주려고 시도하고, 혼이 영의 음성을 듣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즉 사람은 더 이상 생각없이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죽음 후의 자신의 상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는 이 땅의 삶의 목적에 대해 묵상할 것이고, 진리 안에 서기를 갈망할 것이고, 진리 안에 설 기회가 그에게 제공되는 곳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다. 그의 생각은 영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장 먼저 영의 불씨에게 너희에 대한 권세를 부여하려는 추구를 해야 한다. 이런 일은 단지 온전하게 되려는 진지한 의지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 너희의 의지대로, 의지의 역사도 그러할 것이다. 의지가 나에게 향하면, 의지가 너희를 확실하게 나에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더욱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의 방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일이 혼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혼이 자원하여 영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 안의 영이 너희 안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성장과정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다. 왜냐면 혼이 영의 영향력에 굴복하면, 혼이 위로 성장한다는 모든 보장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일부분이 너희를 나에게 이끌고, 너희는 나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 너희가 나와 연합을 이룬다면, 너희가 이 땅의 삶의 과제를 완수한 것이다.

아멘

영의 불씨와 혼에 대한 설명.

B.D. No. 6210

1955년 3월 12일

너희가 해명해주기를 구할 때 나는 너희에게 항상 해명해주었다. 왜냐면 잘못 된 생각은 너희가 의심을 갖게 하고 부족한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리는 결함이 없는 지혜이고 너희의 깨달음을 높여주는 빛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나와 내 성품과 내 사역과 역사를 최고로 높고 가장 온전한 영의 역사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나를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생명력이 있게 된다. 이런 일을 단지 진리가 이를 수 있다. 내 사랑이 너희에게 이런 진리를 부여준다. 반면에 잘못 된 생각은 내 대적자의 역사로서 너희 안에 나를 믿는 믿음을 없애기를 원한다. 나는 항상 같은 진리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에게 전해진 지식은 항상 서로 맞아 들어가고 서로 모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이고 나로부터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되었다. 나와 같은 영적인 입자를 가지고 나와 같이 온전하지만 그러나 나에 의해 창조 된 이런 존재가 그의 온전함을 잃어 버린 일과 그의 이유에 대해 내 사랑이 이미 너희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었다. 이로써 너희가 내 구원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했고 나에 대한 사랑이 깨어나게 하고 강하게 만들려고 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존재를 신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고 나와 온전한 가운데 머무른 영들이 함께 거하는 영역에 속해 있지 않다. 그는 다른 성품을 받아 드렸고 내면으로부터 전적으로 변화되어 그의 성품은 내 원래의 성품과 정반대가 되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나로부터 나왔고 무한 가운데로 발산되었고 나로부터 나온 존재로 머물고 그는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영적 존재의 성품이 온전해질 때 비로서 그가 내 품에 안기게 된다.

나로부터 나왔지만 나를 떠난 존재들이 원래의 상태로 귀환하는 일을 위해 영이 수많은 영적인 입자들로 수많은 성분들로 분해되었고 그들이 확실하게 다시 성장하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성장의 길을 가도록 내 모든 창조물 안의 그들 각자에게 과제가 주어졌다. 이로써 나는 타락한 영들을 다시 나에게 이끌었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나와 멀리 떨어진 거리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는 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내 영적 존재에 속했던 영적인 입자들을 다시 하나로 모음으로써 귀환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나는 이 모든 입자들에게 큰 과제를 성취하기에 합당한 걸형체를 부여했고 이런 영적 입자들의 모임인 혼이 원래 상태에 즉 온전한 상태에 다시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이런 영적인 입자들에게 맡겼다.

나는 먼저 죽은 걸형체인 인간의 육체와 혼에게 함께 생명을 부여했다. 혼은 원래 초기에는 내 형상이었지만 스스로 온전한 상태를 벗어난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혼이 다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는 내 영원한 사랑의 힘의 불씨를 혼 안에 넣어 주었다. 혼이 완성에

이르는 것을 도우려는 어떠한 신적인 것이 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랑의 불씨가 이제 영원한 사랑과 연결을 이룬다. 이를 위해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불씨가 큰 불이 되도록 지펴야만 한다. 실제 모든 사람안에 희미하게 불이 붙어 있는 불씨는 가장 큰 화염으로 커질 수 있거나 꺼져버릴 수 있다. 꺼져버리면 나와 어떤 연합도 이룰 수 없고 새로운 파문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내 일부분인 영의 불씨는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인간의 혼 안에 거하고 혼이 세상에서 살 동안 그의 영과 하나가 되면, 즉 신적인 사랑의 불씨를 자신 안에서 불지피고 그의 모든 생각하는 일과 원하는 일을 이런 사랑의 영이 정하게 하면, 혼은 또한 원래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고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일부분이 나에게 달려오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혼이 내 자녀로서 나와 연합을 이루는 일이 뒤따라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혼이 이런 불씨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혼은 이 불씨를 전적으로 꺼버린 것이다. 그러면 혼은 유일하게 혼을 생명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단 한가지인 하나님의 일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자유의지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굳은 형체로 파문받는 일을 다시 선택한 것이다. (1955년 12월 3일) 파문을 받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의 불씨가 따라 갈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불씨는 단지 자신을 자신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영의 불씨에게 기회를 준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로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빼앗긴 존재인 의지가 묶임을 받고 내 뜻을 행해야만 하는 존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유의지가 단지 내 영이 역사하게 할 수 있고 자유의지가 내 영이 역사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은 또한 자신 안의 영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혼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불씨가 빛을 비출 수 없고 그가 사망할 때에 불씨가 혼과 분리되어 원래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 가기 때문에 저세상에서 끝 없이 긴 시간 동안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된다. 이런 혼은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반발심이 가득하여 그에게 영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사랑의 불꽃이 흑암의 나라에도 비춘다. 다시 말해 내 사랑의 비추임은 항상 다시 이런 혼 안에 불을 지피고 그의 의지를 움직여 혼이 빛과 사랑의 비추임 안으로 가도록 자극한다. 자 원하는 혼은 이제 또한 다시 내 영과 교류한다. 하지만 영은 혼 안이 아니라 혼의 외부에서 혼과 교제를 시작한다. 즉 혼은 빛의 세계로부터 깨달음으로 인도받는다. 이런 일은 이 땅에서 만약에 사람이 사랑의 불씨가 역사하도록 허용했다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불씨를 통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 영적 성장은 말할 수 없게 어렵다.

그러나 혼은 전에 영계의 창조시 창조된 천사의 영이 타락했던 존재이고 자신이 자신이라는 인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혼은 그가 아직도 내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동안에만 즉 그가 자기 안에 사랑의 원칙이 자리잡지 못한 동안에만 원래의 성품을 다시 찾지 못하는 타락한 상태에 머문다. 나 자신의 일부분인 내 영의 불씨는 사랑이고 타락한 존재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 안에 작은 불씨로 넣어주었고 이제 사람이 스스로 높이 타오르는 큰 불을 일으켜야 한다.

타락한 존재는 사랑을 버렸고 내 사랑을 물리쳤다. 사랑이 없이는 그는 절대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를 다시 얻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나는 그의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의

불씨를 넣어 주었다. 그러나 이 불씨는 자유의지로 큰 불로 확산돼야만 한다. 존재는 내 사랑을 다시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저세상에 그를 아무런 도움이 없게 놔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계에서 성장은 이 땅의 성장과 다르다.

만약에 혼이 자원하여 자신 안에 있는 내 영의 인도를 받고 혼이 사랑의 삶으로 자신 안의 영의 불씨가 깨어나게 해서 이제 동시에 나와 이미 연결이 되고 혼이 내 사랑의 비추임에 저항하지 않고 혼이 자신의 모든 성품을 변화시키고 내 원래 성품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제 혼에게 역사할 수 있게 되면, 이 땅의 이런 삶이 혼에게 줄 수 있는 정도에 혼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기회가 영의 세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혼도 빛의 나라의 노력을 거부하지 않고 새로운 파문을 의미하는 깊고도 깊은 곳으로 다시 타락하지 않는다면, 깊은 곳에서 빛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너희 안의 하나님의 영의 불씨는 사랑이고 내 일부분으로써 모든 사람 안에서 잠을 자고 있고 점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점화되어야만 한다. 이런 영의 불씨는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혼을 모두 채울 수 있고 그러므로 혼을 영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한때 타락했고 자신이 자신이라는 의식을 가진 혼은 그의 원래 초기의 상태였던 천사의 영이 다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심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불씨.

B.D. No. 7726

1960년 10월 15일

내 이름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안에서 너의 곁에서 누가 너희에게 말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이 음성을 심장에서 느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알아 차리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크기는 제한이 없고 절대로 바닥나지 않는다. 사랑과 힘의 원천이 항상 또 다시 열려, 너희에게 부어준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아버지가 가까이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내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어주는 내 은혜이다.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면, 너희는 조용한 묵상 가운데 기다리며 너희 심장을 나에게 드러라. 그러면 나는 너희 모두를 영접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보호하고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긴밀하게 나와 교체하며 삶을 살고 너희의 영의 눈이 빛나게 밝아지고 깨달음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일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왔다. 너희가 스스로 내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기 원할 때 너희 심장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삶을 시작할 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가 이 불씨를 불길로 자라게 해 내 영원한 사랑의 불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아주 작은 내 하나님의 영의 작은 불씨인 사랑의 불씨를 너희 안에 넣어주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육신을 입을 때 나 자신의 작은 분신을 너희 안에 넣어주어 다시 나와 연결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길 구해야만 하고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되어 있는 연결을 너희 안에서 비로소 의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영의 불씨가 너희 안에 있다. 영의 불씨가 너희가 불씨를 타오르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증명한다.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면, 너희 안에서 불씨가 타오를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전혀 사랑이 없는 내 대적자의 성품을 받아들임으로써 한때 순수한 사랑이었던 너희의 성품을 반대로 바꾸었고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사랑의 자녀였다. 너희는 내 사랑에서 생성되어 나왔다. 나는 영원히 너희를 내주거나 또는 내 대적자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위해 영원한 사랑인 내 영을 즉 하나님의 영의 불씨를 넣어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절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왜냐면 이 영의 불씨가 너희를 자극해서 육신을 이기고 실제의 너희인 혼을 나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혼이 영과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영원한 아버지의 영인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영의 불씨가 너희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영의 불씨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자유의지를 통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를 줄 때까지 아주 조용하게 처신한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나타낸다. 그러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이뤄진다. 그러면 너희의 삶은 오직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된다. 왜냐면 너희의 성품이 다시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내 불씨가 생명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영이 너희 안에서 말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은 나 자신이 너희 안에 임재한다는 증거이다. 이런 일은 자녀가 영원 동안 아버지와 떨어지게 만든 큰 간격을 극복하고 아버지 집에 찾아온 증거이고 자녀는 이제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해진다.

아멘

영의 불씨가 아버지의 영을 향하게 촉구한다.

B.D. No. 7761

1960년 12월 1일

너희 안의 영이 쉬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을 이루게 촉구한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영의 촉구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항상 영이 너희에게 전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영이 너희에게 전달해주기 원하는 것에 너희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영은 너희 안에 있다. 모두가 자신 안에 아버지의 영의 일부분으로써 영의 불씨를 가지고 있고 이로써 아버지의 영과 분리될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다.

너희 안에 영의 불씨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일부분인 모든 사람이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왜냐면 너희는 내면으로부터 나와 연결을 구하게 재촉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내적인 재촉을 거부하고 내 대적자에게 향한 가운데 머물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 안의 영이 뒤로 물러서고 절대로 너희의 의지에 강요하는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유일하게 너희의 의지가 정한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피조물에게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남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사람이 이제 올바르게 그리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능력이 그에게 역사할 것이고 그의 생각과 원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의 세력은 서로 다르다. 그들은 서로 대립해 있다. 나와 내 대적자는 사람들의 혼을 얻으려고 한다. 각각의 세력은 서로 다르게 사람에게 역사한다. 내 대적자는 육체를 자신을 위해 얻으려고 시도하고 그러므로 육체를 통해 혼이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정하려고 한다.

반면에 나는 영을 통해 육체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영과 육체가 갈망하는 것은 전혀 서로 다른 종류이다. 그러나 혼이 영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정하게 허용하면, 혼은 곧 나에게 속한다. 왜냐면 그러면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 뜻에 합당하게 되고 혼을 다시 빛으로 혼이 한때 가졌던 온전함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혼이 육체의 갈망을 충족시키면, 내 대적자가 혼을 얻은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의지와 생각이 나를 떠나 있기 때문이다. 혼은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의지를 따른다. 그러나 혼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럴지라도 혼은 자신 안에 나로부터 온 영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혼은 영의 불씨가 모든 표현하는 일을 막는다.

영의 불씨는 자신을 관철시킬 수 없다. 혼은 영의 불씨의 재촉과 갈망을 듣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육체의 모든 갈망은 성취시킨다. 나에게 의해 창조된 존재는 영원히 나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혼이 나와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혼은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혼은 항상 불행한 상태인 격리된 상태에 있다.

혼은 나에게 저항한다. 나는 이 저항을 강제적으로 꺾지 않는다. 혼은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연장시킨다. 반면에 자신의 영이 표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혼은 항상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나와 떨어져 있는 간격은 아주 곧 사라진다. 왜냐면 영의 불씨가 나와의 연합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 안의 영이 이제 유일하게 그의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정하고 이는 선하고 올바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안에서 이제 역사하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가 한때 가졌던 저항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방해받지 않고 너희 안에 내 사랑의 힘을 다시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나를 찾을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안에 나에게 향하는 길 외에는 어떤 다른 길을 택하지 않는 인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인도자를 따르면, 그는 나 자신에게 확실하게 도달할 것이다. 그는 항상 긴밀하게 나와 연합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내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안에 있는 영을 통해 그를 이끌기 때문이다.

아멘

어느 누구도 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영의 능력이 그를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으면, 내 일부분인 그 안에 영의 불씨가 내면으로부터 그에게 지시하고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항상 또 다시 도움을 청하여 그가 동시에 나와 함께 그를 영원으로부터 묶고 있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혼이 자유를 갖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자유롭게 해주는 일은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완성한 구속사역을 통해 가능하다.

내 대적자로부터 너희가 구속을 받기 위해 이제 단지 너희의 고유의 의지 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자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잠자고 있는 영의 능력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안의 영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영은 너희들 인도하고 너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인도한다. 왜냐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내 사랑의 영의 가장 작은 불씨를 너희 안에 넣어 주어 구속사역이 성공하게 했고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헛되지 않게 했다. 단지 한 가지 사랑의 행위가 너희 안에 영을 이미 깨어나게 한다.

영은 계속하여 사랑을 행하게 너희에게 자극하면서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면 너희는 쉬지 않고 너희를 나에게 이끄는 영의 능력을 감지하고 느끼게 돼야만 한다. 너희가 단지 영의 능력을 활용하면,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구속을 받는 일이 너희에게 성공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내가 진실로 거부하지 않을 능력을 나 자신에게 구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와 연결은 기도를 통한 것이나 또는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한 것이나 너희에게 항상 나로부터 나온 능력을 줄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항상 더 많이 나에게 머물 것이다. 너희의 위를 향한 추구는 분명할 것이다.

너희 모두가 영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너희 안에 나로부터 나온 이런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단지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기 원하기만 하면 된다. 이 불씨가 단지 너희에게 표현하기 원하면, 너희는 이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된다.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 심장의 작은 자극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 자극을 따라야 한다.

왜냐면 영의 불씨는 너희에게 항상 사랑을 행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자극을 따르면, 영의 능력이 항상 더욱 확산될 것이다. 너희는 빛의 생각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영의 나라와 연결을 이루려는 강한 자극을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갈망은 줄어들고 영적인 갈망은 더 많이 우선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항상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인 나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은 높은 곳의 나에게 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을 통해 너희를 인도한다. 왜냐면 너희 혼자서는 어떤 것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고 너희 의지를 실행하는 일은 예수의 구속사역이 이룬 일

이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너희 사람들을 위해 먼저 강한 의지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너희에게 구매해주었다.

이 모든 은혜는 너희가 도움이 없이는 저항하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의 연락함 가운데 너희가 내 대적자에게 대항하게 돕는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은 사람 안의 영이 쉽게 자유롭게 될 수 있게 역사하고 단지 아주 작은 사랑하려는 의지가 사람 안의 영이 역사하게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수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에 있게 고백할수록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할수록 사람 안의 영이 더욱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구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면 내 영의 능력이 이제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시 빛과 능력이 없는 너희 이웃들의 축복을 위해 빛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이 너희가 자유롭게 되게 도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너희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원수의 일부분인 동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의지가 아직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향하지 않은 동안에는 너희가 원수에게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세주는 너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도움을 청할 때 원수를 너희로부터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안에 나 자신의 일부분인 영의 불씨는 너희가 영의 불씨가 일하게 허용하면, 너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도움을 청하게 재촉할 것이다. 영의 불씨는 심장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사랑을 행하게 자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리고 영의 불씨에게 어떠한 강요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항상 도와줄 준비되어 있다. 왜냐면 연약하고 구속받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내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언젠가 이런 존재들을 나를 위해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조건.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B.D. No. 4060

1947년 6월 9일

너희가 간절히 원하며, 영의 음성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도록 허락하면, 모든 분야에서 너희들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너희가 먼저 이루어야 할 조건은, 너희에게 나의 종들을 통해 전해진 나의 사랑의 계명을 영접하고, 그대로 행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바로 깊은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사랑의 행위가 선행되지 않고,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같은 지식을 받을 경우 너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너희는 이 지식을 생명력 있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 지식이 심장 안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를 전하는 은사가 없고, 내면의 확신에서 오는 열심이 없고, 전한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공허한 소리와 같이 된다. 왜냐면 전제조건인 사랑의 행함이 듣는 사람들이 이성과 심장으로 지혜들을 영접할 능력이 있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접할 능력이 있게 만든다면, 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전하는 것을 자신이 모두 이해하는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할지라도, 그는 자신 안의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다.

나에 대한, 나의 계명에 대한 올바른 입장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 지식이 전해지던지 전혀 상관없이,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갖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기본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생각의 형태로 영계에서 사람에게 전해진 계시를 평가할 수 없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영의 역사가 필요하다. 나의 영은, 단지 나의 대적자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이 단지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을 통해 가능한, 신적인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는 곳에서 역사한다.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도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안의 영이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의 가르침을 받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이 귀에 들리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처럼,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영이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빛과 사랑의 말이고, 깨달음을 전하는 말이고, 선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깊은 지식과 가장 순수한 진리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려 준다.

그러므로 심장이 이 말을 영접해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이성으로 실제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코 그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심장이 관련된 일이고, 심장이 관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사람의 심장은 느낌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다시 말해 혼이 심장을 통해 육체에게 표현하고, 영도 또한 심장을 통해 표현한다. 영이 혼의 느낌에 역사하고, 마찬가지로 영이 육체도 귀를 기울이

게 만들기를 원한다. 영은 같은 역사를 위해 혼과 하나가 되기 원한다. 영은 혼을 영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고, 또한 육체도 자신의 뜻을 따르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가 혼과 하나가 되는 일을 도와야 한다. 그는 자신 안의 영에 의해 공급받고, 가르침 받기를 원해야만 하고,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의 혼을 변화시켜, 혼이 육체보다 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혼이 이제 자신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 심장의 자극을 받아, 빛과 사랑을 간절히 원할 때, 가능하다. 왜냐면 영의 은사를 갈망하는 일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이성만으로는 실제 시험하거나 또는 평가하지만, 전혀 느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지 이성만이 영적인 진리가 제공할 수 없는 증거를 요구한다. 그러나 심장은 자기의 느낌으로 만족하고, 이를 증거로 삼는다. 그러므로 심장은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바르게 판단하고, 진리를 진리로 깨닫는다. 그러므로 심장은 이성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영적 역사의 결과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 자신이, 자신 안의 영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가 영이 자신에게 말해줄 정도가 되었다면, 다시 말해 그에게 영이 역사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면 그의 지식이 깊고,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게 모든 연관관계가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관관계는 그가 단지 이성의 생각을 통해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 생각의 깨우침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게 하기 위해, 숨기 때문이다. 이런 청함이 심장에서 나오면, 심장은 혼이 그의 영과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받을 것이다. 심장이 하나님께 긴밀한 기도를 통해 자신을 연다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항상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심장은 사랑과 은혜를 받을 것이고, 절대로 빈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영의 역사. 영의 거듭남.

B.D. No. 4869

1950년 3월 29일

나의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 안에 서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의 역사가 진리 안에 서는 일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너희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분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는 나 자신이다. 영을 부어주는 일이 항상 공개적인, 특별한 역사일 필요가 없다. 즉 지금과 같이 위로부터 직접 나의 말이 전달되는 일일 필요가 없고, 만약에 너희가 내가 역사할 수 있기 위해 제시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영의 역사가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가 단지 올바른 것을 원하고, 내 마음에 들게 살면 된다. 다시 말해 내 뜻을 성취시키면 된다. 내 뜻을 성취시킴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사랑의 삶을 사는 일이다. 그러면 그의 영은 이미 깨어나고, 나와 연결되어 있고, 사람 안의 영이 그를 가르쳐, 그의 생각은 올바르게 되고, 그는 진리 안에 서고, 올바른 것을 깨닫고 이를 지지하게 된다. 그는 자기가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전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 그가 나의 종을 통해, 사람 안의 영의 역사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이런 능력을 자신에게 돌리고, 그 안에서 행한 나의 역사로 돌리지 않는다.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영으로 역사할 수 있을 때, 그는 실제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런 가르침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거절할 것이다. 내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면, 그는 영원한 나라를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가 바로 묶인 상태에서 구원받는 역사이고, 영이 거듭나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제 영이 사람을 인도하고, 움직여, 안전하게 목표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식적으로 나를 추구하면, 그가 나를 굳게 믿는 믿음 안에 서면, 그의 삶이 사랑의 삶이고 자신 내면의 느낌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부분 외부의 어떤 영향도 없이 증가하는 지식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는 확실하게 그의 영이 생명으로 깨어난 것과 이제 더 이상 흑암에 빠져들어갈 염려가 없음을 확신을 가지고 영접할 수 있다.

그러면 위로부터 주어진 말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을 이런 과정을 위해 양육하기 원한다. 이로써 그들이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와 직접 연결되게 하고, 그들이 내가 우주 가운데 역사하는 일과 활동하는 일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나를 그들의 창조주요 아버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내가 그들이 축복받게 만들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한다.

아멘

올바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영의 역사이다.

B.D. No. 8004

1961년 9월 27일

사람들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내 영의 역사이다. 내 영은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한 모든 사람은 내면의 밝음을 느낄 것이다. 그는 올바르게 생각할 것이다. 그는 항상 진리를 진리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내 의지를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되길 구하는 영의 불씨에 의해 인도받기 때문이다. 자신 안의 영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삶만이 요구 된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에 도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생각으로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점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한 선행조건은 항상 믿으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만약에 그가 믿기를 원하면, 그는 항상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거절한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지식은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나 자신을 믿는 것도 영적인 지식에 속하지만 그럴지라도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확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위로부터 생각을 통해 오는 가르침이다. 즉 이 생각은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심장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 가끔 인도함을 받으면, 그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면, 그는 자주 이성의 활동을 통한 것보다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러나 그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의 생각은 진리를 찾게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을 항상 더욱 깊게 만드는 내 대적자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은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들의 생각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나로부터 온 순수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고 그들은 자원해 진리를 영접하게 되고 이를 진리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위로부터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진 내 말을 혼들이 한번 깨닫게 하는 일에 내가 도달했으면, 이 혼들이 잘못 된 길을 갈 위험이 더 이상 없다. 왜냐면 사랑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미 내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이 전해지는 것은 능력이 주어지지 않고는 이를 수 없는 혼의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말은 내 능력으로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사랑하려는 의지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도 성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이 땅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게 된다. 그가 나로부터 나와 내 성품과 모든 연관관계에 대해 사람들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와 사람들의 과제에 관해 가르침을 받으면, 그는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의 내면의 생각은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영접할 것이다. 그는 비록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확신에 신실하게 머무른다. 왜냐면 진리를 한번 찾은 사람은 이 진리를 더 이상 다른 지식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아주 좋은 설교자의 모든 좋은 설교와 모든 말이 도움이 되지 않고 진리는 사람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심장이 강 팍해져 있기 때문이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사람들의 심장이 강 팍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식었고 물질이 심장을 묶고 있고 그들의 생각은 단지 이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인 재산을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고서 그들은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의 불씨가 있는 곳에는 이 불씨가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항상 단지 내 사랑을 제시해 줘야 한다. 계명을 지키면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을 주는 내 사랑의 계명을 따르게 그들은 자극을 받아야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영은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은 깨우침을 받게 되고 만약에 그들에게 순수한 진리가 전해지면 그들은 동시에 그들 안에 있는 영이 자신을 나타내고 그들의 생각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제공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실제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들의 심장에 감동을 줄 것이고 그들이 한번 사랑을 행했으면, 그들은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스스로 내적인 행복을 찾게 된다. 그들은 보답하는 사랑을 얻게 되고 이 사랑은 다시 능력으로 역사해 새롭게 사랑을 행하게 자극을 한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사랑을 행하려는 자극을 받으라. 축복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너희 심장을 채워야 할 너희들로 하여금 나와 긴밀하게 연합되게 해주는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없음을 믿어라. 왜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아멘

나로부터 빛이 비추어 나온다. 너희가 올바르게 생각하기를 원하면, 빛은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막아 줄 것이다. 나 자신이 너희의 영을 밝게 하면, 이는 너희에게 진리로써 제공되는 생각의 내용을 판단할 때에 너희 스스로 이끌리는 느낌을 받거나 거부하는 느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너희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는 항상 올바르게 공의롭게 남으려는 의지를 가지고서 이제 선입견이 없이 생각의 내용을 깊게 파고 들 수 있다.

너희는 너희에게 감동을 주는지 너희에게 내용에 대해 내적으로 거부감을 주는지 느낄 것이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이 말은 내가 진실로 성취할 내 약속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주 내 영의 역사를 모른다. 왜냐하면 너희가 항상 특별한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 영은 자주 숨어서 자신을 나타낸다. 나는 단지 희귀하게 나 자신을 한 사람을 통해 계시할 수 있다. 내가 단지 희귀하게 이 사람을 통해 직접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그들을 통해 말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그들은 매체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의 세력이 이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내가 내 영을 통해 사람에게 말하면, 그의 심장은 내 말을 선명한 생각으로 느끼게 되어 그는 이제 자신이 항상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기록한다. 또는 영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관점을 말한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 내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에 합당하다. 또는 그는 자신 안에서 울리는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식으로 듣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혼의 성장 정도가 요구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그는 내적으로 음성을 듣고 그러면 이 음성을 이웃에게 전달한다. 만약에 죽어서 이 땅을 떠난 영이 자신의 지식을 어느 정도 매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표현을 할 경우에 내적으로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잘못 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이 실제 내 음성을 자신 안에서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내 음성이 전해질 수 없고 그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록을 하면서 즉 내 음성을 받아 적거나 또는 내가 전달해 주려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면서 단지 의미에 맞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이 자신의 말하는 방식으로 이웃에게 내가 그의 입술에 넣어 준 것을 말해주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생각하는 것은 진리에 합당하게 인도를 받는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하리라. 내 영의 역사는 사랑의 삶의 결과이다. 사랑이 행해지는 곳에 내 영이 깨어 날 것이다. 내 영은 이제 항상 사람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내 영은 내면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내 신적인 사랑의 빛을 비취 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영으로 충만해지고 진실로 내 남종이나 여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내 나라를 위해 내 이름을 세상 앞에 고백하고 자신들의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그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되게 하

기 원함을 선포하라는 자극을 항상 내면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큰 무리 앞에 또는 작은 무리 앞에 가든지 그들은 단지 순수한 진리의 말을 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이런 그릇에 내 영을 부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깊은 믿음이 있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내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생각은 항상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나에게 향해 있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나를 위해 일하고 많은 축복을 심을 수 있다. 내 영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일에 관한 지식을 전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세상적인 일은 항상 영적인 성장 과정과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영이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조용하게 하는 일을 사람들이 종종 주님의 포도원의 일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멘

생각은 영적인 힘이다.

B.D. No. 1757

1940년 12월 30일

깨달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자신이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의 존재의 발산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영의 존재는 사람이 생각을 받아들일 때까지,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모든 생각은 영적인 힘이다. 다시 말해 생각은 인간의 생각하는 기관에 의해 영접을 받고, 그가 이제 의식하게 되기 위해 저세상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향하는 길을 거친 어떤 영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각은 이제 인간이 소유한 영의 성품과 또는 사람이 자신을 의탁하는 것과 일치해야만 한다. 영의 존재가 발산하는 힘은 엄청나다. 그러나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마찬가지로 이런 힘의 발산을 이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이런 발산은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진 이 땅의 존재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품에 해당하는 생각을 전달받게 될 것이고, 항상 갈망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리를 갈망하는 곳에 진리가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이 거하는 곳에는 마찬가지로 거짓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은 인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의 의지에 따라 영의 존재들로부터 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는 자신이 동인이 되어, 생각을 불러일으킬 능력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생각은 바로 영적인 힘이고, 그러나 이 힘이 먼저 영의 나라에서 그에게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지 무지한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생각의 창시자라고 믿는다.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의견대로, 생각은 단지 특정한 기관의 기능이고, 외부 영향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그러므로 사람 자신이 모든 생각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이 생각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선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깊은 생각이나, 얕은 생각이 항상 그 사람 자신에게서 기원 된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공로라고 말한다. 그는 이 가운데 영의 힘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힘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생각을 통해 전해진다면, 그에게 진리를 확신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의 과정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의 실제적인 특성은 그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해, 그들 자신이 동인이 되어 최종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대로 머물게 되 것이다. 그가 신뢰하는 가운데 진리를 갈망하고, 영의 존재들에게 해명을 요구할 때, 비로소 어떻게 영의 힘이 이제 생각의 형태로 그에게 흘러가는지를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런 생각의 기원이 될 수 없고, 영의 나라의 영의 존재에 의해 그에게 어떤 영적인 것이 전해진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든 생각은 깊은 심장에서 나와, 이제 먼저 생각을 생각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체 내부 기관으로 전달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을 의식하려면, 먼저 사람의 심장 즉 자기 내면의 깊고도 깊은 곳에서 생성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를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심장에서 느끼는 것이다. 이 느낌이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 느낌을 심장에서 감지 못하지만, 이 느낌은 느낌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며, 두뇌로 전달이 되어, 생각으로 영접이 되고, 인간의 의식의 세계에 나타날 때까지 어느정도 붙잡아 둔다. 사람들은 생각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신체기관의 생물학적 작용으로 두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생각의 근원이 심장인 것을 믿을만 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느끼는 중심지를 심장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생각을 하나의 느낌으로 여기려고 노력한다면, 이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영접하는 기관 안에 번개같이 영적인 흐름이 불어 넣어 준 것을 사람의 의지가 붙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영적인 힘이고, 심장을 통해 두뇌로 전달되어, 두뇌에서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만약에 의지가 약할 때에는 인간의 의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사라진다.

한 생각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인체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는 항상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면, 신체의 기관이 작동하기 시작해, 심장으로 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런 생각은 이미 존재하는 생각과 어울린다. 다시 말해 이 생각은 즉시 존재하는 생각에 정리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버린다. 사람의 생각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은 심장에서 오는 모든 느낌이 그림처럼 반영되도록 만들어졌다. (1941년 10월 13일)

사람의 의지로 이런 그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런 그림은 이를 위해 지어진 세밀한 신경막에 각인이 되어, 그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바로 기억력이라고 한다. 받은 인상이나 그림들이 아주 나중에 인간의 의식세계에 다시 나타나면, 생각을 위한 기관이 활동한다. 생각하는 기관은 수많은 그림들이 저장된 신경막에서 사람의 의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골라낸다. 이렇게 아주 오래된 인상이나, 생각으로 형성되기 전에, 사람의 심장을 움직였던 일들을 다시 기억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로 영접해서 인상으로 남은 인상은, 수도 없이 많은 인상이 이 그림들을 약화시킬 때까지, 다시 말해 기억력이 약해져, 더 이상 의식의 세계에 떠올릴 수 없게 될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적 인상들이 이제 세상적인 인상과 그림들을 물리칠 것이다. 만약에 심장이 영의 세계에서 오는 힘의 흐름을 받을 준비가 됐다면, 인간의 의지도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 생성된 생각을 두뇌로 보내고, 붙잡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힘의 흐름을 유익하게 생각해, 이를 통해 생성된 그림들을 아주 자주 선명하게 보는 일이 그가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들은 특별하게 세밀하게 새겨져, 곧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채운다. 그러므로 힘과 생각은 하나의 같은 개념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에게 임하는 생명력이 생각의 근원인지, 영의 세계에서 받은 힘이 생각의 근원인지의 차이이다. 항상 생각은 심장에서 생성된다. 왜냐하면 모든 힘의 흐름은 먼저 심정으로 향하고, 심장에서부터 다시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단지 사람의 의지를 통해 생각이 두뇌로 전달되는 것을 막거나, 또는 생각이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기 전에 물리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생각에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의지가 어떤 생각에 깊은 인상을 받을지를 결정하고, 어떤 생각을 의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멘

생각은 저세상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흐름이다.

B.D. No. 5484

1952년 9월 12일

이 땅에서 영계로 이어지는 연결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이 이리 저리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각은 근본적으로 영의 나라에서 보내져, 이 땅의 사람들이 받는 연결을 이루는 발산이고, 다시 다른 형태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위에서 아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연결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연결을 아직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신자가 아니고 사랑을 통해 특정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동안에는 그가 영과 세상과의 연결에 대해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 자신이 어떤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받아드리지만,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생각의 흐름이 빛의 나라나 어두움의 나라에서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는 또한 빛을 갈망하고, 그의 의지는 영원한 빛인 하나님께 향하고, 그에게 이제 빛의 나라로부터 빛의 공급이 보장될 것이다. 그의 생각은 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의식적으로 선한 생각의 흐름을 받아드리고, 어두움의 나라에서 그에게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가 빛의 영역에서 생각의 흐름으로 그에게 도달하는 것을 심장이 영접하고 이성에게 전하는 일을 정한다.

이로써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게 주어질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생각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갈망이 이제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과 생각을 이웃에게 전하게 만들고, 이웃을 같은 생각으로 인도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는 또한 항상 지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의지가 사람들이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선한 생각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선한 생각을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선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고, 빛의 존재들에 의해 나타나게 되어 사람의 심장에 닿아 심장이 영접할 때까지 전달이 된다. 이런 선한 생각은 또한 선한 의지를 가진 이웃에게 절대로 그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성의 활동을 통해 얻은 생각과 즉 영의 세력들이 이성을 사용한 생각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직접 전해준 영적인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

(1952년 9월 11일) 받는 시간 동안에 이성(理性)은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에 혼(魂)이 받는 장치로서 활동하고, 영적(靈的)인 귀(귀)가 열리고, 영(靈)의 나라의 생각의 흐름(흐름)이 부어지고, 이를 붙잡는다. 빛(光)의 영역(영역)에서 발산(發散)된 것이 영(靈)의 귀(귀)에 도달(到達)하고 혼(魂)에게 전달(傳達)된다. 혼(魂)은 감동(感動)을 받아 받아드리고 이성(理性)에게 전한다. 이성(理性)은 기계적(機械的)으로 빛(光)의 영역(영역)에서 발산(發散)된 것을 받아드리고, 붙잡도록 신체(身體) 기관(기관)이 일하게 한다. 그런 후에야 받은 것을 자신이 생각(思考)해보는 일(일)과 이성(理性)의 활동(活動)을 통해 자신의 소유(所有)가 되게 한다. 받는 일(일)은 항상 주는 사람(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사람)을 전제(前提)로 한다. 반면(反面)에 자신이 만든 것은 자신의 일(일)을 통해 결과(結果)에 도달(到達)하고, 이런 경우(경우)가 활발(활발)한 이성(理性)의 활동(活動)이다.

하나님(上帝) 자신이 사람들(人)이 가지고 있지 않고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을 주기(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말씀(말씀)을 이 땅(땅)으로 전하고, 진리(真理)에 합당(合當)하고, 어떤 사람(사람)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소유(所有)하기 위해 영접(迎接)하기만 하면 되는 지식(知識)을 말씀(말씀)을 통해 전한다. 하나님(上帝)은 사람(사람)을 가르치고, 빛(光)의 세계(世界)가 사람(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나 항상 사람(사람)의 의지(意志)가 영(靈)이 표현(表現)하도록 정할 때까지, 영(靈)의 나라(나라)가 이 땅(땅)의 나라(나라)보다 사람에게 더 중요(重要)하게 될 때까지, 사람(사람)이 하나님(上帝)과 유대(關係)를 맺고 이를 통해 진리(真理)를 제공하는 나라(나라)로 가는 문(門)을 찾을 때까지, 사람(사람) 안에 쉬고 있는 영(靈)을 통해 사람(사람)을 가르친다.

(1952년 9월 12일) 그러므로 하나님(上帝)이 친히 사람(사람)을 가르치시면, 사람에게 올바른 지식(知識)으로 진리(真理)가 주어진다. 사람에게 이성(理性)의 활동을 요구(要求)하지 않은고생각(生)이 심장(心臟)에서 떠오르고, 사람(사람) 안(안)의 영(靈)이 깨어난다. 사람(사람) 안(안)의 영(靈)이 하나님(上帝) 아버지(父)의 영(靈)의 일부(一部)이기 때문에 단지 진리(真理)에 합당한 생각(思考)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혼(魂)의 귀(귀)가 이런 생각(思考)을 깨닫고 인정(認同)한다. 사람(사람)이 진리(真理)와 동시에 옳고 참된 것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받기 때문에 혼(魂)은 이런 생각(思考)을 인정(認同)해야만 한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上帝)께 간절한 기도(祈禱)를 통해 그의 이성(理性)이 열심히 활동(活動)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上帝)의 가르침(敎育)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思考)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믿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의 영(靈)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특별(特別)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진리(真理)가 하나님(上帝)에 의해 이 땅(땅)으로 전해지는 때와 하나님(上帝)이 내면(內面)의 음성(聲音)으로 사람(사람)을 가르칠 때는 이와 다르다. 그러면 사람(사람)이 특별(特別)하게 전달(傳達)받는 일(일)을 통해 전에 소유(所有)하지 못했고, 무의식(無意識) 안에 잠자고 있지 않았고, 그가 생각하는 일(일)을 통해 얻지 않은 광범(廣汎)위한 지식(知識)을 직접(直接) 받는다. 이런 지식(知識)은 혼(魂)에게 말해준 것처럼 전달(傳達)되고, 심장(心臟) 안에 떠오르는 생각(思考)으로 전달(傳達)된다. 이런 생각(思考)은 사람(사람)이 자신의 의지(意志)대로 형성(形成)한 생각이 아니고 생각(思考) 자신이 깊은 의미를 가진 말(言)로 형성(形成)이 된 생각(思考)이고, 자원(資)하여 받는 사람(사람)이 받은 그대로 기록(記錄)한다.

이런 일(일)은 인간(人間)의 내면(內面) 외에는 다른 출처(出處)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과정(過程)이다. 하나님(上帝)이 자신의 영(靈)을 통해 가르치는 그의 몸(身)에서 생명수(生命水)가 흘러 나오고, 하나님(上帝)의 영(靈)은 진실로 생명수(生命水)를 풍성(豐盛)하게 가진 원천(源頭)이다. 그러나 인류(人類)는 이런 원천(源頭)을 지나치고, 단지 소수(少數)의 사람들이 생명수(生命水)로 자신을 쾌활(快活)하게 하고, 단지 소수(少數)의 사람들이 하나님(上帝)의 순수(純)한 진리(真理)를 알고 이로써 빛(光)을 비취(披)주고, 진리(真理)와 생명(生命)을 주는 영(靈)의 세계(世界)와 연결(連結)을 이룬다.

아멘

너희는 영의 나라가 그의 기원이고 대체로 선한 영의 나라나 또는 악한 영의 나라에서 즉 빛의 나라나 어두움의 나라에서 발산 된 생각의 파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둘러 쌓여 있다. 이런 생각의 파장은 저항에 부딪히거나 열린 심장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진실되고 선하거나 또는 잘못되고 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생각의 종류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끊임없이 생각의 파장을 받거나 또는 존재가 하는 말을 듣는다.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자신의 생각의 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실제 시도할 것이고 그러므로 생각의 힘이 거부되거나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람의 내면의 성품이 이런 생각의 물결이 그를 둘러쌀 때 자신을 열거나 닫는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이 이미 변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을 구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흐름에 아주 쉽게 영향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내주는 생각에 항상 자원하여 자신을 열 것이다. 그의 혼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내주는 생각을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깨닫고 영접하고 이성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성이 그런 생각을 다루고 이로써 생각을 통해 그를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존재와 이제 접촉하게 된다.

영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도 이와 똑같고 어두운 세상의 생각은 저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에게 전해지는 생각의 내용은 완전히 반대이다. 그러므로 아주 다르게 평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이 정반대인 것처럼 각각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의 흐름도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흐름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고 이로써 이런 흐름을 차단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와 또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의 파장이 끊임없이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고 빛의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가 끊임없이 사람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그의 세상적인 감각이 항상 세상적인 것과 접촉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훨씬 더 많이 세상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존재에게서 나오는 생각의 파장을 붙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인간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즉 세상적인 것의 가치를 밝혀주고 사람이 빛의 나라에서 오는 생각의 흐름에 자신을 열게 하는 효력을 가진 생각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로써 인간의 생각이 세상 속에서 사는 가운데도 건강하게 될 수 있고 인간의 의지가 주로 이 땅의 밖에 있는 나라로 향하면, 빛의 나라에서 오는 영적인 내용에 대한 갈망이 우세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심장은 끊임없이 자신을 열고 빛의 나라에서 그에게 보내는 생각의 파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세상을 향한 생각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만 세상을 향한 생각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것이고 부정적인 세력은 단지 희귀하게 그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이런 접근을 막고 그가 단지 특별하게 연약한 경우에만 굴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하게 된 의지가 항상 다시 보상한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는 그는 두 세력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싸움이 있고 의지의 표현이 계속될 것이다. 의지가 약한 동안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영향을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선한 세력들이나 또는 악한 세력들의 영향 아래 있고 사람의 의지가 유일하게 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는 지에 의존되어 있다. 왜냐면 모든 생각은 영의 나라에서 오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단지 열린 심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서 온 생각을 거부한다.

아멘

내면의 느낌은 생활의 길잡이.

B.D. No. 2104

1941년 10월 9일

사람 안의 가장 깊은 내면의 느낌은 그의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길잡이이다. 만약에 사람이 질문하고, 올바른 길에 거하기 위해 내면의 음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닐지라도,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내면의 음성은 표현을 한다.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내면의 음성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의지가 비로소 결정을 한다.

사람의 의지가 선하다면, 그는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오는 느낌이 주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영접한다. 왜냐하면 그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심장을 영계의 친구들의 영향을 향해 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가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모든 속삭이는 내면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러므로 그는 내면의 음성에 저항하고 물리친다. 다시 말해 거부한다.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심장에서 나오는 음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가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지식에 관련된 질문을 아예 하지 않는다. 그가 모든 영적인 것을, 즉 이세상 밖의 세계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사람의 생각의 범위는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고, 영적인 것을 탐구하는 것을 시간낭비로 여긴다. 그러나 그러면 그는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 안에 세밀한 음성을 느낄 수 없고, 그러므로 그는 지극히 내적인 동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적인 음성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의 것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게 선명하게 울린다.

왜냐하면 그러면 비로소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생각이 자기 안에 질문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동시에 질문에 대한, 실제 영적인 친구들이 생각을 통해 그에게 전해준 답변을 받는다. 사람의 의지가 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때, 생각을 통해 그에게 진리가 전해질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느낌인, 심장에서 나오는 음성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이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 의지가 단지 선을 추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는 올바르게 행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면 피할 수 없게 그가 가야 하는 길이 그에게 제시된다.

아멘

너희는 너희 심장이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 왜냐면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장을 통해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심장이 말하게 할 수 있다. 즉 너희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너희 이성이 말하게 할 수 있다. 너의 행동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할 때, 너희는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심장은 이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사전에 나에게 지도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내가 너희를 지도해주시기를 원하면, 너희는 단지 너희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행하는 일이 진실로 올바른 일이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심장은 단지 내 뜻을 전달하는 곳으로 너희는 그의 음성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느낌을 통해 가르침 받으면, 너희가 본능적으로 거짓된 것을 거절하고 진리에 합당한 것을 영접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와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접했을 때, 느낌으로 이를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혼이 자신이 견디기 힘든 것을 거절하는 신호로서, 혼이 올바르게 진실된 것을 향한 소원 가운데 영으로부터 진실되지 않은 것을 영접하지 않도록 경고받은 것이다. 즉 혼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대적인 자세를 갖고, 이 자세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그가 공개적으로 거절하도록 인도한다. 왜냐면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혼을 해치는 것으로 확정해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내면의 음성이 침묵하여, 그가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그는 나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을 신뢰하거나 또는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한다. 그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응답을 받을 수 없고, 그가 자기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장을 통해 그에게 말할 수 없다.

그가 항상 단지 나를 통해, 나를 거쳐 찾을 수 있는 순수한 진리를 진실되게 구할지라도, 그 안에서 거절하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다. 누구든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은 그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면 그가 진리를 원하면, 진리가 그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나는 그의 심장을 통해 항상 말한다. 왜냐면 나는 진리를 원하는 사람을 절대 오류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의지로 평가한다. 가장 깊은 내면의 느낌.

너희 사람들이 스스로 의지의 방향을 정한다. 왜냐면 비록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의지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강요당할지라도 너희의 가장 깊은 생각과 의지는 어느 편에 의해 강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배울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게 만들 사랑의 계명을 이해하도록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너희가 외적으로 이런 사랑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지라도 이제 너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의지가 결정적이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하는 이런 의지로 단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을 행하려는 내적인 충동이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외적인 환경을 통해 사랑을 행하는 일에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생각과 의지가 사랑을 행하는 일로 향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단지 너희가 모든 자유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한 이런 선한 의지를 보고 평가할 것이다.

돕기 원하는 내적인 충동이 올바른 의지를 증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아직 묶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의지가 없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원래 대적자에게 향했던 너희의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동의 동기가 가장 크게 중요하다.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향했는 지가 인간의 행동의 동기를 증명한다. 왜냐면 내면에서 나온 선한 의지와 생각은 의지의 시험에 이미 통과했고 의지가 대적자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심장이 생각한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의지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또한 내면으로부터 사랑을 행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가 이제 행하는 일은 이런 사랑의 충동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뜻을 행하는 일에 방해받을 으면, 그럴지라도 이런 의지는 항상 하나님께 향한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고 그는 이런 의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가르침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 사람의 의지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의지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야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는 이제 사람의 자세이고 가르침을 활용하는 일이다. 즉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가르침을 따른 행하는 일이다. 이런 행동은 내면에서 동인이 돼야만 한다. 그러면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했지만 강제로 향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압력이나 약속을 통해 요구되는 사랑을 행하는 일은 내면의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완전히 무가치하게 될 수 있다. 즉 행함 자체가 아니라 의지가 인간이 이 땅에서 의지의 시험을 통과하는 일에 결정적이다.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정적이고 이를 유일하게 인간의 심장의 모든 생각과 모든 움직임은 아는 하나님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 향한 의지가 사람에게 그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붙잡힘을 받게 된다는 가장 확신할 보장을 해준다.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대적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대적자가 그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또한 자주 아직 위험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또한 자신을 그에게 계시한다. 이로써 사람이 항상 더 많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최고의 목표로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

아멘

내면의 음성.

B.D. No. 3199

1944년 7월 25일

심장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 음성은 너희를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사람의 의지가 종종 결단을 못한다. 그가 자신을 위해 사람의 의지를 차지하려는 여러 가지의 영의 세력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그는 주저해서는 안 되고, 의지에 한 방향을 줘야만 한다. 그는 그의 의지를 올바로 활용하도록 조언해주기 원하는 내면의 음성에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그가 전력으로 추구하면 할수록,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할수록, 내면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험을 받을 때, 이 음성이 그의 저항력을 강하게 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 단지 자신의 길을 가려는 위험에 있을 때, 항상 신실하게 알려준다.

그러나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무엇이 옳은 지 그른지 적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음성은 거의 들릴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자주 내면 음성이 침묵하게 만든다. 왜냐면 사람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세상에 소리로 인해 이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큰 위험에 빠지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세력의 속삭임에 더 큰 영향을 받게 할 것이고, 그의 행동도 그와 같이 된다.

선하게 살려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고, 인도받는다. 그의 생각은 인도받는다. 다시 말해 그의 의지의 자유는 침해받지 않지만, 그러나 생각이 붙잡을 수 있게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가 의도적으로 주어진 생각을 거절하지 않는 한, 이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만약에 그의 의지가 연약하다면, 영의 세력들은 그들의 생각을 전해주기 위해 두 배로 노력한다. 그는 단지 내면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조용하게 대화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는 생각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선명하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 내면을 바라보는 일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생각은 이곳, 저곳으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는 선을 향한 또는 악을 향한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너희 심장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면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선명하게 결단하고 행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결단하지 못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아주 좋은 공격 목표가 된다.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의 세력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험은 의지에게 동의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이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는 오랫동안 싸울 필요가 없고, 시험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왜냐면 그가 선한 세력에게 주위를 기울이고, 선한 세력의 조언을 따르면, 선한 세력이 그를 돕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힘이 증가된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빛의 존재에게 자기에게 힘을 줄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지가 없는 상태는 빛의 존재가

힘을 증가시켜주는 일을 막는다. 빛의 존재가 큰 사랑으로 사람의 혼을 위해 염려할지라도, 인간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능력을 주지 않는다. 그의 사역도 가장 먼저 자유 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법칙아래 있다. 단지 자유 의지로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면의 음성을 강요하는 일로 여길 수 없고,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내면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면의 음성은 아주 낮은 소리로 경고하는 경고자이고, 낮은 소리로 권면하는 권면자이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도움이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이다. 내면의 음성은 밀고 들어오지 않고, 누구든지 들으려는 사람에게만 들려진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올바르게 인도받고, 그는 인생을 염려없이 살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심장에서 나오는 음성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지 - 심장의 음성. 내면의 자극.

B.D. No. 4104

1947년 8월 13일

너희가 나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너희 심장의 느낌을 통해 알려준다. 너희가 기도하며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말할 때, 그리고 너희를 짓누르는 것을 또는 생각하는 것들을 나에게 아뢴 때, 너희는 심장 안에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재촉받는 느낌을 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 목전에서 올바른 것이 된다. 너희가 기도하며 너희를 나에게 의탁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죄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나의 보호를 요청할 때, 나는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면 너희는 침착하게 심장의 음성에 너희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너희 심장이 요구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오기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듯이 제공할 것이다.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는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줄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 혼에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없다면,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라, 영적인 일이든 세속적인 일이든 너희 어려움을 나에게 말하라. 나는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 심장 안에 나의 의지를 넣어줘, 너희가 올바른 것을 원할 것이고 또한 실행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심장 안으로 내가 넣어주는 나의 응답을 들을 것이고, 단지 심장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너희는 모든 내면의 자극이 항상 너희에게 영향을 미쳐,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력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어두움의 세력은 너희가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빛의 세력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빛의 세력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빛의 세력에 너희를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연합되길 원하고, 나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조언을 구하라.

나는 나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단지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구원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즉 영적인 추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세상적인 즐거움도 또한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의 조언자가 되길 원한다. 너희는 나에게 결정을 맡기고, 긴밀한 기도 가운데 너희 심장에 질문하라. 그러면 너희는 올바른 인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영이 촉구하는 일. 불만족.

B.D. No. 5766

1953년 9월 10일

너희가 실제 내 뜻을 성취하도록 내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내 뜻을 성취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왜냐면 강요가 너희의 혼에 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드리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나를 향한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이로써 너희는 단지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영원한 기본 원칙인 질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고, 너희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이 질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항상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자원하여 영의 촉구를 따르기 때문에, 너희는 영의 인도를 받게 하고, 따라서 너희는 내에 의해 인도되고, 진실로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단지 죄를 피하고, 불의를 혐오하는 일 이상의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너희는 내 영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인도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자극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너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면 비록 너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열심히 성취시키지 않고, 너희 혼이 부족함을 느끼고, 너희 혼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자신의 성장에 어떤 진전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모든 자기 불만은 혼이 억압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이다. 너희 사람들은 항상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추구해야 하고, 높이 성장하는 일을 촉진하는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너희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영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자극하고, 너희가 영의 제안을 따르면, 너희는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뜻을 성취시켰고, 이 일이 너희가 평안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내 뜻을 따르려는 너희의 의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약속한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라.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랑을 베풀려고 시도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려고 시도하라. 너희의 모든 삶을 사랑에 기초해서 세우려고 시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안의 내 영과 일치가 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단지 내 영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른 편에서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너희 안의 영이 주도권을 잡게 하라. 너희 자신을 완전히 내 의지에 복종시키고, 온전하기 되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운데 머물라. 그러면 너희 심장은 나와 너희 안의 내 임재를 알려주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내 임재를 의식하고, 나와 내 영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적인 말씀의 특징.

B.D. No. 5402

1952년 5월 29일

빛의 나라의 권세와 어두움의 나라의 권세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왜냐면 이 때가 이 땅의 종말의 때이기 때문이다. 모든 싸움의 목적인 영적인 존재들 때문에 이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어두움의 권세자는 자신의 권세에 관한 일임을 의식하고, 그에게 단지 짧은 시간 밖에 없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를 강하게 하기 위한 모든 일을 시도한다. 이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고, 어두움의 편에서는 권모와 술수로 싸운다. 그러므로 가면과 겉 모양에 자신을 마취시킨 많은 사람들이 패배할 것이다.

내 빛의 일꾼이 역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위험이 없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겉으로만 연결을 이루고, 내면으로는 아직 나로부터 떨어져 있고, 내가 그들과 분명하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탄도 빛의 옷으로 가장하여, 사탄을 깨닫기 어렵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들이 이에 세상적으로 대응하고, 그들은 내 대적자의 유혹과 꼬임에 자원하여 넘어가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빛은 실제 아주 행복하게 해준다. 왜냐면 빛은 위로부터, 내 나라로부터 오고, 빛의 비추임이 항상 어두움 가운데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자주 병행하여 역사하고, 같은 일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는 사람들이 빛을 구하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런 빛은 밝게 해주는 빛이 아니고, 단지 거짓 빛이고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면, 어떤 면에서 사라지고 마는 환상과 같다.

그렇지라도 사탄이 자주 사람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기 위해 빛의 옷으로 가장하는 일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그는 단지 사람들 의지가 그에게 기초를 제공하면, 그가 이제 닦을 내릴 수 있는 곳에서 가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긴밀한 사랑이 내 임재를 보장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가장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사랑 없음의 정도가 내 임재를 방해하고, 대적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곳에서는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에게 전적으로 모두 순복하는 일꾼은 이런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직 적게라도 세상적인 묶임 속에 있는 사람은 최대한 조심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탄은 내가 거하지 않는 곳으로 침입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임재가 확실한 곳에서는 그는 절대로 자리 잡을 수 없다.

내 대적자는 진리가 아닌 것과 오류와 거짓을 통해 사람의 영을 어둡게 하려고 시도하는 반면에 내가 역사하는 곳에서 나는 가장 순수한 진리의 빛을 주고, 모든 영적인 문제와 내 역사와 사역과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내 대적자에게 내면의 음성을 통해 대적자 자신을 알리는 한 가지가 주어지지 않다. 이제 주의를 기울이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해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상태 가운데 너희에게 감동을 주는 능력을 전하는 내면의 음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 말씀은 너희의 심장에 감동을 주고, 너희의 심장에 말한다. 그러므로 내 말씀은 단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추임을 인정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의 이성을 통해 즉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신 안에서 내가 그에게 알려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이성을 통해 이 느낌이 표현된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이 제외가 된 상태에서 사람의 입술이 한 세력의 인도를 받아 말할 수 있다. 이런 세력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사람의 귀를 사용한다. 실제 빛의 존재가 자신의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력과 연결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자신을 여는 곳에서 어두움의 세력들도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어떤 세력이 이제 자신을 차지하게 만들지는 사람의 의지가 결정적이고, 말하는 사람의 입술이 이런 세력에 의해 움직여 말하게 된다. 그러면 비록 선한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내용을 전해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이 내 뜻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말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다. 그러나 내 말은 내가 직접 비춰주는 것이고, 비록 빛의 존재를 통해 사람의 심장으로 전달될지라도 그러나 그의 육체의 귀가 그의 입술이 말하는 것을 듣는 방식이 아닌, 항상 영적인 귀가 내 말을 듣는, 그러므로 사람이 내 대화요청을 받고, 그가 내 말을 듣는 방식이다.

너희는 이를 이해하느냐? 내가 말하면, 영의 귀가 내 말을 듣고, 심장이 발설한 내 말을 영접한다. 그러나 존재가 사람을 통해 말하면, 사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즉 존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술이 마치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존재는 내 사명을 받아 말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을 통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 사람이 자신의 세상을 향한 생각 속에 머물거나 또는 그가 의지가 연약한 상태로 전적으로 영적인 역사에 자신을 맡기면, 그러므로 동시에 그의 상태가 매체의 상태가 되면, 다시 말해 그의 입술이 말하는 것을 그 자신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게 되면,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그는 단지 영적인 세력이 말하는 기계적인 통로가 된다. 그러면 항상 이로 인한 영적인 결과를 진리로 영접하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 오류가 아니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진지한 시험이 요구된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자신 안에서 나 자신의 일부분인 영을 통해 듣는다. 사람 안의 영이 자신을 표현하면, 그는 단지 사람의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는 느낌과 관련되어 있고, 사람이 심장 안에서 내 음성을 느낀다. 그러나 그가 이 음성을 이웃에게 들을 수 있게 전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내 말을 전달해주는 것이 내 뜻이면,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이성으로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성은 이제 느낌으로 받은 말을 붙잡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 낸다. 왜냐면 내 말은 능력의 발산이고, 사람의 혼에 감동을 주고, 이 능력은 내 의지에 의해 형체가 된 것이고, 이 형체가 너희에게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결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은 실제 내 음성을 듣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나를 부르는 내 모든 자녀들의 부름을 듣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답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경고하고, 권면한다. 나는 그들에게 내 도움을 보장하고, 그가 주의를 기울여 자신 안에 귀를 기울이면, 그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신이 즐겁게 듣기를 원하는 이 말을 자신 스스로가 한 것처럼 믿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위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면, 그 자신이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진리를 받아야만 한다. 전달받는 일은 내면의 음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람의 영적인 귀가 양육이 되어, 내가 그에게 이제 느낌을 통해 전하는 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듣고, 그의 육체의 귀가 듣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믿는 깊은 믿음 가운데 내 말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다시 말해 사랑의 능력의 흐름에 자신을 열고, 마치 발설한 말처럼 감동을 느끼고, 이제 심장이 이를 이성에 전달해, 이성이 영적인 말로 형성되도록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필요한 설명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받는 일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한다. 왜냐면 받는 사람이 내 손으로부터 영적인 내용을 받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그에게 나를 알려주고, 이런 일은 이웃이 어떤 특별한 일을 느낄 수 없게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유일한 내 사랑의 비추임의 증거는 내 성품을 증거하는 붙잡은 지혜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깨닫는 일은 어렵지 않게 되어야 한다. 왜냐면 내가 내 말씀을 이 땅으로 전해주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단지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그들에게 가장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로 계시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사랑만이 유일하게 내 사역과 역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계시한다면,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 영원한 구원계획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은 많은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내 말은 혼돈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어서는 안 되고, 흥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은 선명하고, 순수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므로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내 말씀은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비추임처럼 역사해야만 하고, 사람들의 심장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자신을 연다면, 반응을 얻게 되어야만 하고, 사람들이 내 음성을 듣는 것으로 느끼고, 이를 통해 가장 깊은 인상을 받게 되어야만 하고, 나 자신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깨닫게 되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B.D. No. 3381

1944년 12월 27일

내면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울린다. 그러나 단지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통해 자기 심장을 변화시켜 하나님 자신이 심장을 통해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사람에게만 울린다. 사람의 혼은 자신 안의 영의 불씨와 깊게 연합이 되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발산인 영의 불씨는 이런 사람에게 마치 사람이 서로 입술대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그의 내면에서 울려서 들린 음성을 오해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람의 심장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한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만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심장으로 느끼고, 그는 이 은혜로 인해 지극히 기뻐한다. 왜냐면 그에게 생기는 모든 의심들이 해결 받고 모든 질문들이 응답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신이나 질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은 단지 사람에게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진리라는 증거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준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그를 말할 수 없이 기쁘게 한다. 그러나 심장을 통해 듣는 음성은 아주 작고 세밀해서 이를 듣기 위해 최고로 주위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과 생각으로 긴밀히 연결이 돼야만 하고 들으려고 해야만 한다. 이제 그가 들을 수 있게 그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만 한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단지 그의 심장이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가능하다. 왜냐면 그에게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진실된 사랑이 있는 곳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안에서 들은 사람은 이 은혜의 선물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는 단지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구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그는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계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가 묻는 의심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축복된 하나님과 하나되는 일을 느낄 수 없다. 그럴지라도 그는 항상 계속하여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기 위해 긴밀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고, 그의 영원한 사랑이 자기에게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자녀의 심장을 통해 말하여 이 땅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땅에서 이미 아주 행복하게 돼야 한다.

아멘

환란의 때의 내면의 음성.

B.D. No. 3408

1945년 1월 17일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면, 너희는 환란의 때에 내면의 음성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자신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일을 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선물을 항상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준다. 왜냐면 그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그만이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위로와 강하게 되는 일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

너희는 항상 더욱 긴밀하게 너희 자신을 그에게 연결시킬 것이고, 그럴수록 그는 너희에게 자신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 표현되는 자신의 사랑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너희는 환란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환란이 너희를 비켜 지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가 극심한 위험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그는 너희를 검소하게 만들고, 인내심이 있게 만들어, 너희가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해주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가 그의 은혜를 받는 것만을 갈망하게 할 것이다. 그는 이런 갈망을 너희에게 성취시켜 줄 것이고, 너희의 영적인 귀를 세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는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영의 양식이 어떤 세상의 성취보다도 너희를 더 깊게 행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육체는 적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고, 육체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혼은 더 충만하게 돌봄을 받을 것이고, 절대로 굶주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상적인 위험이 너희에게 다가온다면, 이 위험은 너희를 더 이상 용기를 잃게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자신의 도움을 약속한 하나님께 이 위험을 너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느끼고, 그와 긴밀하게 단둘이 대화한다면, 환란의 기간이 너희에게 끔찍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 답변해줄 것이다. 너희는 심장 안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를 강하게 만들고, 확신을 갖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너희 내면에 있는 모든 염려와 위험이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가 절대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아버지의 격려하는 말처럼 너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고, 깊고 흔들리지 않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하게 만든, 사랑하는 아버지를 깨닫기 때문에 너희의 심장은 환호할 것이다. 너희의 영적인 성장이 육체가 고난과 부족함을 감당해야만 했던 모든 것을 잊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할 것이다. 혼이 영화 되면 될수록 육체는 더욱 무감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혼이 하나님을 느끼고, 혼이 갈망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한다면, 혼은 기뻐하며 환호할 것이다.

아멘

양심의 소리.

B.D. No. 1565

1940년 8월 13일

너희는 너희를 진실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인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 보다 더 올바르다는 증거를 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희는 자주 이 음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인도 받는다. 너희가 만약 무엇을 행할지, 무엇을 말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를 경우, 너희가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면, 나는 너희 모든 의심과 결정 짓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들이 사라지게 응답하여, 너희가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행할 것이다. 모든 잘못된 생각은 너희 안에 불편함을 주고, 모든 올바른 생각은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왜냐하면 너희 주변에 모든 선한 영들이 생각을 통해 너희에게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도록 알려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달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내면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 안에 내면의 만족감을 느낄 때도 있고, 반면에 너희 안의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영의 친구가 너희가 선한 행동을 유도하라는 촉구가 너희가 자주 이를 실행하는 근원이다. 왜냐하면 그가 선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선을 행하기에는 그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가 단지 자기의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는 올바르게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가 올바르게 행하길 원하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동시에 그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 귀속된 의지는 지속적으로 거짓된 것을 배척한다. 왜냐하면 이 의지가 선하고, 지식을 가진 세력을 끌어들이고, 이 세력이 진리에 합당하게 그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비록 반대되는 세력이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의지가 없이, 또는 무관심하게, 선한 세력이 또는 악한세력이 자신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모든 영적 영향을 단지 따를 때, 악한세력이 성공할 수 있다. 나중에 양심의 책망이 들리고, 내면의 평화가 그로부터 사라질지라도, 악한세력이 이런 사람을 쉽게 가지고 논다. 그가 이제 아직 양심의 소리와 내면의 평화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선한 영의 세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러한 심장 내면에서 오는 낮은 책망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이 소리가 다른 소리에 파묻히게 하고, 이로써 양심이 무디어지고,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는 혼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제 선한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일이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 자신의 힘이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양심의 소리를 통해 이런 연약함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그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자기 안의 양심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내면의 음성이 말하는 대로,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따르고, 그리고 영원하

신 하나님께 모든 질문을 하고, 음성을 통해 응답을 얻으려고 할 때, 그는 다른 길이 아닌 단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로만 가게 된다.

아멘

선과 악. 영원한 법칙.

B.D. No. 3901

1946년 10월 11일

악도 나의 허용을 받는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나의 뜻은 아니다. 왜냐면 악은 영원한 나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악은 나를 떠나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일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방향의 의지이고, 나에게 의해 창조된 원래의 상태와 전적으로 반대 상태이다. 그러나 선이나, 악을 추구하는 일은 나에게 의해 창조된 존재에게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존재가 온전하게 머물거나 또는 자유의지로 온전하게 되기 원하면, 선과 악은 존재해야만 한다.

영원한 나의 법칙에 저항하는 모든 것은 악이다. 나의 영원한 질서 안에 머무는 모든 것은 선이다. 그러나 존재가 모든 방향으로 향하는 자신의 갈망을 자신 안에서 느끼거나 또는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 나의 뜻이다. 모든 정욕을 자신의 심장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은 나의 작품이다. 그러나 내가 존재들을 이렇게 창조한 이유는 나의 지혜와 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왜냐면 내가 존재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하고,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자유의지로 선을 추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저항이 존재해야만 한다. 선하게 되기 위해 사람은 악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고 선하게 되거나 또는 자신이 동인이 되어 선하게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온전함은 순전히 나의 사랑의 작품이 되었을 것이고, 되었다 할지라도 최고의 정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이를 위해 그 전에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악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허용할지라도 악은 절대로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은 나의 신적인 질서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의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악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는 자유롭고, 자립적인, 스스로 원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고, 단지 나의 의지의 능력의 산물이고, 절대로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랑의 능력을 비춰줄 수 있는, 이로써 넘치게 축복해주기 원하는, 온전한 피조물을 만들기 원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유의지로 자신이 동인이 되어, 최고로 온전한 정도를 추구하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나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나의 의지는 선하고, 모든 영원까지 선하게 머문다. 나의 의지에 자유의지로 순복하는 사람은 선하고, 선하게 머물 것이다. 나의 뜻의 반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러나 악을 선호하고, 비록 그가 스스로 자신의 온전함을 빼앗을지라도, 나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그가 가장 깊고도 깊은 곳으로 타락할지라도, 나의 가까이에 거하는 일을 허용하는 온전한 단계에 다시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기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는 거부할 수 없게 자유의지로 다시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바로 이 때문에 그의 의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여,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행동을 절대로 선택할 수 없고, 절대로 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생성되어 나온 모든 것들이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과 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까지, 자유의지로 나를 찾을 때까지, 이제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써, 영원히 축복된,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때까지 선과 악은 존재할 것이다.

아멘

선과 악에 대한 느낌.

B.D. No. 7432

1959년 10월 19일

분 명하게 피해를 주는 일이나 큰 고난을 주는 이런 일들을 제외하고 사람이 단지 자신에게 나타나는 효과를 생각하면,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 자신을 분명하게 불쾌하게 만드는 것인지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 자신이 공격의 목표가 되거나 또는 이웃들의 선한 행동의 대상이 되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원하거나 또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올바르게 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조용하게 숨겨져 있는 그러나 그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게 그에게 사랑의 계명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한 이웃에 대한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의식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느낌을 통해 이웃이 자신에게 자신이 이웃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요구함을 안다. 즉 사랑으로 대하고 이웃이 소유한 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웃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도와줘야 한다. 왜냐면 그가 같은 환경에 처하면, 그도 같은 일에 대해 이웃에게 받는 같은 배려에 그리고 자신의 위험에 대한 이해에 대해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항상 단지 자신이 이웃의 입장에 서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는 모든 경우에 있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을 아직 지배하고 있는 자기 사랑의 정도를 정해야 한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의 눈 앞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라도 그러나 자기 사랑이 아주 강하여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자기 사랑을 극복하기 위해 아주 큰 강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가 이웃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그가 능력이 있으면서 이웃의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바로 그의 지식이 그가 행하지 않은 죄를 크게 만든다. 왜냐면 단지 아주 큰 그의 자기 사랑이 돕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사랑의 계명에 합당하게 돕는 일을 행해야 함을 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면, 이것이 어떠한지 안다. 그는 모든 도움에 감사할 것이다. 이처럼 그는

위험 가운데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비록 그에게 극복하는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이웃을 돕는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사랑으로 이웃에게 행하는 일은 희생이 클수록 더욱 사랑의 역사로 평가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한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느낌이 사람 안에 있으면, 그가 항상 이웃에 대한 자신의 불의를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의 이웃에 대한 죄악 된 행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는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 그러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길은 더 이상 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의 불씨가 놓여져 있고 사람의 의지가 선하면, 이 불씨는 쉽게 불 피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웃에 대한 모든 죄악 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이로써 이웃들을 모든 종류의 해를 입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원하면, 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면 그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위험 가운데 있는 이웃의 입장에 서보고 이제 이웃을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선과 악을 그리고 공의와 불의를 의식적으로 구별해야만 하고 하나는 대항해 싸워야 하고 다른 것은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길은 멀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자유의지. 선과 악을 깨달음. 사랑의 불씨.

B.D. No. 8639

1963년 10월 8일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혼으로써 육신의 형체 안에 거하는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것을 마지막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인생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항상 단지 선하게 생각하고 선한 것을 원해야 한다. 그들은 항상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생각과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사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모든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한 삶을 살거나 또는 악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강요받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선과 악의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조용한 경고자인 양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를 자신 안에서 행복하게 또는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웃들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그에게 똑같이 행하라.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왜냐하면 너 자신도 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만약에 그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안다. 만약에 그가 그러나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질서의 법칙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선과 악으로 느끼는 느낌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 앞에 절대로 이런 주장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모든 책임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의 삶의 방식은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다. 그는 선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단단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이웃에게는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스스로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항상 더 깊은 죄에 빠진다.

선과 악에 대한 의식적인 느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때 이 땅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지는 그러나 항상 단지 그의 자유의지이다. 자유의지에 대해 그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만약에 자기에게 스스로 불의를 행하면, 그는 이에 대해 반항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는 의와 불의를 안다. 그러나 대적자는 그의 느낌을 아주 무디게 해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대적자를 위한 눈먼 도구가 되게 한다.

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없이 모든 악한 행동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게 허용한다. 그러면 그가 아직 인간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혼은 모든 혼들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시도하는 원수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그는 이미 마귀가 된 것이다. 이런 혼들에게는 새롭게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운명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너희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완성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연약할 때에 의지할 곳을 구하고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할지 자신 안에 올바르게 공의하게 살려는 소원이 있는지 단지 그의 의지가 유일하게 결정적이다.

그러면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도움이 제공될 것이다. 이런 소원이 모든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영접하고 활용해야만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제공할 때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자신이 이를 결정한다. 사람이 특별하게 연약함과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이 땅에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생각은 잘못 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에 합당하게 은혜가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생활 형편 도달할 것이다. 만약에 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그의 자유의지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와 지혜의, 사랑의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모든 혼을 자신을 위해 얻기 위해 싸우고 그러므로 혼을 돕기 위한 어떤 수단도 시도하지 않고 놔두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혼이 대적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귀를 닫는다면, 이 혼은 대적자에 의해 아래로 끌려들어갈 것이다. 이 혼은 저항을 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에게 다시 전적으로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대적자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너희 사람들은 한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 불씨는 단지 불 피워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깊은 곳으로 타락할 위험이 사라진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을 할 의지가 있는지는 그의

자유이다. 그러나 이 자유가 이 땅의 삶의 성공에 그의 앞으로의 운명이 빛의 나라에서 행복과 축복이 될 수 있을지 또는 굳은 물질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갈지 결정적인 것이다.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원초부터 정하신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친척관계라는 느낌에 대한 설명. 혼의 입자.

B.D. No. 5207

1951년 9월 9일

사람들 사이에 자주 그들 스스로 설명할 수 없고, 혼이 구성된 데에 원인이 있는 비밀스러운 연결이 있다. 혼들은 자신과 아주 유사하게 구성된 혼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유사함이 사람들 가운데 친척과 같은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으로 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감정의 동요는 절대로 학문적으로 헤아려 볼 수 없는, 단지 나타나는 영적인 느낌이다. 그러므로 또한 단지 영적으로만 근원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모든 혼 안에 실제로 모든 창조물이 들어 있다. 그러나 창조물 자체가 서로 다른 작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에서든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혼도 그의 종류가 서로 아주 다양하다. 왜냐하면 혼의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서로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고, 이런 깨달을 수 있는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분명하게 유사한 점을 보여줄 이런 혼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혼의 형태와 종류는 단지 영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 스스로가 자신의 친척으로 느끼고 그러므로 또한 특별하게 서로 이끌리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육체적으로 연합이 되기 위한 욕망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분명하게 일치되는 일을 통해 조화롭게 영적인 영역을 함께 추구하면서 육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서로가 연결된 느낌을 갖는 가운데 혼이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혼들은 서로 간에 일치되고 싸우지 않고, 항상 서로 간의 도움 준비가 되어 있고, 서로가 같은 것을 느끼고, 이 전의 삶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같은 관계로 모여 하나가 된 혼의 입자들의 조화로운 상태이고, 이로써 연합된 적이 있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혼의 입자들이 같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에 속하여 같은 성장 과정을 같은 기간 동안에 거친 것이다. 이로써 서로 간의 추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성장과정이 또한 혼을 같이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혼들이 이제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이 발달된 이 땅의 삶에서 만나게 되면, 또한 그들 안에서 옛 기억의 첫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너무 연약하여 그들은 단지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추측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주 잘못된 설명을 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혼에게 이 전의 단계에 대한 기억은 지워진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느낌은 남고, 혼들의 같은 혼의 입자들이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형편 가운데 전체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의식하고, 이제 친척이라는 느낌이 깨어난다.

사람의 혼은 놀랍게 예술적으로 연합되어 있어, 귀한 악기처럼 셀 수 없게 많은 소리를 낼 수 있다. 조화롭게 함께 나는 소리는 마치 한 소리처럼 울리고, 이는 같은 성향을 가진 혼들이

저 세상에서 연결되기 전의 미리 맛보는 즐거움이다.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연합이 된 상태가 영의 나라의 축복에 속하는 것이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럴지라도 이는 육체의 체험이 아니라 단지 혼의 체험이다.

혼의 연결은 육체의 연결과 전적으로 다른 연결이고, 혼의 조화는 이 전의 성장 단계에서 인간으로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전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런 인식이 올바르다면, 이런 혼들이 조화롭게 느끼는 느낌은 전혀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설명은 항상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지라도 모든 혼들은 비록 모든 혼들이 개인으로 머물지라도 언젠가 자신의 반려자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혼은 이미 이 땅과는 다른 성장단계에 도달한 것이고, 혼은 또한 깊은 지식에 도달하게 되어 그들이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서로를 보완하는 혼들의 연합은 말할 수 없게 축복된 일이고 또한 혼에게 일할 수 있는 증가된 힘을 부여하고, 이로써 영의 나라에서 그들의 과제를 성취하고, 혼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끝이 없는 최고의 축복을 찾기 위해 항상 더욱 더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고 추구하게 된다.

아멘

인증. 내면의 삶.

B.D. No. 1573

1940년 8월 18일

영적인 해방의 시대의 끝없이 많은 질문들이 나올 것이다. 이 질문은 항상 아직 거의 연구되지 않은 영역인, 각 사람의 내면의 생활에 관한 것들이다. 모든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각기 다른 것은 분명하게 알려져 있고, 이제 왜 그런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전혀 깨달음이 없다. 사람들은 반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인간의 내적인 구성을 육체의 구성과 연관시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정한 인종별로 똑같이 느끼는 감정을 가져야만 한다고 여긴다. 즉 내면의 세계가 인종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관점이 모든 가능한 질문의 원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이론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인종학이다. 이런 인종학은 단지 인종이 외적인 모습과, 외모와 성품 특성의 종류를 설명할 때 옳은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인종이 특정한 외적인 특징을 나타낼 때에만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인종이 인간의 내면의 느낌의 세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결정적인 것은 영적인 연관성에 있다. 그러므로 서로 전혀 다른 인종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느낌에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제 사람의 인종이 내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이는 오류이다. 삶의 느낌은 혼에 근원을 두고 있고 각자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만약에 창조주가 인종별로 같은 삶의 느낌을 주었다면, 서로 다른 인종에 따라 똑 같은 성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모든 행동 방식을 인종에 근거를 뒤야 한다. 다시 말해 인종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의 내면의 삶을 구성을 미리 정해준 것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특정한 인종에 속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정해준 것

외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높게 성장해야 한다는데 의문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삶의 결과를 요구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자신의 인종에 따라 똑같이 자신을 만들라고 이 땅의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인종에 속해 있던지 간에 모두가 스스로 내면의 삶을 가꾸고, 스스로 영적으로 높이 성장해야 한다.

인간의 모든 외적인 것은 단지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므로 어떤 인종에 속한 사람의 모든 특성들은 그의 내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위하건, 반대하건, 상관없이 유지된다. 단지 세상적인 질문에만 생각들이 하나가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질문에는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그래서 특정한 인종에 속한 것에 따라 생각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다.

이로써 지금까지 적게 연구된, 여러 가지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았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형체가 거의 똑같다 할지라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내면의 삶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사람은 내면의 삶을 하나님의 의지에 맞게 형성시키기 위해 영적인 일에 매진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고유의 특징을 영적인 과제와 연관시킬 수 없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로 만들어, 하나님이 혼을 자신의 나라로 받아 주기를 원한다면, 그는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투쟁해야만 한다.

아멘

이전 단계의 성향이 성격을 정한다.

B.D. No. 1933a

1941년 5월 25일

인간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단계는 어느 정도 모든 걸형체의 단계에서 가졌던 영적인 존재의 상태에 합당하다. 존재들은 실제 항상 자신 안에 아직 최고로 강하게 남아있는 저항과 싸워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자신 안의 악한 충동과 싸워야만 한다. 존재가 이 전의 단계에서 광란할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이런 충동이 특별히 강하게 발전된다.

이런 이 전의 단계의 성향이 이제 존재에게 그의 특징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이제 이런 충동에 특별히 강하게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반면에 이 전에 자원하여 자신의 과제를 수행한, 결과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 정도에 도달한 사람은 쉬운 삶을 기뻐하게 된다. 존재가 아직 걸형체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섬기려는 의지에 합당하게 자유롭게 된다. 이런 저항하지 않는 존재는 이제 외적으로 이미 존재의 자원하는 성품을 보여주는 형체 안에서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걸 형체는 항상 사람이 걸 형체를 통해 그의 혼의 성장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같은 특성을 가진 혼의 입자들이 이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가운데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혼의 입자들이 연합하고, 이 전의 형체에서 했던 같은 방식으로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존재가 빠르게 부족함을 극복할수록, 더 적게 저항을 한다. 그러므로 이미 이 전의 단계에서 인내가 있고, 자원하고, 열심이 있게 될 수 있다. 존재가 이런 충동을 자신 안에 유지한다면, 존

재는 인간으로써 똑 같은 충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성격을 정한다.

아멘

유전. 성향. 부모.

B.D. No. 1933b

1941년 5월 29일

사람의 이 땅의 과정은 그의 성향에 합당하다. 다시 말해 그의 혼은 실수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혼은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실수와 부족함들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한다. 모든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혼의 입자들이 다른 형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어떠한 좋은 또는 나쁜 특성을 약하게 또는 강하게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성품이 전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 좋은 것을 지원해주고, 부족하거나 또는 악하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극복하도록, 서로 다른 양육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모든 혼들이 이 땅의 육신을 입을 때에 똑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영접하는 일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사람들의 성품이 서로 다른 것을 유전에 근거를 둔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짐을 져야만 하고, 실제 그들의 성품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들의 성품의 특징을 짊어 져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에 따르면, 자신의 죄가 없이 유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게 선천적인 실수와 싸우고 극복하는데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혼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실수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 안에 특별한 충동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부모의 성향이 사람의 성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인간으로 단계 이전의 끝없이 많은 육신을 입은 일이 자신의 특성이 되게 했고, 이 특성 가운데 존재가 행복하게 느끼고, 이러한 실수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명해져야 한다.

존재는 이제 이 땅에서 실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연약하다. 존재는 자신의 연약함을 좋은 권한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부족함을 자신의 책임이 없이 받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특성과 유사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하려는 일은 그의 자유의지이다.

바로 이러한 같은 존재가 육신을 입으려는 혼을 끌어드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돌보아야 하는 혼의 특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전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혼들이 스스로 위로 성장하기 위한 일을 해야만 한다. 이 일은 절대로 이웃사람이나, 육신의 부모가 대신해줄 수 없다. 자녀들이 부모의 유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들의 성향에 대한 책임이 없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육신의 부모의 보호 아래 맡겨져 있는 동안에, 사람에게 이런 사실

을 알려줘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완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가 한때 지은 죄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호감과 혐오감.

B.D. No. 8306

1962년 10월 22일

너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문에 대해 너희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빛을 받기를 갈망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이웃들과 교류할 때 어떠한 영의 흐름에 너희가 처하는지 이 흐름이 너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설명하기 원한다.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대적자의 사슬 아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묵임을 받고 단지 사랑의 정도가 결정하는 그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내 대적자의 영향을 받음을 그러므로 그들이 내 대적자의 크고 작은 영향 아래 있는 것이 그들의 성품을 통해 나타남을 너희는 알아야만 한다. 같은 성향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같은 성향을 가진 이웃들과 교제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거슬리지만 다시 말해 반감을 느끼지만 그들에게는 호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이런 설명은 가장 근접된 설명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만 한 설명이다.

그러나 만약에 혼이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하면, 혼이 더 많이 정화된 사람들도 있다. 이 혼들은 의무 상태에서 성장하는 그의 이전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자원해 모든 요구에 복종해 그들의 저항이 이미 많이 줄어들어서 높이 성장한 상태로 인간으로써 그들의 삶을 시작하고 그러므로 그에게서 많은 사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이웃에게 선하고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이웃들이 자주 가지고 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부드럽게 한다. 이로써 성숙한 사람이 호감을 주변에 발산하며 항상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를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저항을 받지 않게 되고 적게 성장한 사람에게 역사해 때때로 사랑의 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 사랑에 응답하려는 사랑을 깨어나게 한다. 이런 사랑의 사람에게는 단지 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대적할 것이고 그들에게 혐오감을 갖게 할 것이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장 정도에 알맞은 환경에 거하게 되고 이웃들이 이 환경을 느끼고 감지한다. 이 영역이 대적하는 존재들로 집중되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대적자의 영향 아래 있게 되고 그는 이미 자신의 성장을 많이 이룬 사람에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불가능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는 바와 느낌이 다른 이런 흐름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감과 혐오감은 단지 영적인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게 느끼는 자기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영역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은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단지 소수 사람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두고 아주 강한 인상을 준다. 이런 인상으로부터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러므로 그에게 의식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 육신을 입기 전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는 성격 특성의 정 반대 것이 마찬가지로 호감과 사람들 사이에 거부감을 정한다.

한 사람은 이미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 안에는 아직 크게 존재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내적인 거부감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 안에 이미 사랑이 강하게 되었다면, 그는 인내로 연약한 사람과 덕성이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견디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다. 왜냐면 한 사람의 사랑의 영역은 이웃들을 생기 있게 만드는 역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이 깨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악으로부터 구속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베풀다면 너희 사람들은 진실로 이 땅에서 너희 주변의 축복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피해서는 안 되고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공개적으로 대적하면, 그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그들을 통해 너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아직 바뀔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들과의 교제는 단지 해를 줄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너희가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너희 들로부터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 자신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너희는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나에게 구하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들의 흐름으로부터 적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너희 안의 영적인 것인 너희의 혼이 크거나 적게 이런 이웃들로부터 나오는 흐름으로부터 인상을 받는다.

영적인 존재 자신이 이미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했으면, 내 대적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적자는 자기에게 속한 자를 활용한다. 그러면 혼이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것이다. 왜냐면 혼은 원수로부터 구속받았고 대적자의 추종자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 자신이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 자신이 복종할 것이다. 그러면 진실로 불가능이 없는 사랑이 완성한 큰 역사가 성공한다. 왜냐면 사랑은 어떤 사람도 계속하여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아주 희귀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가능했으면 예수님이 높은 사랑의 정도가 요구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줄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과 사람들을 위한 자연의 아름다움의
목적....

B.D. No. 0396
1938년 5월 3일

너희는 때때로 우주의 생성에 대한 생각을 통해 너희가 불러드리는 존재들의 지배를 받는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땅의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세가 이 존재들에게 부여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너희 심장에 느낌을 넣어주고, 너희 주위에 자연이 특정 매력을 줄 때, 바로 이 느낌을 크게하고 활기 있게 한다. 너희 모두는 일년 중 매년 모든 것이 새롭게 발생하고 녹색이 되고 꽃이 피는 시기에 너희를 특별하게 사로잡는 행복한 감정을 안다. 선한 영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존재들과 이 땅의 자녀들을 연결시킨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신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잎, 모든 꽃, 모든 풀, 사람의 심장을 기쁘게 하는 자연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는 볼 수 있는 증거이다. 모든 창조하는 영의 존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기적이 이미 너희의 감정의 영역에 행복하게 하는 힘을 발산하는 곳에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에 더 가까워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한 것처럼 만약에 그가 이 모든 기적을 어떤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창조의 기적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설명받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다.

창조주가 역사하는 이 모든 명백한 증거가 아무런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의 강박한 심장은 해를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비로소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기본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 모두의 심장 안에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넣어 주었다. 너희가 너희 주변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 감각을 키울수록, 너희 안의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이 행복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영 존재들의 이런 명백한 역사에서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없다면, 너희가 수천 개의 기적으로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눈이 먼 상태로 살고,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다면, 너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는 일은 어렵게 될 것이다. 너희 주변의 모든 것을 생성시킨 영의 존재들은 너희를 향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목표는, 모든 높이 성장한 존재들처럼, 어두운 혼들을 위해 투쟁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혼들을 위해 사용하여, 사람이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자연의 현상을 통해 그가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질문이 제기되면, 서서히 깨닫는 일이 시작하고, 이 일은 영의 존재들의 활기 있게 지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행복하게 하는 역사를 하면서 돌보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으로부터 깨달음의 빛이 밝혀지고, 이제 깨우친 상태에서 이 땅에 존재를 영원을 위해 활용한다. 매년 일어나는 자연

의 소생하는 일을 통해 너희가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주님의 뜻이고 이로써 너희가 이 땅이 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의 눈 앞에 화려함을 보여주는지, 결론적으로 이 환경 속에서 인간의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다.

B.D. No. 3512

1945년 8월 13일

하나님의 조성하려는 의지가 창조물의 작품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작품을 생성했다. 그의 목표는 사람이 자신을 깨닫게 되고, 사람의 사랑을 얻고, 사람의 의지를 자신에게 돌리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과 지혜를 깨닫게 되면, 그는 또한 가장 높은 존재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는 그의 심장은 이 땅의 삶을 위해 그에게 갈망할 만하게 보이는 것들로 향한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소멸되는 것으로 향하면,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는 항상 무언가를 추구할 것이고, 그의 추구의 대상은 신적인 것이어야 하고, 어떤 온전한 영적인 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온전한 영이고,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하고,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전능함과 지혜를 증거하는 창조물을 사람들 눈 앞에서 생성되게 하면서 자신을 계시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사람은 모든 창조물에 그의 목적을 부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느껴야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탁월함에 경외심에 빠져야만 한다.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와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머물기 위해 창조주의 피조물으로써 자신을 창조주께 드린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심히 추구하는 원동력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다. 왜냐면 세상은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이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위대함과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 안에서 사람들에게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생성된 모든 것의 본래의 입자가 영적인 힘에 있기 때문이다. 즉 힘의 중심이고, 마를 수 없는 사랑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 자신의 발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자체이고,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물 안에서 임재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사람이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의 본질에 도달하면, 그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가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힘을 파악하는 정도의 깨달음에 도달했다면, 그는 더 이상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안에서 그의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의 깨달음이 끊임없이 성숙하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자신이 모르는 영역인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에 대해 알려는 진지한 의지를 가지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진리를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헤아려 보려고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해결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사람들이 자신과 접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받기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온전한 권리로 자신의 피조물들의 사랑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로 깨닫게 한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도록 강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자신에게 말하게 할지, 무관심하게 지나갈 지는 모든 사람의 자유이다.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따라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단지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작품 안에서 항상 사람들 가까이에 하나님은 거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들의 생각이 무한의 세계로 향해 질문을 하고, 영의 편에서 답변을 얻을 것이고,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 그의 결과는 가장 높고 온전한 존재에 다가 갈 수 있기 위해 온전해지려고 추구하는 일이다. 왜냐면 사람이 자신을 한때 하나님의 힘으로 생성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자신의 이 땅의 삶의 최종 목표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창조물. 사람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는 축복.

B.D. No. 3670

1946년 1월 28일

너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나의 권세와 힘과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은 또한 보이지 않는 창조물들을 생성시켰고, 영의 나라에서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장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 너희는 실제 내 사랑의 기적의 작품에 놀라게 될 것이고, 기적의 작품들이 너희의 눈을 기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나 자신을 힘과 사랑으로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힘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힘과 사랑이 모든 창조물의 근원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일하기 위해 그의 의지가 역사하게 하는 분을 단지 찬양할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적인 창조물을 상상할 수 없다. 영적인 창조물은 아주 영광스러운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창조물은 형상과 완성과 아름다움과 다양성의 전형이고, 보는 사람의 눈을 지치거나 지나쳐 실증 나게 하지 않는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항상 더 아름답게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고, 깊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인 나에게 감사하게 한다. 이 땅의 창조물도 때때로 인간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전능함과 사랑이 충만한 영원한 창조주를 대면하고 있다는 깨달음 가운데 심장이 기대에 부풀게 한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창조물도 단지 영적 창조물을 희미하게 반영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비교할 수 없다. 왜냐면 이 땅에서 나의 사랑을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아직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사랑이 된 혼들에게 나의 충만한 사랑을 줄 수 있고, 형성하는 사랑이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보여주고 줄 수 있다: "기록

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존재가 더 깊이 사랑할수록, 창조물은 항상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깊은 사랑이 그들이 나의 통치와 사역을 들여다보게 한다. 혼들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나 자신처럼 사랑이 되었다. 혼들 자신이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나의 뜻대로 나의 힘을 통해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기 위해 권세가 충만하고, 힘이 충만하게 된다.

영의 나라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을 이 땅의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왜냐면 완전히 다른 법이 다스리고 있고, 영의 역사는 물질적인 역사 및 이 땅의 일과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역사는 축복된 역사이고, 사랑으로 변화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의미한다. 존재가 개별적인 존재로써 이런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그러나 다른 존재와 연결을 이뤄 아주 행복하게 된다. 왜냐면 이를 통해 사랑과 힘이 증가되고, 그의 활동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가장 축복된 조화가 된 상태이다. 이 가운데 영의 세계의 거주자들이 거하고, 혼이 이 땅이나 영의 나라에서 이런 상태를 알게 되면, 혼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내가 모든 존재가 처하게 되기를 원하는 상태이다. 왜냐면 내가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그들이 나의 나라의 영광들을 보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의 사랑의 역사는 쉬지 않고, 내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나의 사랑은 무한하고, 주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피조물들을 영의 창조물 가운데 거할 수 있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의 피조물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영의 나라에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말할 수 없게 행복하기 위해 자유의지로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시켜야만 한다.

아멘

이 땅의 축복

이 땅에서 이미 얻는 축복.

B.D. No. 3761

1946년 5월 5일

나는 온 심장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갈망이 커지고, 나를 심장 안에 모신 사람들을 위해 이미 이 땅의 하늘나라를 준비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의 하늘나라를 약속한다면, 너희는 이를 이 땅의 재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단지 너희 심장의 행복과 내면의 평화와 내 안에 있는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 느낌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면 내가 주는 선물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종류이지만, 너희를 무한히 더 행복하게 만들고,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걱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세상이 더 이상 너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고, 너희는 동시에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밖에 있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이로써 너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그런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너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저세상의 행복한 삶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의 삶의 짐을 순복하며 짊어 진다. 왜냐면 이 짐이 너희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는 혼적으로 강하고, 큰 짐을 쉽게 짊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심장이 나를 향하면, 너희는 너희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의 혼인을 위해 추구하고, 너희는 또한 진지하게 목표를 추구할 것이고, 나에게 의해 절대로 힘이 없게 놔두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혼인이 나에게 축복이고, 나의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들의 목적이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혼인을 위해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이런 혼인이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이는 또한 당연히 축복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외적인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이런 일은 신체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 혼이 조화 가운데 평온함을 의미하고, 나와 연결이 된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얻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상과 모든 세상의 기쁨에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혼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순수한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가운데 살고, 혼의 최종 목표에 대해 알고, 이 땅의 삶을 단지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치는 과정으로 여기고, 나로부터 내가 또한 넘치게 주는 힘을 넘치게 받는다. 왜냐면 혼이 나에게 속하게 되었고,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내가 약속한 것처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혼을 돌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심장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의 이 땅의 운명이 그에게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의 혼은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나와 연합이 된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

아멘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일이 너희를 환호하고 기뻐하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내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진리가 너희가 나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너희에게 주는 선물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한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안전함 가운데 축복되게 된다. 그러나 이 진리의 빛이 어느 정도의 광채로 너희에게 제공되는 지는 즉 너희 각각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지는 각 개인이 스스로 이를 느껴야만 한다.

진리가 그를 가장 깊게 흔들 수 있고 진리는 또한 인간의 심장을 도달하는 단지 부드러운 빛을 발할 수 있다. 나 자신이 실제 모든 각각의 심장에 말하지만 그러나 내 음성은 모든 심장에 다르게 감동을 주고 사람의 나를 향해 발산되는 사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심장은 서로 다르게 감명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이 단지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고 순수한 진리를 받게 되면, 그는 항상 축복을 느낀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장이 나에게 열려 있거나 또는 아직 세상적인 인상에 사로 잡힐 수 있는 지에 따라 나에게서 나온 같은 말씀을 사람들이 아주 서로 다르게 느끼게 되고 아주 서로 다르게 평가하게 된다.

인간이 나와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기 위해 항상 외로움을 찾는다면, 그는 이 땅에서 이미 말할 수 없게 축복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큰 사랑의 힘으로 그에게 역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진리의 빛이 빛나는 빛을 발하고 혼에게 짐작하지 못한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사랑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왜냐면 세상은 항상 또 다시 개입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실제 사람들을 더 이상 지배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요구를 제시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성취시켜야만 하는 그의 의무를 가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세상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한다.

그러나 나를 추구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는 사람은 또한 항상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그는 세상을 잊을 정도로 깊고도 긴밀하게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또한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가 세상을 통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진리의 빛을 이미 그들의 삶의 내용으로 만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진다. 깨달음의 빛은 그가 한때 창조되었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증거이다. 왜냐면 그가 원래 초기에는 지식이 있었고 가장 밝은 빛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았고 그러므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제 다시 깨달음에 도달하면, 그는 다시 축복을 받아야만 하고 빛이 혼을 충만하게 채워야만 하고 또한 혼이 빛이 충만한 깨달음의 상태를 느끼게 돼야만 한다. 사람이 이를 어느 정도 깨달을지는 그의 사랑의 정도와 그가 심장 안의 나와 그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타오르게 하는 정도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므로 아직 사랑이 적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이 혼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사랑의 빛이 내면을 깨우쳐 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들을 때 축복되게 되는 사람과 내가 그에게 말할 때 나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이런 자신 안의 사랑의 불을 증가시키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빛이 다시 비추게 되고 밝게 해줄 것이고 그를 항상 더욱 축복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어두움을 극복한 것이고 자신이 빛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어두움 속으로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빛을 절대로 끌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영원한 빛 자신이 그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단지 사랑이 축복이다.

B.D. No. 8319

1962년 11월 3일

내 사랑을 누리지 못해야만 하는 상태가 내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상태이다. 그러나 존재 스스로 이런 상태를 만든다. 왜냐면 존재 자신이 나에게 저항해 나로부터 오는 모든 사랑의 빛에 자신을 닫을 때까지 제한이 없이 모든 존재에게 베풀어 주는 내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행한 상태가 시작되고 그가 다시 자유의지로 자신을 열고 내 사랑이 자신 안에 비추게 할 때까지 이런 상태에서 머물게 된다. 내 사랑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죽음의 상태이고 사랑이 없는 상태이고 가장 깊은 어두움의 상태이다. 나는 한때 내 사랑으로 창조한 피조물들을 불행한 상태에 나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한다.

내 사랑은 깊고도 깊은 곳까지 존재들을 뒤따라 갔다. 내 사랑은 이 존재가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내 도움으로 위로 성장해 다시 자신을 의식하게 될 때까지 존재가 이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기 위해 자유의지로 자신을 열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단지 너희 자신이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사랑을 거절했던 것처럼 자유의지로 너희 자신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을 이룰 때 내 편에서 사랑을 비추어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내 말을 통해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초기에는 너희는 사랑을 주고받는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한다. 왜냐면 너희의 자아가 아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이 아주 크게 발달되어 있다. 이 자기 사랑은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심어준 것이고 나로부터 타락한 이유이다. 자기 사랑은 실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축복된 상태를 만들어 주지 못한다. 왜냐면 자기 사랑은 신적인 근원이 아니고 내 대적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자기 사랑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베풀려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랑으로 바꾸면, 너희는 사랑을 행함의 축복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행함을 통해 영원한 사랑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연결은 거절할 수 없이 너희에게 축복을 줘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원래 초기처럼 너희에게 다시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축복을 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항상 단지 축복을 선물해주려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완성이 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항상 너희가 끝 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해야 한다. 최고로 높고 가장 온전한 존재의 사랑이 너희에게 향해 있고 너희가 그의 자녀가 되어 함을 생각해야 한다.

그는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의 그리고 자신의 축복을 위해 너희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하기를 원함을 너희는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모든 긴밀함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이런 의식을 너희 심장 안에서 강하게 느껴야 하고 이로 인해 이미 행복해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헌신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랑과 나와 연합이 주는 행복을 갈망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귀하는 보장이 된다. 왜냐면 사랑은 사랑이 갈망하는 것을 자기에게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최고로 온전한 사랑 자체인 존재로 깨닫고 배워야 한다. 너희가 내 성품을 알게 되면, 너희는 의식적으로 나와 연합이 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에 관한 지식을 항상 전해 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높은 곳으로부터 내 성품에 관한 큰 비밀을 알려 주기 위해 내 말을 전한다. 너희가 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내 대적자는 항상 나에 대한 관점을 흐리게 하려고 한다.

그는 나를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엄격한 심판관으로 저주하고 구속하지 않는 긍휼이 없는 존재로 묘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순수한 진리가 항상 또 다시 나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내 아주 큰 사랑은 내 피조물인 너희에게 다시 이 사랑을 비추어 주는 일이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언젠가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목표와 목적인 자유의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나와 격리되어 있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나와 연합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항상 도와서 나에게 귀환하는 길을 가게 하고 비록 너희에게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사랑에 기초를 둔 언젠가 확실하게 목표로 인도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확실하게 다시 영원한 사랑인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의식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축복이다.

B.D. No. 8659

1963년 10월 30일

나는 내 피조물들이 어떤 성장 정도에 있던지 간에 그들의 축복을 계속하여 높여 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을 영접할지 또는 거절할지는 성장 정도가 결정적이다. 내 사랑의 빛은 쉬지 않고 무한한 가운데로 비친다. 이 빛은 이미 온전하게 된 영적인 것 들에게 감동을 줄뿐 아니라 그의 축복을 크게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축복되지 못하는 존재들에게도 비추어 진다.

그러나 단지 저항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효과가 없다. 그럴지라도 이 저항이 아주 적게라도 줄어든다면 존재들은 그들이 그들의 저항이 전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견디어 내야만 하는 고통이나 사슬에서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이 빛을 통해 행복하게 되기 위해 항상

내 사랑의 힘이 강하게 흐르게 만들어 주는 높은 곳으로 항상 올라 갈 수 있기 위해 단지 자원해 내 사랑의 빛에 자신을 열기만 하면 되고 내 피조물들이 자신을 의식하는 것처럼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살면 또는 이미 저세상에 들어갔다면, 나와 연결을 이루었고 내 사랑의 빛이 비추임에 자유의지로 자신을 열은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신적인 빛이 그들에게 쬐야만 하는 축복을 느낄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내 피조물들이 다시 언젠가 축복된 상태에 도달하면, 그들에게 내 사랑을 중단하지 않고 그들의 축복된 상태를 줄어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되게 하면, 항상 단지 성장만 있을 수 있고 축복된 상태는 항상 단지 높아질 수밖에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식적인 연결이 내가 아주 다양한 방식의 수단으로 도달하기 원하는 것이다. 왜냐면 연결이 이루어 질 때까지 내 사랑이 존재들이 퇴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존재들은 항상 다시 퇴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강요를 할 수 없다. 나와 연결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의지의 행위이다. 이런 자유의지의 행위가 존재를 계속하여 증가하는 축복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는 영원한 시간 동안 불행한 상태에서 머무를 수도 있다. 존재들로 하여금 자신의 저항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이 빛은 항상 다시 또 다시 나로부터 비추어 질 것이다. 단지 계속하여 거절을 하면, 이런 비추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어떤 큰 책임 가운데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면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사는 너희는 너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너희 자신을 나와 계속하여 연결이 되어 있게 해주는 그러므로 계속하여 내 사랑의 힘의 비추임을 받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바뀌 나갈 수 있는 결정을 의식적으로 자유의지로 해야만 하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의지의 시험이 합격을 하면, 이는 나에게 귀환하는 길 가운데 있는 너희 존재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된다. 모든 각 사람의 이 땅의 운명은 그들이 이런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길 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 내가 또는 내 대적자가 자신에 대해 승리하게 할지를 그 혼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내 대적자도 강요할 수 없고 둘 다 모두 사람에게 단지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가 이제 자신의 상태를 불행하게 남게 할지 또는 축복되게 만들지 결정함을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이 땅의 삶의 큰 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능력을 구할 때 비로소 너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자신을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너희는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할 것이다.

나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 이미 나와 연결이다. 너희가 대적자에 대항해 승리하기 위해 너희는 단지 이 연결을 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나에게 능력을 구하면, 나는 진실로 너희를 능력이 없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의 흐름에 너희 자신을 열 것이고 너희는 가장 힘든 의지의 시험에 합격한다. 너희가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나와 연결을 한번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위를 향해 전진하고 절대로 더 이상 퇴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단지 심장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반면에 단지 말하는 것 만으로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럴지라도 나는 항상 다시 너희를 감동시키려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 육신이 죽는 날까지 나는 내 대적자와 너희 영혼을 얻기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물을 거치는 끝 없이 긴 불행했던 이 땅의 과정이 헛되지 않게 나는 항상 다시 너희에게 사랑의 빛의 불씨를 이 땅에 비추어 줄 것이다. 그리고 저세상에 있는 내 피조물인 너희를 위해 너희가 나에게 대한 저항을 포기하고 자유의지로 너희 심장을 나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 비추어 줄 것이다.

모든 개개인의 존재는 모든 개개인의 혼은 이 들에게 내가 내 사랑으로 다시 비추어 줄 수 있으면, 나에게서는 아주 큰 유익이다. 땅을 거치는 한번의 과정을 통해 이를 수 없는 일을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확실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어떤 혼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 사랑으로 혼들의 뒤를 따라 동행한다. 이 혼은 언젠가 확실하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

B.D. No. 8784

1964년 3월 19일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빛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성장 정도에 이미 도달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 모두는 언젠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전적으로 영을 잃어버리고 저세상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빛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닫히게 되면,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 긍휼과 은혜가 비록 모든 혼에게 임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악한 삶을 살았다면, 나는 내 공의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지 고려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혼은 항상 단지 영의 나라에서 그의 이 땅의 삶에 합당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의 죄짐을 속죄하기 위해 측량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만 하게 된다.

그들이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게 되고 그들은 항상 더 깊게 타락해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운 파문을 받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원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모든 구속사역의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바로 너희에게 영적인 위험을 준다. 나는 내 피조물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그들의 혼에게 전혀 다른 운명을 보장해 주는 십자가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 사람이 죽기 전에 죄사함을 받는 일은 전 인생을 거쳐서 가장 추구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 그런 혼에게는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고 혼은 축복을 넘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류는 구속사역의 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 내 대적자는 사람들이 이에 관해 알지 못하게 계속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인간 예수가 한때 이 땅에서 살았고 사람들에게 최고로 온전한 삶의 모범을 보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요청했다는 일을 믿을지라

도 그들은 높은 영적인 사명이 인간 예수가 이 땅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역사가 최고의 공훈의 역사였다는 것과 예수가 큰 죄를 용서해주려고 했고 넘치는 큰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의 역사로 단지 상쇄할 수 없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해줬고 이를 통해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의 넓은 간격을 연결시켰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된 역사는 하내 신비로운 역사로서 단지 영이 깨어난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최악 된 상태로 인해 이런 역사를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 먼저 예수의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영을 통해 예수와 깊이 연결 된 가운데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안의 영으로부터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모든 영적인 연관 관계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그가 나에게 대적하며 거절함으로 한때 잃었던 깨달음에 다시 도달할 수 있다. 그는 이런 모든 연관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자신의 영을 통해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사람에게 이런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의 구속사역과 내가 그 안에서 인간이 된 역사를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그에게 확신을 주고 그가 같은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

그가 전에 깨어난 사람을 통해 단지 듣기만 했던 내영을 항상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순수한 진리가 전파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악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통해 초청 받는 것을 느끼고 진리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 이로써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사람들이 저세상에 들어 갈 때 너희의 운명을 얼마나 더 낮게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너희는 왜 내가 항상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왜 내가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영적인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너희의 이성을 자극해 이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단지 아주 작은 의지만으로도 이미 나에게 충분해 내가 너희를 인도해 너희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죄로부터 구속받는 일에 대한 지식은 단지 내 영의 역사로 너희에게 전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내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최고로 중요한 이런 지식을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예수 자신을 이 땅의 삶을 통해 최고로 온전함에 도달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실제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 문제가 예수가 없이는 인류가 영원히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로부터 떨어져서 머물게 되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가 없이

는 혼들이 저세상에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원죄의 짐이 그를 누르는 기간 동안로 바닥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저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찾고 빛의 존재들의 노력에 순응해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그들의 죄짐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할 예수에게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할 때까지 그들은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받을 만한 상태로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가 자신의 긍휼의 역사인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원죄로부터 구속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비록 함께 속한 근거이긴 하지만 인간 예수의 이 땅의 삶의 근거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영의 어두움 가운데 흑암의 권세자로부터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내용은 사랑의 가르침이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살고 있고 그들은 자신이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고 단지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그들의 자기 사랑이 최악으로 인도해 죄를 짓게 했다. 이런 죄의 죄값은 저세상에서 비록 고통스러운 영원한 시간이 흐를지라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죄가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고 한때 나를 떠났던 어떤 사람도 비록 그가 영원에 영원까지 불행한 가운데 보낼지라도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원죄 때문이었다.

이 원죄가 바로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원인이다. 왜냐면 사랑이 스스로 죄를 사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영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가장 큰 신비스러운 것을 설명해주려고 한다. 나는 마지막 때의 내 제자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너희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자신을 그 안에 모신 세상의 구세주이고 나와 하나가 되었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아멘

은혜. 영적으로 보는 일. 행복한 상태.

B.D. No. 1585

1940년 8월 27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역사하게 하고, 자신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이 땅의 무거움이 그로부터 사라지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같다. 혼이 육체의 사슬을 벗어나, 위로부터 온 영의 선물을 영접한다. 혼은 영의 나라를 본다. 혼은 다른 세상에서 산다. 혼이 받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내용이다. 이는 혼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혼의 영적인 행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사람이 이 은혜를 갈망한다면, 그는 이 땅의 삶의 절벽을 극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로 세상의 기쁨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귀한 선물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한번 빛의 나라를 보았다면, 그는 절대로 더 이상 빛의 나라와 거리를 두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의 이 땅의 삶은 세상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이 그에게 자신의 갈망을 남김없이 성취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모든 고난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천 배로 보상해주고, 세상이 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가장 귀한 선물을 추구한다. 추구하기 위해 그들의 혼이 영광을 의식하며 느낄 수 있는 성장정도에 도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아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혼은 영적인 영광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가 혼에게 분명하게 열릴 수 있다. 아직 혼을 감싸고 있는 굳은 겉 형제가 혼이 영의 나라를 보는 것을 막기 때문에 혼은 영의 나라를 적게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겉 형제로부터 이미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 가장 세심한 느낌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단지 이런 행복한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은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혼이 모든 물질을 통과하여 단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 혼에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비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혼은 가장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혼을 양육하여 혼의 영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가운데 지식을 가진 심장을 갖게 될 것이다. 의식적으로 영의 나라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인지, 너희 자신이 모든 형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너희를 위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하고, 이 영광을 모든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물해주시기를 원하는, 너희의 창조주를 향한 불타오르는 가장 깊은 사랑을 가지고, 빛나는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간 후에, 너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빛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머무는 일은 존재에게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다. 억압적이고 부담스러운 모든 일은 그에게서 제거되고, 성숙하지 못한 영의 존재의 어떤 공격에도 노출되지 않고, 존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림자나 어두운 상태가 없고, 기쁨과 조화와 가장 밝은 빛이 어디에나 있다. 비록 존재가 아직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았더라도, 긴밀한 사랑과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존재를 채운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는 이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존재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할 수 있다.

존재는 자신의 더 높은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계속 공급받는 일이 필요하다. 빛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계속 전달하는 힘의 전달장소이다. 이를 통해 빛의 존재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게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이 땅의 인간은 빛의 존재의 활동이나, 힘을 요구하는 존재에게 힘의 전달하는 과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축복된 영원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하나의 환상이고, 그는 이런 환성을 버리기를 원하고, 이를 실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적인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측정한다. 그는 이 땅의 밖에서는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저세상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땅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창조물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민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빛의 나라를 대략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은 이미 아주 많은 성장을 해야만 한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진실된 묘사를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단지 희구하게 이런 새로운 지식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영역은 항상 단지 영원의 영광으로만 묘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광이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영원한 영광은 존재를 최고의 행복하다고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영광이 실제로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천상의 축복"과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항상 그런 말의 진실성에 대한 진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 스스로 빛과 힘의 운반자가 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전에는, 그들이 빛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일은, 빛의 나라를 향한 통찰을 갖도록 허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지와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의 거처가 되어야 할 그런 영역을 이해하는 일이 훨씬 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내면을 빛이 있게 하고, 밝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세계. 낙원의 상태.

B.D. No. 1812

1941년 2월 15일

육신의 죽음은 이 땅 위의 삶의 종료이고, 영원한 가운데 사는 삶의 시작이다. 두가지의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가 있다. 과거에 속한 것이며, 자체가 쇠하는 것인,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써 물질로 된 세계가 있다. 반면에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지 않은 저 세상은 단지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최종적으로 극복할 때까지 생각으로 떠돌아다니는 세계이다. 육체는 세상적인 즉 물질적인 창조물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겉 형체를 벗을 때, 혼은 그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다면, 물질적인 창조물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영의 나라로 간다. 이 세계는 소원의 세계이다. 모든 혼이 자기가 갈망하는 곳에 거한다. 혼이 낙원에 거하기 원하면, 영원 가운데 삶은 낙원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혼은 마찬가지로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태는 낙원과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욕망이 이런 상태를 물리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영역에서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과거의 속한 것으로 여기며, 그 대신에 단지 영적인 재물을 추구한다. 영적인 재물은 우선적으로 능력의 흐름이다. 영원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 능력의 흐름을 드러나게 느끼고, 영적인 재물을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깨닫고, 영적인 재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만질 수 없고, 신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단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에테르 같은 입자로 되어있고, 단지 느낌으로 깨달을 수 있다. 각 존재들의 사랑의 정도가 이제 혼이 새롭게 거할 영역을 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베풀기를 자원한다면, 혼이 받기 때문이다. 이제 받고, 주는 일이 존재에게 행복한 일이다. 그는 더 이상 만질 수 있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단지 삶의 느낌에서 나타나는 귀한 것을 갈망한다. 영원 가운데서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받아, 나누는 것이다. 오직 영적인 것만 갈망하여 받고, 그의 삶의 느낌은 상상할 수 없게 깊이 발전된다. 그러므로 행복이 항상 더 커질 수 있다. 즉 정체상태나 후퇴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원한 화려함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다.

아멘

빛의 나라에서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 인간의 눈으로 본적인 없는 나라.

B.D. No. 4291

1948년 5월 2일

너희 혼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는 나의 임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갈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갈망이 성취되는 일이 축복이다. 너희는 항상 나를 향한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의 연합을 간절히 갈망할 것이다. 너희의 갈망이 성취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너희는 나의 임재를 축복되게 하는 힘으로 느끼게 되고, 내적인 충동으로써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해주려는 증가된 추진력으로 느끼게 된다. 너희가 이제 나눠줄 수 있도록 나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재물을 너희에게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86/152

제공하고, 너희를 가장 깊은 지식으로 인도한다. 이로써 너희가 항상 계속되는 행복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이런 상태가 너희에게 모든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제공한다. 너희는 이 땅에서 절대로 보거나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는 축복되게 될 것이다.

사랑이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끊임없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단지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온전한 상태에서 이 땅의 재물은 더 이상 너희를 자극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재물에 대한 욕망은 불충분한 혼의 성숙한 상태의 표시이고, 절대로 빛의 상태에 도달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항상 충족시키려는 갈망을 갖게 될 것이고, 내 사랑이 항상 너희의 갈망을 충족시켜줄 것이다.

이 땅에서 자신을 형성하여, 너희가 단지 영적 재물을 갈망하게 되라. 모든 물질을 극복하고, 단지 영적인 선물을 얻으려고 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축복된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세상 것을 극복하면,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의 임재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고, 또한 나의 임재와 함께 힘이 너희에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힘을 행복으로 느끼게 될 것이고, 이 힘이 너희가 계속하여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이끌 것이다. 베풀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올바른 사랑이다. 베풀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 이웃 사랑의 정도를 정한다. 그러므로 비록 사람의 갈망이 단지 순수하게 물질로 향할지라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려는 갈망을 단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은 나에게 인도하지 않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다.

나는 너희가 단지 나를 목표로 삼고, 이로써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통해 표현된 사랑이 힘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원한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너희를 빛의 존재의 축복된 상태와 유사하게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갈망하고 성취되는 일이 단지 나 자신이 너희의 사랑과 갈망의 대상인 영의 나라에서처럼 절대로 축복되지 않을 것이다.

(1948년 5월 2일) 너희는 이제 내가 왜 끊임없이 너희의 사랑을 구하는지 이해하느냐? 왜 내가 너희를 영원을 위해 얻기를 원하겠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땅의 운명을 개선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영원히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빛의 존재로서 나의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놀라운 형상을 가진 창조물을 만들고, 영광스러운 것을 만드는 일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한이 없이 나의 권세와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 먼저 나와와의 연합을 이루는 일이 필요하다.

나는 나의 힘을 사용하여 너희를 축복되게 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제한이 없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가 나처럼 너희의 뜻대로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또한 내 뜻이다. 너희의 의지를 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일이 나와와의 연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너희가 너희 의지를 나에게 종속시켰다면, 너희는 항상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강요받는 상태에서 일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강요받는 상태에서 일하는 일은 축복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온전함을 부족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빛의 나라의 모든 존재는 내 뜻으로 충만해 있다. 그

럴지라도 모든 존재는 자신의 뜻대로 활동하고, 모든 존재는 나의 임재 안에 거하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영원 가운데 삶을 특정화하고, 각각의 존재가 하는 일을 깨닫는 일은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이를 상상하는 일은 인간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는 이 땅과 세상과 다른 세상이고, 그러므로 이 땅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혼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 비로소 사람은 보고, 영적인 느낌을 받아들이고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이 육체를 떠나,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혼은 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영광들 때문에 놀란다. 그러면 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아멘

의식적인 혼에 대한 작업.

B.D. No. 6730

1957년 1월 7일

나는 너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교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할 처소를 찾기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속했던 것처럼 원래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된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가꾼다면, 내가 비로소 너희 심장 안에 거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단지 가장 순수하게 깨끗하고 어떤 흠도 없는 곳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더러운 것과 흠은 내 임재를 가능하게 하려면, 너희가 전적으로 몰아내야만 할 내 대적자의 요소이고 내가 임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의 과제는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너희 심장을 단지 가꾸는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 너희 의지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너희 심장 안에 내 임재를 막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행하려는 나를 향한 열망이 필요하다. 나와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것 만으로도 나는 이미 그를 아주 높게 평가한다. 이런 의지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너희가 충분한 힘을 받게 하고 너희가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너희를 바꾸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만 할지 알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아직 많은 실수와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너희는 모든 죄악과 정욕들을 내 임재를 방해하는 것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물리치려고 하고 고귀하지 못한 것을 고귀한 것으로 바꾸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혼에 대한 작업을 할 것이다. 왜냐면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려는 목표가 너희를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의 불을 이미 지펴야만 한다. 이 사랑이 너희를 나에게 이끌고 이런 사랑이 너희가 실제 내 뜻에 합당하지 않고 신적이지 못한 것으로 깨달은 너희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모든 사람은 내가 그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바꾸는 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 안에서 어떤 부족한 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절대로 그의 심장으로 나를 영접할 수 없다. 왜냐면 그에게 큰 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그에게 내 대적자가 그 안에 굳게 심어놓은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깊은 겸손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나에게 힘과 도움과 긍휼을 구한다. 나는 그를 돕고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긍휼로 그를 나에게 인도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비천함과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유지한다. 그러나 그는 나 없이 산다. 왜냐면 그가 나를 가까이에서 느끼면, 그의 거만함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면 내가 그에게 가까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 대적자

의 특징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를 통해 그는 나를 배척한다. 그에게 겸손이 부족하고 겸손은 내가 유일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의 흐름을 부어주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너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함과 실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심장에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하나가 되기 원하고 스스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면, 의식적으로 너희 혼에 대해 작업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에게 다가오려는 의지와 나를 위해 자신을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면, 나는 나에게 충분해서 너희가 너희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완성할 수 있게 충분한 힘과 은혜를 너희에게 제공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나에게 돌아오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하는 일.

B.D. No. 7895

1961년 5월 19일

나는 너희 심장 안에서 거하기 원한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기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내 임재를 사모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내가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기 원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모든 욕망으로부터 모든 허물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다.

왜냐면 사랑이 너희 심장을 치장하고 이로써 심장이 내 사랑과 내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나 자신에게 거처가 되고 거처로 머물기 때문이다. 이제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계속하여 긴밀하게 너희와 교제하는 가운데 너희는 내 임재를 체험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으면, 너희는 진실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에게 다시 귀환했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으면, 그러면 너희의 모든 생각과 추구하는 일이 단지 영을 향한다.

그러면 너희 생각은 자주 나에게 머물 것이다. 너희는 나와 단 둘만의 대화를 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더 이상 절대로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고 항상 너희의 아버지의 임재를 의식할 것이고 이로써 내적인 평안과 행복을 이미 이 땅에서 느낄 것이다. 왜냐면 세상적인 짐과 염려가 너희를 더 이상 짓 누르지 않고 너희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임재하고 너희 안에 거하는 진실로 신실하게 너희를 위해 돌볼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조정함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거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자신을 형성시키면서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에게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라.

너희 심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라. 너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라. 왜냐면 영원한 사랑은 단지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단지 내 원래의 성분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언제든지 들을 것이다. 그러면 한때 내가 내 피조물들에게 말씀 안에서 나를 계시한 것처럼 피조물들이 항상

내 비추임을 받고 묘사할 수 없게 축복 되었던 것처럼 자녀는 아버지와 교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너희의 사랑의 정도가 내 임재가 너희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너희의 축복의 정도를 정할 것이다.

너희 안에서 내 말이 들리면, 너희는 내 임재의 증거를 받는다. 그러면 이 음성이 항상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너희를 자극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 안의 아버지로부터 단지 다시 사랑이고 사랑을 깨어나게 하고 깊게 해주는 귀한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

너희는 내 사랑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이웃들이 사랑의 삶을 살게 자극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돕기를 원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 안에 내 임재에 대한 갈망이 깨어나게 해야 하고 그들이 이 땅의 사랑의 해하게 자극해야 한다.

너희는 진실로 내가 기뻐하는 사랑의 역사를 행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말하기 원한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으로 바꾸면, 너희가 이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고 축복되게 되면, 내가 내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멘

심장 안으로 주님을 모시는 행복.

B.D. No. 1062

1939년 8월 19일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사람을 기뻐하며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의 심장이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내가 이제 그 안에 살 수 있고, 나와 함께 심장이 말할 수 없는 행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행복은 이 땅의 행복과는 아주 다르다. 나를 심장 안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 나의 임재 외에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너무 긴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갈망은 성취가 된다. 나는 나의 자녀가 나를 찾게 하고, 단지 자녀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자녀가 나를 찾고 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항상 자신을 선물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나를 찾은 이 땅의 자녀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고, 자녀를 나의 심장으로 영접하고, 나의 사랑으로 먹고 마시게 한다.

그러나 나는 심장 안에 다른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을 향한 모든 소원이 그런 소원을 가진 심장 안에 내가 머무르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상과 나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상극이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확실히 수많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재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와 긴밀한 관계를 결코 만들어줄 수 없고, 그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주 반대되는 두 개념이 결코 일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과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가 주는 행복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없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받게 되면,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시 경멸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자녀를 긴밀한 사랑으로 감싼다. 자녀는 이 사랑을 더 이상

육체가 아닌 영으로 느끼고, 그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 모든 힘을 드려 영원한 아버지께 속하게 된다.

그는 빛을 보았고,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이 한번 깨닫고, 영원한 신성이 사랑이 충만하게 접근하는 것을 느끼면, 다시 말해 하늘의 기쁨을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한 모든 갈망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자녀에게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 공허하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 자녀가 항상 단지 구세주와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를 심장 안에 모시고, 세상의 기쁨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미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 영원한 빛.

B.D. No. 7099

1958년 4월 21일

너희는 모든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빛을 선물해주기 원하고 내가 너희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자원해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하게 해주기 원함을 알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육신을 입은 초기에 인간으로써 깨달음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지식이 전달되어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성취시키기에 불가능한 일을 너희에게 요구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작은 지식이 전해진다. 그러나 그가 지식을 영접할지는 그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왜냐면 단지 특정한 선행조건을 성취시키면, 더 높은 깨달음이 그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이미 성취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미 이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이 밝아지면 밝아 질수록 그의 깨달음이 더 증가될수록 그는 빛이 나 자신과 내 임재를 증명하기 때문에 빛을 피하는 내 대적자의 영역인 어두움으로부터 더욱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 말씀의 형태로 빛이 전해지면, 너희는 먼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임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면 내 임재에 대한 확신이 너희 모든 성품을 지배할 것이다. 너희는 내적인 평안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무기력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안전하다는 보호감을 느낄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어떤 일이 닥치던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내 대적자가 중간 사람들을 통해 너희를 공격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너희 자신이 아직 한 동안 너희 안에 혼의 싸움을 일으키는 욕망이나 연약함에 빠질지라도 너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임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다시 내적인 평안을 줄 것이다. 내 임재는 너희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에 저항할 힘을 줄 것이다. 내 영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 너희가 받는 빛이 너희에게 아주 분명하게 계시해주는 영원한 빛임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너희는 진실로 이런 내 임재의 증거를 통해 너희를 아주 행복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너희는 어쩔줄 몰라하는 시간을 체험할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를 위한 그리고 너희 자신이 구하는 도움에 대한 내 지속적인 사랑의 돌봄을 의심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 임재가 너희에게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는 너희가 항상 내 보호 아래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임재를 아주 적게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새롭게 너희 곁에서 너희 안에서 내 역사를 체험한다. 이런 체험은 단지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너희는 내 임재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단지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기를 원하고 의식적으로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이런 깨달음에서 나와 이제 신뢰 가운데 교체하고 더 이상 따로 떨어진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이 너희에게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너희는 평안을 발산할 것이다. 태연함과 항상 도우려는 자세가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변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오류에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런 축복된 확신이 너희 안에서 우러나오게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기 때문이다. 나와 분리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다시 나에게 속한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를 묶어 두었던 세력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러므로 내 임재를 통해 가능한 내 사랑의 볼 수 있는 증거를 체험한 너희는 내 임재를 의식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머무는 일이 쉬울 것이다. 내가 단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내 임재가 없이 너희는 절대로 내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내 일부분이고 내 일부분으로 머물게 될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절대로 역사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말을 통해 너희에게보다 더 분명하게 내 임재를 약속해줄 수 있느냐? 너희 안이 빛이 되면, 너희가 깨달음에 도달하면, 이는 항상 너희와 내가 연결됐다는 증거이다. 이 연결은 너희가 실제 스스로 이뤄야만 한다. 그러나 이 연결은 아주 확실해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가장 신뢰할 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내 임재를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으라. 너희는 얼마나 너희의 이 땅의 길이 이제 쉬워지는지 스스로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단지 나에게 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정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내 임재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도움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깨달음의 정도에 이미 도달하게 해주지 않으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빛이 너희 혼을 밝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사랑을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은 빛이 밝혀진 사람은 사람의 심장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기까지 이 빛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나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에게 임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영원한 빛 자신이기 때문이다. 빛이 있는 곳에 절대적으로 나 자신이 있어야만 한다. 내가 있는 곳에 염려와 고난이 있을 이유가 없다. 왜냐면 내 임재를 믿는 믿음이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선하게 너희 혼이 구원을 받게 조절한다는 가장 확실한 보장을 너희에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한번 내 사랑과 은혜를 의식하게 된 사람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의식이 그를 나와 분리될 수 없게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 의식이 어두운 나라의 모든 끔찍함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가 항상 더욱 영원한 빛으로 깨달은 나에게 향하게 재촉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과 은혜를 의식하는 일은 나와 가장 깊게 연결을 이루었다는 증거이다.

이런 사람에게 내 사랑의 흐름이 감동을 주어 그가 내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내가 함께 함을 알고 그는 이제 내가 함께한다는 의식을 절대로 더 이상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이 말을 생각할 수 있고 축복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이런 축복된 느낌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고 내 사랑이 너희를 더 이상 놓아주지 않기 위해 붙잡을 때 너희는 비로소 이 말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일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나는 단지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너희 안에 사랑이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게 하면, 비로소 너희는 내가 임재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웃을 향한 자신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진실로 천국의 방식으로 너희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비교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어떠한 엄청난 축복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내가 없이 살았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의식하며 행복하지 못했던 모든 날들을 헛되이 보낸 날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태연함과 의젓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지 이해할 것이고 고난과 질병이 그들을 특별하게 짓누르지 않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그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전적으로 잃게 만들고 그들의 고난의 정도를 단지 높이는 일들에 대해 표면적으로 태연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내 사랑의 태양을 사람의 심장 안에 비추어 이 빛 안에서 모든 것이 정화되어 사람을 더 이상 놀라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모든 심장을 채우기 때문에 그는 단지 나를 바라보고 그의 눈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 이는 단지 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가 보는 것이 그의 모든 느낌과 생각과 의지를 채우고 정하는 혼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현상이다. 너희 사람들은 사랑의 삶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축복된 느낌과 모든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일과 행복하게 해주는 빛이 이런 사랑의 삶이 주는 결과임을 그러므로 사랑의 상태 가운데 단지 진정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을 통해 나 자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항상 내 임재를 증명해주는 이런 나와 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항상 단지 확인해줄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한번 단지 내 임재를 의식하며 기뻐하면, 너희는 더 이상 혼자 이 땅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로 깨달은 그의 사랑으로 너희를 생성되게 한 분을 너희가 더 이상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나에게 귀환은 이뤄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된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된 것이고 영원히 내 자녀로 남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임재.

B.D. No. 7446

1959년 11월 4일

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축복될 수 없다. 이를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말해줘야 한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속한 무리에 속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약한 믿음과 무능력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이다. 그는 이 영으로 전적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안에 내가 임재할 수 있었다. 내 사랑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채웠다. 그러므로 그 안에 나 자신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먼저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임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 안에 임재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존재가 너희가 사랑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에 알맞은 이로써 내 임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체험의 연속으로 이뤄진다. 왜냐면 너희는 계속하여 사랑을 행하게 자극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계속하여 사랑을 행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이 항상 더욱 비취질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연결될 것이다. 나는 능력과 빛으로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와 나 사이의 이런 관계가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수 없다. 단지 사랑 안에서 너희 믿음은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자신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왜냐면 너희는 모든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이 사랑을 너희에게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살면, 너희는 영원한 사랑인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진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자주 느낄 수 없는지 생각하라. 비록 내 사랑이 항상 너희를 향해 있을지라도 내 사랑이 역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만약에 너희 스스로 사랑에 응답을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뜨거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이로써 내가 느낄 수 있게 임재할 수 있게 나에게 허용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하라.

내가 내 사랑을 너희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사랑의 역사가 부족하면, 단지 너희가 스스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사랑을 행하게 내면으로부터 역사하고 사랑을 행함을 통해 너희는 나를 너희 가까이로 이끌 것이고 육신을 입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임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내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너희는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 너희는 내적으로 너희가 나와 연결이 된 것을 느낄 것이다. 너희에게 내 임재가 더 이상 의심스럽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긴밀 함으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믿음은 굳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내적인 독촉은 하나님의 조언이다. 의지의 복종.

B.D. No. 3308

1944년 10월 27일

하나님은 너희 심장을 통해 너희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알려준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의 인도에 너희 자신을 맡길 때, 어떤 계획에 너희가 재촉받는 것을 느끼고, 내면으로부터 너희가 이끌리면, 이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인도한다. 왜냐면 너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너희 심장의 움직임을 따라 행하면 된다. 이런 일은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어떤 권세에게 너희를 인도할 권리를 위임하는지,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

긴밀한 기도가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전에 구하지 않고 행하는 일은, 단지 육신의 안락함만을 위한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떠나 있는 너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 대적자의 인도이고, 이런 일들은 너희의 혼에 해를 끼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 행할 염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영적인 세력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영적인 세력에게 자신 옆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즉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없고, 단지 혼에 유익한 일을 실행할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이 그를 인도하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은 중요하고, 목표로 인도한다. 그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하지만, 그의 의지가 이런 저런 행동을 하게 하지만, 사람이 내면의 재촉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의 의지를 통해 표현된 것이다. 그가 이런 재촉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그가 저항한 것이고, 결심하지 못한 것이고, 그의 의지는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이런 상태를 조심해야 하고, 이런 상태는 기도를 게을리 함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연결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가리켜 주는 길을 보고,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이 심장을 통해 그에게 알려주는 조언을 더욱 자원하여 따른다.

하나님과 멀어진 간격이 단지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세밀한 느낌을 빼앗는다. 왜냐면 그럴 때 그는 자신 혼자 있게 되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그만두어야 할지 불안해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의 생각에 역사하여, 모든 행동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게 하고, 그를 마음대로 지배하기 위해, 이런 상태를 이용한다. 이때 그는 싸워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하나님과 연결은 그에게 선명한 생각을 하게 해주어,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시킨 사람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어떤 일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게 인도받고, 모든 일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라.

B.D. No. 5632

1953년 3월 21일

너희 자신을 제물로 주님께 바치고, 의지가 없이 그의 손에 너희 자신을 맡기라. 주님의 의지가 너희의 의지가 되기를 원하라. 너희 안에 더 이상 어떤 저항도 느끼지 않기를 원하라. 너희가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라. 이런 전적인 헌신이 너희가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올바른 의지를 갖고, 올바르게 행하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너희 안에 가장 작은 저항이라도 있으면, 너희는 또한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왜냐면 바로 이런 저항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면, 이런 일은 가장 큰 승리의 역사이다. 이런 의지는 사람들의 사랑이 더 활발해질수록 항상 더 실행하기가 쉬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은 이미 영원한 사랑의 품에 안기는 일이고, 그와 하나가 되어 동시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린다. 그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는 항상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갖지 않게 된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고, 사랑을 통해 영적인 연합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가장 확실한 느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할 생각을 해야만 하고,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항상 너희를 정해야 하고, 너희 심장은 부드럽고 관대해야 하고, 너희는 심장으로부터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너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모든 이웃을 너희의 형제로 여겨야 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비통함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일이 너희의 변화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일에 유용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의 주변에서 악한 일은 너희를 통해 선하게 돼야 하고, 너희의 사랑은 너희가 너희의 적에 대항하는 무기가 돼야 한다. 너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한 사랑과의 너희의 유대가 점점 더 굳어지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너희의 뜻이 되고, 그러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의 저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너희의 주님으로,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너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게 된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전적으로 소유하게 한 것이다.

아멘

너희 모든 사람이 나로부터 능력을 얻기 원하면, 나에게 헌신해야만 할 것이다. 그의 헌신하는 정도가 이제 그에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능력의 정도를 정한다. 너희의 나와 의 원래의 관계가 나로부터 너희에게 계속하여 능력이 흘러가는 일을 보장한다. 너희는 너희 모든 존재를 채운 사랑을 통해 나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항상 너희에게 발산되었고 이로써 이 사랑이 너희를 능력과 빛으로 충만하게 했고 그러므로 너희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내 편에서는 전혀 어떤 변화도 없었다. 다시 말해 전처럼 나는 마찬가지로 내 사랑을 너희에게 비취줄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성품을 바꿨다.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을 능력이 없게 되었고 너희는 나에게 저항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힘은 효능을 잃었다. 너희가 저항을 포기하면, 내 사랑이 너희에게 다시 역사할 것이다. 저항을 포기하는 일은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나에게 다시 헌신하는 일이다.

너희의 나에 대한 헌신은 내 뜻 아래 전적으로 복종하는 일이다. 너희는 자유의지를 받고 창조되었다. 이 자유의지가 너희를 한때 타락하게 했다. 이 자유의지가 다시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이 자유의지가 이제 너희의 생각과 소원과 행동을 정한다.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자립적인 피조물로 느끼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땅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자주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다스리기에 자신의 능력이 충만한 것으로 느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나로부터 생명의 능력의 형태로 이 능력을 선물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이 생명의 능력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원하는 일과 생각하는 일이 한 분에게 향해 있으면, 너희가 한 분에게 복종하면, 너희의 상태에서 너희가 전적으로 모두 내 인도를 신뢰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원하고 생각하게 허용하면, 한 분이 너희에게 제한이 없게 이 능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전적으로 모두 내 인도를 신뢰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너희의 이 땅에 존재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이다. 너희 이웃이 너희가 너희의 세상적인 의무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 나를 향해 긴밀한 헌신을 드리면, 나는 너희에게 내 천사를 통해 내 빛의 존재를 통해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함을 보장한다.

너희의 긴밀한 헌신은 내 뜻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위해 일하게 될 천사와 빛의 존재들에게 너희와 이 땅의 너희의 일을 넘겨줄 권리를 나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가 한때 가졌던 나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회복시키면, 어떤 것도 너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너희를 짓눌러서는 안 되고 너희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를 단지 나에게 드려야 한다.

왜냐면 나에게 대항하는 아주 작은 저항도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복종해야 할 자신의 의지를 이미 다시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든 종류의 소원과 욕망으로부터 너희 자

신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하면, 너희의 생각이 단지 나에게 향해 있고 너희의 영적인 완성과 나와 내 나라를 위해 너희가 섬기는 일을 향해 있으면, 나를 향해 헌신한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세상 욕망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다시 너희 자신의 생각대로 너희의 인생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 동안에는 너희의 의지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의지는 전적으로 모두 내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모든 능력을 그에게 부여할 수 없다. 그는 삶의 능력 줄어들면서 능력의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짧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를 전적으로 나를 위해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이미 어떠한 성장 정도에 도달하였는지 너희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느끼는지 또는 전적으로 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됐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너희가 한번 내 능력의 흐름을 체험하면, 너희가 내가 가까이 임재를 느껴 모든 연약함이 너희로부터 사라지고 너희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끼면, 전적으로 내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헌신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볼 수 있게 내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 인해 나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영원히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향한 전적인 헌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동안에는 내 사랑은 아직 뒤로 물러서 있어야만 한다.

아멘

혼을 영화시키는 일. 물질을 극복하는 일.

B.D. No. 3414

1945년 1월 22일

너희가 너희의 혼을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면, 너희가 세상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혼이 더 이상 세상을 갈망하지 않을 때,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영의 나라의 세계로 향하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 너희가 성장하는 일이 또한 혼이 이 땅의 삶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사람이 물질로부터 더 많이 분리가 될수록,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없앨수록, 혼이 더 많이 더 많이 영화가 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는 신체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순종해야만 하고, 이 땅의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묶여 있고, 하나님이 그를 영의 나라로 부를 때까지 이 땅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세상적인 삶과 함께 두번째 삶을 살 수 있다. 혼의 삶은 육체의 삶에 전혀 참여할 필요가 없고 혼은 육체와 같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혼은 육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육체의 갈망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혼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혼이 영의 나라로 향할 수 있다. 그러면 육체는 실제 이 땅의 과제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육체는 더 이상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곧 혼의 갈망에 동참하고, 이 땅의 의무가 그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이 이제 모든 물질적인 재물을 무시하고, 영의 나라를 자신의 노력의 목표로 설정하는 정도에 이르면, 그는 또한 세상편에서 주는 강한 유혹에 준비가 되어 있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세상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그를 세상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때때로 단지 쉬운 싸움을 견뎌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가 항상 극복하게 될 단지 유혹들이다. 왜냐면 그의 혼이 추구하는 영의 나라의 세력들이 그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고, 영의 나라의 세력들이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그를 이끌고, 끊임없이 그의 혼에게 영향을 미쳐, 혼이 저항할 힘을 자신 안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물질세계에 대한 포기가 클수록 영의 나라에서 전해지는 힘이 더 강해진다. 이런 힘의 유입은 혼뿐만 아니라 육체에게도 유익하다. 왜냐면 육체가 이제 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과제는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다. 인간은 또한 이 땅의 활동을 통해 혼의 성숙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세상의 목표를 무시하고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단지 이웃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베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로써 항상 더욱 영적의 나라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실제 사명을 성취하고, 물질을 극복하고 자신을 영화시킨다. 혼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육체가 혼의 갈망을 더 따르게 한다. 혼

은 육체를 영의 나라로 끌어 들이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위해 주어진 목표를 진지하게 추구한다. 혼은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로써 혼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된다.

아멘

내면으로 향함. 세상과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진리의 성공.

B.D. No. 3968

1947년 2월 5일

사람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는 진리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간다. 진리의 제 공자로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또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질문도 알고, 이 질문에 대답한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가 단지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로서 너희에게 말하게 하면, 다시 말해 너희를 항상 바르게 가르치는 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 사람들이 너희 지식을 증가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안에서 답변을 찾아야만 하고, 이 답변이 외부에서 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온전한 진리를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하라: 너희는 나를 섬기기 원하느냐? 혹은 세상을 섬기기 원하느냐?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원하느냐? 혹은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느냐? 너희의 의지가 유일하게 너희 행위와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을 정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단지 나와 연합하려는 깊은 소원을 가지고, 나를 구하고,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세상에서 전적으로 물러날 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고, 또한 세상의 일도 해야 하는, 세상을 등한시할 수도 없는 너희를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항상 사람들 사이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와 깊은 관계성을 이루겠느냐?

단지 너희 의지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행할 수 있는, 외적 영향을 적게 내부로 받아드릴 수록, 더욱 더 깊어지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 가는 일을 통해, 고독 속으로 들어 감을 통해 할 수 있다. (1947년 2월 4일)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요구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영원한 순수한 영으로써, 비록 물질이 나로부터 나온 능력이 묶여 있는 것이고, 나와 항상 어느 정도 떨어져 존재하지만, 물질밖에 있기 때문이다. 나를 구하고, 찾으려는 사람은, 먼저 물질로부터 자신의 의지를 돌이켜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나를 찾을 것이고, 물질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일은 저절로 이뤄진다. 왜냐면 육체의 눈을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을 멀리하고, 눈을 감고, 물질적 영상들을 더 이상 받아드리지 않기 때문이고, 물질적인 영상들은 혼 안에서 다시 재현되어, 조용한 관찰과 영과 하나가 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영과 물질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며 항상 서로 반대로 남을 것이다.

나 자신이 순수한 영으로 너희 안에 역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내적으로 물질과 결별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눈과 생각이 외적인 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나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1947년 2월 5일) 나는 너희가 유일하게 나의 임재를 갈망하기 원하고, 너희 심장 안에 임재 외에는 어떤 것도 차지해서는 안되고, 나와 나의 임재를 위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생각이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물질은 나를 대적하는 심판 중에 있는 영적인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인간적 관습들도 가능한한 피하기 원한다. 왜냐면 인간적 관습이 내적인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적 관습이 생각 없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또는 기계처럼 수행된다면, 이는 마찬가지로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은 먼저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야만 한다. 영적이지 않은 것이고, 세상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사람의 감각을 통해, 영접하는 것이고, 혼이 혼안의 영과 하나가 되는 일을 방해하는, 혼을 가두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그는, 나 자신이 나의 사랑과 은혜로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나의 뜻대로, 나와 대화할 수 있다. 나는 진실로 조용하고, 깊은 경배가 가장 좋다. 이 경배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를 본질적인 일인, 순수하게 영적인 나와 연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만 하는, 외적인 의식과 동작들로 대치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보고, 진실로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외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면, 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받는 양을 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외적인 의식으로, 인간적인 관습으로 잘못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 심장에, 나 외에 다른 생각이 아직 자리를 잡을 경우, 나의 사랑과 은혜의 흐름을 스스로 줄임으로, 너희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

너희는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다가와야 한다. 그러면 나의 기뻐하는 눈으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신이 이런 깊은 연결의 축복을 느낄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이런 축복 속에서 도 너희는 깊이 겸손하게 머무를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 심장 안에 거하는, 너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를 너희가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 겸손이 은혜의 정도를 높여줄 것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이를 극복하는 일.

B.D. No. 7215

1958년 11월 25일

세상의 기쁨이 너희를 자극하면, 이에 대적하라. 그리고 이런 자극은 너희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자극적인 것들을 눈앞에 두고 너희가 이미 평안을 찾은 영적인 영역에서 너희를 빼내려는 내 대적자의 유혹임을 생각하라. 너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 너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영향은 아주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커서 이 유혹이 너희가 대적할 수 없게 와서 너희가 이 자극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항상 너희가 영적인 나라와의 관계를 느슨하게 할 때 일어나고 이런 일은 비록 그가 선한 의지를 가졌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한동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세상이 너희를 자극하기 시작할 때 위험이 눈앞에 있고 너희들 단지 타락하게 하려는 자의 가까이에 처하게 되는 것에 주의하게 한다.

세상적인 유혹은 보기에는 해가 되어 보이지 않아 너희가 쉽게 이런 말로 인해 너희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이는 단지 해가 되지 않는 즐거움이며 너희의 영적인 안위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 초기에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심각한 위험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해가 되지 않는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한번 양보하고 따라가면, 유혹은 계속하여 커지게 되고 그는 자신을 속이게 된다.

좁은 길에서 수많은 자극적인 것이 제공되므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적은 넓은 길로 가는 이 한걸음은 마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눈길을 처음부터 길이 갈라져 나가서 넓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곳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길은 퇴보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눈길을 길가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아무도 이 길이 퇴보하는 길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적은 수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좁은 길은 아주 적은 자극이 있고 위를 향해 인도한다. 사람들이 그의 눈 길을 위를 향할 때 그는 자극이 없는 것과 어려움과 평탄하지 않은 길을 느끼지 못하고 도움을 주려는 인도자를 통해 이것들을 통과해 버린다. 그래서 진정으로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성장의 길을 완주한다.

게다가 그들의 인생의 길에서 즐기거나 또는 어려워하는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니다. 모든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은 이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거절할 수 없이 다가가고 있는 저세상의 삶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너희가 너희의 개념으로 높은 나이에 도달할지라도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단지 짧다. 영원이 너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이 단지 눈 깜짝할 사이임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너희는 너희의 혼을 위해 단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는 작은 포기를 해야만 한다. 모든 영원의 기간이 너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선물할 것이다.

너희 혼의 원수인 내 대적자는 이를 안다. 그래서 그는 너희를 유혹하면서 이를 방해하려고 한다. 너희가 그의 의지를 따르거나 그의 유혹에 대항하지 않으면, 이 때문에 그는 너희를 다시 영원동안 불행하게 만든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요구가 강한 곳에서는 그의 유혹하는 기술이 통한다. 그는 성공하고 혼들을 만약에 혼들이 이미 영적인 길에 들어 섰다면, 영적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긴박하게 경고한다. 세상과 세상의 기쁨으로 너희를 마취시키지 말라. 세상과 세상의 기쁨은 자신을 위해 너희를 얻으려는 내 대적자의 수단임을 너희 자신에게 알게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내 나라에서 오는 것들과 기쁨은 아주 다른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너희의 육체에게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가치는 너희가 영계에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를 소유한 것으로 인해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과 가치없는 기쁨을 위하다가 이러 귀한 것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넘치고 행복해 할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 너의 삶 가운데 세상 기쁨이 적을지라도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럴수록 너희가 나중에 실제 나라에 이르렀을 때 부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는 너희에게 단지 그림자와 같은 재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쇠하지 않는 복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고 이 기쁨은 너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다. 왜냐면 이 기쁨은 내 자녀를 영원히 기쁘게 하려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아멘

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고난 또는 사랑.

B.D. No. 7157

1958년 7월 1일

너희는 혼이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자주 짐으로 여기고 불편한 것으로 느낀다. 이는 자주 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돕기 위한 수단이고 혼이 순수하게 되고 빛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아주 효과가 있는 너희 사람들에게 적게 고통을 주는 수단이 있다. 이 수단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그러면 혼이 아주 빠르게 성장한다. 혼은 항상 더 많은 능력을 얻는다. 혼은 사랑을 통해 정화되고 혼의 성품은 변화 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이 부족하다. 너희는 아직 너희 안에 많은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 고난이나 질병, 염려나 위험의 다른 수단을 통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일들은 너희에게 부담을 주고 너희가 항상 이런 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너희의 모든 믿음을 요구한다. 왜냐면 너희는 깊은 믿음으로 너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나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어려움들을 나에게 넘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부터 이 어려움들을 넘겨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깊은 믿음은 다시 비로소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이로써 항상 사랑이 가장 긴급한 일로 남는다. 사랑은 제외될 수 없다. 모든 종류의 염려로부터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진정하고 가장 안전한 수단은 사랑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인내하며 너희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것을 짊어지면, 너희가 모든 것을 복종하며 너희 혼의 성장을 위해 견디면, 너희 혼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면 어떤 혼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내 사랑의 빛이 이제 방해받지 않고 충만하게 비취 줄 수 있게 수정과 같이 선명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혼이 크거나 작게 순수하지 못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혼이 이런 불순물들을 이 땅에서 버릴 수 있을수록 혼은 더욱 행복하게 저세상으로 가고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땅의 시험의 기간을 준 것에 대해 비록 시험기간이 어려웠을지라도 감사한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모든 날이 단지 검증하는 기회이다. 매일이 혼에게는 영적인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이다. 매일 매일이 지나 간다. 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항상 짧아진다. 이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혼의 상태는 이 상태가 아주 부족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이 견뎌야만 하는 모든 고난을 항상 단지 너희 혼을 정화하는 수단으로 너희 혼에 아직 붙어 있는 모든 연약함과 실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면, 너희는 진실로 고난을 축복하고 이 고난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왜냐면 이 고난이 너희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고 너희는 언젠가 너희의 이 땅의 삶에 왜 이 고난이 필요하였는지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매일 매일을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올라가야만 하는 완성을 위해 단계 단계 성장해 나가는 계단으로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가 어떤 것도 견뎌야만 하는 일이 없는 날이 이 날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로 가득한 날이 아니라면, 얼마나 소용없는 날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고난의 양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사랑이 행해졌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었다면, 이로써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혼의 성장을 지원했으면, 진실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처량함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면, 너희는 이 고난에 대해 감사하고 그럴지라도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단지 짧지만 그러나 모든 영원을 위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아멘

질병과 고난의 축복. 성숙하게 되는 일.

B.D. No. 5194

1951년 8월 23일

사람들의 몸이 쇠퇴하는 일이 자주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경고이다. 왜냐면 몸이 아직 너무 세상을 향해 있고, 혼을 위협하게 하기 때문이다. 몸이 언젠가 자연적으로 끝이 날 수 있다고, 이를 의식하는 가운데 몸이 이 땅을 위해 전혀 합당하지 않게 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언젠가는 깨닫게 돼야만 한다. 인간이 자신이 동인이 되어 자신의 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주 경고와 훈계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고통과 질병과 신체적인 능력의 상실은 혼을 성장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돼야만 한다. 왜냐면 그런 수단이 사람의 생각을 현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영적 죽음에 빠질 위험에 처한 혼을 위한 치료제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수단들이 항상 그들의 목적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그러면 완고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는 신적이고 영적인 일에서 완전히 돌아 서고, 인간은 자신의 몸이 당한 질병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도 의미가 없는 일은 없고, 몸의 질병이 자주 혼을 치유하고 그러면 몸의 질병이 축복이 된다. 왜냐면 사람이 세상에서 공핍을 경험해야만 하고, 영의 세계에서 대용품을 찾아 발견한 후에 세상을 경시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가 이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깨달은 재물에 대한 보상으로 귀한 재물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운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그의 혼을 위해 주어졌고, 그에게 실제 어렵게 보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이 운명에 그가 순종하면서 견디는 일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적은 믿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는 단지 이길 수 있고, 절대로 패배하지 않게 되고 또한 후회하지 않게 된다. 왜냐면 그가 언젠가 육체의 죽음 후에 거처가 될 나라와 무관한 건강과 체력이 넘치는 사람보

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혼이 이 땅을 떠날 때 가진 성숙한 정도가 유일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성장 정도를 증가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비록 인간에게 깨달음이 없는 동안에는 인간이 이를 행복하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사용한다. 언젠가 그는 고통과 질병의 축복을 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 성공적인 수단을 사용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병든 몸은 병든 혼만큼 나쁘지 않다. 혼이 치유되려면, 혼이 견디게 될 때까지, 혼이 하늘을 향하고 세상을 단지 일시적으로 시험보는 학교로 여기는 법을 배울 때까지 몸이 병을 견뎌야만 한다. 혼은 언젠가 어려움이 없이 방해받지 않고 높은 영의 영역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몸이 고통을 받게 한 은혜에 대해 창조주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아멘

인내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

B.D. No. 6149

1954년 12월 30일

모든 사람에게 그의 혼의 성장을 돕기 위해 십자가가 주어졌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이 십자가가 너희를 지나치게 짓누르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짐은 너희의 자유의지에 합당하고 너희 자신이 내 뜻을 따르거나 또는 저항하면서 이 짐을 스스로 더 무겁게 또는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인내하면서 진다면, 너희에게 십자가의 짐이 항상 가벼워지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십자가의 짐에 저항한다면, 이 짐은 너희를 더욱 무겁게 짓누를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려는 의지가 이 짐을 더 이상 고통으로 느끼지 않게 해줄 때까지 혼에게 짊어지도록 내가 부여한 작은 십자가를 내가 보내준 것으로 깨닫고 이에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질때까지 이 땅에서 너희 혼을 위한 십자가의 길은 필요하다.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의 성장을 위해 너희 혼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임하는 일을 순종하며 짊어지라. 이런 일이 너희에게 다가와야만 한다. 왜냐면 때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고 너희 혼의 완성을 위해 단지 짧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너희 십자가를 순종하는 가운데 지라. 왜냐면 십자가는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긴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게 의탁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너희 자신이 너희의 짐을 줄일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오게 하는 짐은 너희가 이 짐 때문에 기절할 정도로 어려운 짐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그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를 지려는 의지가 그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게 생각되는지를 정한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는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들의 혼의 성장이 아주 뒤쳐져 있다. 그러나 혼의 성장이 그들에게 단지 진지한 일이면,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의 혼들은 아직 고난과 고통을 통해 정화될 수 있다. 혼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단지 적지만 모든 혼들

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그들의 운명을 내 손에 둔다. 혼들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즉 그의 운명에 반항하고 자신을 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지 않으면, 나는 혼들을 고난과 염려를 통과시켜 목표로 인도한다.

너희의 모든 십자가를 인내하며 지라. 십자가는 단지 내 사랑이 사용하는 너희를 돕기 위한 수단이고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영접하라. 왜냐면 어떤 일도 내 뜻이나 내 허용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너희를 단지 너희를 또한 도울 수 있는 분에게 인도해야 하고 모든 일이 나에게 인도해야 한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너희의 아버지이고 나는 또한 아버지로서 또한 모든 위험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도울 것이다.

아멘

이 땅의 과제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 하나님의 은혜.

B.D. No. 5499

1952년 10월 4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너희는 이 땅의 삶에서 전혀 성취할 수 없는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면 영원한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하는 일이 쉽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은 단지 너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이 은혜를 활용하는 일이다. 너희가 이 은혜를 활용하면 쉽게 높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은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로써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성장할 힘이 없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사랑도 너희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왜냐면 너희 안에 아직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이 사랑의 힘이 효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영원한 사랑과 연결을 추구한다면, 너희는 짧은 시간 내에 성장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해야 하고, 이일이 너희의 삶의 과제이다. 이 일을 위해 너희가 먼저 단지 너희 자신의 의지로 선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웃에게 도움을 주면서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영원으로부터 사랑인 하나님과 연결을 이미 이루게 된다. 이런 연결을 통해 이제 사랑의 힘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즉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준다. 왜냐면 이 힘이 너희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 너희가 항상 점점 더 사랑을 행하도록 이끌리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이 단지 한번 자유의지로 사랑을 행하면, 사람은 사랑을 행할 의지를 갖게 되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항상 또 다시 인도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온전함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한다. 그는 인간의 모든 느낌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라 개개인의 운명을 정하고, 그의 은혜의 선물은 측량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의 혼의 성숙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해야만 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야만 하고, 선한 것을 원해야만 하고, 자신의 도우려는 의지가 자극받고 요구받는 기회들을 절대로 지나치지 말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런 모든 일이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사람이 성숙하게 될 수 있는 일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 사랑을 행하고, 그런후 그에게 그의 성장을 보장하는 측량할 수 없는 힘을 얻도록 돕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는 또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쉬지않고 너희에게 역사하려는 시도를 하고, 너희가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추구한다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단지 사랑을 원칙으로 하는 것만이 나의 눈에 합당하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사랑함을 표현할 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단지 하나의 답변을 준다: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이다. 너희는 절대로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고, 이웃이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가 너희에게 헛되이 도움을 청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이웃사람의 혼이 비참하게 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어둠 속에 고통 당하는 이웃 사람의 혼을 돕는 일이 특별한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이웃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나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고 합당하게 너희에게 보상하고, 내가 보상으로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준다.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을 항상 육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어떤 영적인 것으로, 단지 행복감으로 느낄 수 있고, 너희가 짧은 시간 동안만 이런 행복감을 느끼거나 또는 나 자신이 나의 깊은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로 너희가 받아 적게 하는, 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지속적으로 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를 얻는다.

이런 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비록 그가 이 땅에서 축복된 감정을 알지 못할지라도, 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지혜로운 이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진실로 모든 사람의 느낌의 삶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나 쉽게 이 땅의 연결을 버리고, 단지 영의 영역에서 살기 원하는 지를 알고, 이런 일은 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심장을 아직 붙잡아 두고, 세상 염려로 심장에 짐을 주어, 혼이 선명하게 보는 일을 흐리게 만들었을 심장의 느낌을 막지만 그러나 선명하게 보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내가 그의 심장 안에 거하고, 그에게 속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일이 생각이 말짱한 상태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간다. 나는 나를 위해 준비된 심장 안으로 들어가, 외부의 영향과 외부의 선생을 동원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를 가르친다. 이를 통해 나는 나의 사랑을 나타낸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이웃에게 증명해야 하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나? (1949년 6월 11일)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 이를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나의 사랑의 능력에서 나온 것을 인정하는 일 외에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사람들을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다시 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이웃사람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

너희 모두는 나의 피조물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인 나에게 참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 모두를 나의 끝없는 사랑으로 감쌀 수 있다. 왜냐면 너희는 이미 나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 속할 수 있는 성품인 순수한 사랑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축복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라. 왜냐면 사랑은 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의 축복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이웃들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해야 한다. 너희는 이웃들을 병들게

해서는 안되고,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대신에 항상 그들을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 여겨야 한다.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단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런 너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영접할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긴밀함으로 이 사랑에 대해 응답할 것이다.

아멘

이웃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일. 진리.

B.D. No. 7857

1961년 3월 24일

오, 너희 모두는 내 삶의 방식을 모범으로 삼고 나를 따르라. 사랑의 삶을 살고 인내를 행하며 이웃들에 대해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이웃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라.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그로 하여금 너희를 보범으로 삼고 내 뜻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되게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성품을 바꿔야만 한다. 너희는 자기 사랑을 극복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너희의 모든 원하는 일과 생각하는 일이 사랑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의 악의에 찬 말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을 재판관에게 송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인내하며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야만 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그가 올바른 길을 가게 그가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도와야만 한다. 모든 의지와 행동에 내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진실로 사랑이 충만했던, 항상 도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던,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항상 너희가 시도하는 일을 정해야만 한다.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를 대신에 행하면, 어떻게 행했을 것인가 생각해야만 한다. 너희 심장이 너희가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게 고귀하지 못한 생각이 더 이상 너희 심장에 거하지 못하게 항상 답변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하고 이웃들이 오류 가운데 머물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을 도와 그들이 자신의 오류를 깨닫게 해야 한다. 왜냐면 오류는 어떤 축복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류로 깨닫는 것을 너희의 이웃에게 사랑으로 알려주고 그가 이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나 자신에게 올바른 생각과 설명을 구하게 맡겨야 한다.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만약에 너희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면, 내가 너희를 오류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나는 항상 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고 너희 안의 아직 어두운 곳에 빛을 선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심장에서부터 나에게 질문하면, 심장에서 답변을 기대하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안에서 선명한 답변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서 내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너희가 이제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에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게 하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고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내 뜻이다.

이를 위해 너희 혼자서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생각에 너희가 빠지게 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구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올바르게 가르쳐 너희가 너희 안에서 선명함을 느끼게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심장 안에 이런 의지를 답변으로 넣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속하기 원하는 너희 모두는 스스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그를 오류와 잘못 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원하면, 그에게 영향을 주려고 시도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단지 아버지를 필요로 하다. 내가 사랑으로 이 땅에서 역사한 것처럼 항상 단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의 이 땅의 길은 항상 단지 사랑에 의해 정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나를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진실로 구속하는 일을 행한다.

아멘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B.D. No. 6687

1956년 11월 10일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내면의 자극은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나 자신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 내 임재를 허락하고 기도로 먼저 나와 연결을 이루고 나를 너희에게 끌어 드리면, 나는 너희가 쉬지 않고 사랑의 사역을 행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내 사랑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사랑의 힘을 비추임 받고 나 자신으로부터 중단 없이 사랑을 행하라는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일이 너희에게 얼마나 귀한 보장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사랑없음이 하나님과 멀어짐을 의미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은 곳에는 내가 거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려는 소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일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일이 이 땅의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너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너희가 처음 지음 받은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하루의 삶에서 너희가 사랑으로 나에게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 날은 헛되이 보낸 날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고 단지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사랑의 불을 지피운 사람은 그리고 이 불을 밝은 빛으로 만든 사람은 이제 확신 있게 나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나 자신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임재하는 곳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인 나에게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다.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인 영원한 아버지와 사랑으로 전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한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미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너희는 단지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 너희를 영접해주시기를 나에게 구하면 된다. 이런 구함은 진실로 너희에게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구함이 인생의 목적이고 한때 나에게 등을 돌렸던 의지를 다시 의식적으로 나에게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로 이런 너희 의지를 나에게

알리면, 나는 너희를 붙잡고 너희의 부름이 나를 이끌어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게 한다. 왜냐면 이런 부름은 단지 사랑이 충만한 심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빛이 너희 심장에 임하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심장에 불을 붙이고 그러면 너희는 내적으로 사랑을 행하라는 자극을 받는다. 왜냐면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 안에 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사역은 항상 사랑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내면의 평안을 갖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그의 모든 길을 닦아주고 항상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돌본다. 너희는 안전하고 해가 되지 않게 이 땅의 삶 동안 너희를 인도하는 분에게 주저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

너희 모든 사람은 내가 너희 안에 넣어 준 사랑의 불씨에 불을 붙여 밝은 화염으로 타오르게 할 수 있고 이 순간부터 너희 모두는 나 자신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불안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속되는 인생 여정을 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나 자신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왜냐면 나는 나를 기억하지 않고 사랑 없이 행하는 사람들로 부터 거리를 두고 여전히 나에게 전적으로 거역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의 성품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그가 아직 전혀 사랑이 없는 내 대적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깨닫고 자신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책망하며 경고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내 사랑의 열기로 그 안의 사랑의 불씨에 불을 붙일 수 있게 모든 사람의 심장에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로 이런 사랑의 역사를 허용해야만 한다. 그는 나에게 저항하는 일을 중단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다가가고 나는 그가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그를 영원히 얻기까지 사랑의 삶을 살도록 내적으로 자극해주는 일을 줄이지 않는다.

아멘

겸손.

B.D. No. 5587

1953년 1월 27일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그가 사랑이 충만하게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너희 심장에서 음성을 들으라. 너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나타난 일로 인해 거만하게 되지 말라. 겸손한 가운데 항상 그에게 복종하라. 그리할 때 그가 너희에게 부어줄 은혜의 정도가 끝이 없을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찾은 진정한 자녀가 된다. 겸손이 너희들을 충만이 채워야만 한다.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너희들을 교만하게 해서 안 된다. 너희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은 너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그의 커다란 사랑 때문이다.

연약한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영원한 사랑 앞에 겸손하게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게 그를 바라본다. 그러면 더 높은 곳으로 확실히 성장하게 하는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 이로써 너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은혜를 주는 지, 단순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 단지 무엇이 필요한 지 깨닫게 해주었다.

겸손이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목표로 인도하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게 하고, 겸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도록 움직이게 하는 덕성으로 나타난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모든 겸손으로 다가가듯이, 모든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 앞에 아이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느껴야만 한다. 겸손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그에게서 자신의 은혜를 거둔다. 겸손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고, 신성 앞에 자신을 끝없이 작게 느끼고, 신성을 실제 짐작하지만, 감히 말을 걸지 못하게 한다. 올바른 겸손은 단지 웅알거림으로 말하고, 올바른 겸손은 자신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왜냐면 올바른 겸손은 생각만으로도 자기가 창조한 존재를 없애 버릴 수 있는 최고의 존재 앞에 감히 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겸손은 말이 없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엎드리며, 그의 긍휼을 구한다. 겸손은 그의 자비로운 손에 의해 세워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 사람들이 이러한 겸손을 깨닫는 곳에서, 심장 안으로 은혜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을 향해 다가가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가운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자신의 은혜로 채워준다. (1953년 1월 27일)

심장의 겸손은 혼의 최고의 장식품이고, 겸손은 동시에 영의 세계의 문을 연다. 겸손은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한다. 왜냐면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겸손은 최고로 거룩한 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러나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모두 자신을 드린다. 충만한 겸손으로 창조주 아버지께 헌신하는 일이 그에게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왜냐면 강력한 사랑과 은혜의 물결이 혼을 모든 방해물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심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혼을 아주 친절하게 자신에게 이끈다. 왜냐면 겸손한 혼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심장의 겸손은 겉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꿰뚫어 볼 수 없는 존재 뒤에 자주 숨는다. 왜냐면 진정한 겸손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외로운 길을 소박하게 가고,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사랑이 전혀 없고, 항상 이웃들에게 크고 거룩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왜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마나 작고 불쌍한 존재인지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다. 겸손은 넘치는 은혜를 받을 일이다. 왜냐면 겸손의 모든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과거의 죄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혼은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향한 혼의 모든 전적인 의지를 알고, 가장 뜨거운 긍휼의 사랑 안으로 혼을 자신에게 이끈다.

아멘

겸손한 기도. 교만은 대적자의 요소이다.

B.D. No. 7116

1958년 5월 9일

나에게 단지 모든 겸손함으로 너희의 안건을 아뢰라. 너희는 확실하게 내 열린 귀를 찾게 될 것이다. 심장의 겸손은 사람이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주고 그의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단지 아주 자원하여 성취시키는 부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이 땅의 삶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면, 사람의 생각이 단지 세상만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 한 가운데 항상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는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것이다.

그는 나를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함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나 또는 영적인 염려가 있으면, 항상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뢰로 나에게 구할 것이고 그는 진실로 헛되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이미 나에게 귀환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왜냐면 그의 혼이 끝 없이 긴 시간에 걸쳐서 나와 떨어지게 만든 것은 혼이 한때 깊은 곳까지 따라갔던 내 대적자의 요소인 교만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교만의 불씨라도 있는 모든 사람은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

그가 나를 대항해 반항하는 교만한 성품을 버리기 전에는 그는 내 영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교만한 성품을 통해 자신에게 제한을 가하기 때문이고 그는 아버지와 올바른 자녀의 관계를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이루기 위해 심장의 겸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겸손한 심장으로 나를 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동안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하는 기도는 실제로는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한 느낌이 동인이 되어 이뤄지는 요구이다.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나의 귀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냐면 신뢰의 관계인 자녀가 부탁하는 대로 자녀에게 베풀어 주게 나를 강요하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긴밀한 연결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은 이성의 생각의 결과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는 그가 깨달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교만한 자세를 이미 버렸다는 증거는 아니다. 반면에 나를 아버지로 깨달았다면, 교만을 극복한 것이다. 사람은 나에게 대해 자신의 낮음을 느낀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는 나에게 다가온다.

왜냐면 겸손한 심장 안에 나를 깨닫고 나에게 향하는 사랑이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자녀에게 내 은혜를 부여할 수 있고 자녀는 내 손에서 감사해하며 나와 의 간격을 항상 줄이는 데 도움 주는 내 은혜를 받는다. 사람이 자신의 교만을 버리면, 그가 자신을 적게 여기면, 그렇더라도 그가 특별하게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이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왜냐면 그가 진실로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 그가 한때 가졌던 빛의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기도는 주로 영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세상의 위험들 가운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성장이 그에게 가장 큰 염려이고 그는 자신이 이 땅에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도움을 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단지 진실로 겸손한 사람만이 나에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적인 겸손과 단지 외적인 보여주는 낮아짐과 구별해야만 한다. 단지 외적인 보여주는 낮아짐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너희에게 은혜를 제공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적인 생각과 느낌이 어떠한지 자신에 대해 비평해야 한다. 만약에 사람이 모든 거만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한때 교만으로 타락하게 만든 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려고 하면, 이 일은 단지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B.D. No. 7229

1958년 12월 13일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쾌활하며 염려 없이 보낼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항상 단지 내 자녀로 느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모든 불안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올바른 관계가 모든 염려와 불안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자녀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보호함을 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듯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긴밀함으로 감싸고 있는 항상 단지 너희의 행복과 축복을 원하는 만약에 너희가 내 사랑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진실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너희의 아버지를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내 자녀이고 내 자녀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너희가 내 안에서 나를 너희의 아버지로 보면, 나는 너희를 자녀로서 돌볼 수 있다. 너희가 나와 거리를 두는 동안에는 너희가 나를 너희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생소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동안에는 너희는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이 자녀를 자원하여 감싸기 원하는 것처럼 너희를 감쌀 수 없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의 신뢰와 열린 심장과 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려는 의지와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헌신하듯이 헌신하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번 이런 내적인 신뢰를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에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은 떠날 것이다. 너희는 기쁘고 쾌활하게 너희의 인생의 길을 갈 것이고 진실로 항상 올바르게 인도받을 것이다.

왜냐면 자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도해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 그의 돌봄을 피하면, 너희가 의식적으로 혼자 가면,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를 인도하게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가 위험을 피하게 해줄 수 없다.

자녀는 만약에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를 추구하면, 아버지에 대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에게 속해 있지만 그러나 자녀 스스로 이 사랑을 요구해야만 한다. 자녀는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느껴야만 한다. 그러면 자녀는 스스로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더 이상 그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랑의 연결은 이루어진 것이고 자녀는 행복하게 하는 평안에 감싸인다.

자녀는 아버지의 심장에서 보호감을 느낀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그로부터 떠나간다. 너희 사람들이 이런 올바른 너희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세우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은 어렵고 염려가 총만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단지 아버지께 부탁하기를 원하면, 너희의 아버지가 자원해 짊어질 짐을 너희 스스로 지기 때문이다.

너희가 항상 단지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가지는 것과 같은 긴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이런 관계로 나에게 나오라.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가 이미 축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생소한 관계는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에게 역사하는데 방해 된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돕지 않고 놔둘 것을 염려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내가 너희가 고난당하기 원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소원한 관계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이 사랑을 영접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 사랑이 선물이 되게 하고 이 땅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라.

너희가 단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면, 너희는 권세가 있고 나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에게 헌신하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단지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깨닫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너희 모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멘

올바르게 자녀로서 처신하는 일.

B.D. No. 7165

1958년 7월 14일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이 땅에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장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어린시절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이 땅의 기간을 선물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자녀가 되라고 요구한 이 말은 내가 했던 특별한 요구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자녀들의 어설피름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이다. 이 신뢰가 내 아버지 심장을 너희에게 열게 하고 내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열어 준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믿음은 진실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내가 성취시켜 주지 않고 놔두지 않는 구함은 신뢰하는 구함이다. 넘치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겸손이다. 어떤 사랑이 자녀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보다 순수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있느냐? 자녀는 자신의 이성으로 먼저 아버지를 향해 느끼는 감정을 계산하지 않는다.

자녀를 아버지에게 이끄는 것은 심장이다. 심장 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고 자신을 나에게 전적으로 드리게 한다. 사람의 신장 안에 이런 사랑이 거하면, 내가 한 말은 인정받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이 진실로 내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이제 절대로 내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자녀를 내 심정으로 이끌어 드리고 그에게 축복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줄 것이다. 나는 내 이 말을 통해 너희 사람들이 너희의 이성의 생각으로 너희의 이 땅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싶었고 그러므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이나 삶의 성취나 이성을 통한 추

론이 나를 향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랑을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싶었고 너희와 내 올바른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돼야만 함을 말하고 싶었다. 왜냐면 이런 올바른 관계에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이 즉 사랑과 겸손과 전적으로 내 의지에 복종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이런 긴밀한 나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느냐?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하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자녀를 돕는 나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이로써 꿈을 수 없게 나를 자신과 연결시키느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얻는다. 왜냐면 하늘 나라가 스스로 내가 내 자녀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 거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큰 자를 보지 않고 작은 자에게 낮아져 다가가는 것을 내가 사람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만들거나 만들어 낸 것과 그들의 지적수준을 보지 않고 단지 심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내가 심장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사랑의 비추임으로 인해 기뻐함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사랑의 빛은 인간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는 유일하게 올바른 자녀의 관계를 나타내는 나와 긴밀한 연결이 밝혀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말을 통해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단지 올바른 자녀가 내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심.

B.D. No. 4008

1947년 3월 26일

인간의 영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권이여야 한다. 왜냐면 이를 위해 인간은 그의 이 땅의 삶 동안 가장 밝은 빛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룬 하나님과의 하나가 된 일이고,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기 위해 추구하면, 모든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다. 이일은 인간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살려는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설교하셨고,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제자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랑의 삶은 어떤 비교할 수 없게 영광스러운 삶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갖게 한다. 자녀는 아버지처럼 창조하고 형성하는 일을 하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채워진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축복과 빛과 힘이 있다. 혼이 단지 빛과 힘을 받게 되면, 즉 언젠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찾게 되면, 혼은 성숙한 정도에 따라 혼은 축복된 상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왜냐면 자녀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로 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허용하는 온전함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된 느낌을 갖지만, 개인으로써 자신의 존

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같아지게 되었고, 이는 둘이 함께 하는 축복된 상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갈망하고 받는 상태이고, 축복된 조화이고, 끊임없는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항상 높은 곳을 추구하는 상태이다. 왜냐면 온전함에는 한계가 없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축복에 속해있고 때문이다. 왜냐면 그런 추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성숙하게 될 수 있기 위해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순복하며 받아들인다. 왜냐면 열심히 사랑을 행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혼이 모든 충만한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 고난을 통해 정화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은 이 땅에서 싸워야만 하고, 많은 고난과 공핍을 견뎌야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은 사랑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러면 혼은 하나님과 융합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의 자녀가 될 것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자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B.D. No. 7489

1959년 12월 29일

너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주님은 너희 부름을 항상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 생각이 자기에게 향하길 기다리고 있고 너희 심장 안으로 그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려고 기다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추어 주기 위해 너희 심장이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생각을 나에게 향함으로써 심장을 연다. 모든 영의 생각은 너희와 빛의 나라가 연결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든 영의 생각은 너희를 위해 언제든지 가장 가치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다. 왜냐하면 모든 연결은 비록 너희 육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너희 혼이 행복하게 느끼는 너희에게 빛과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작은 위험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를 통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그와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 많은 위험들은 항상 단지 너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가 항상 어디서든지 자신을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큰 축복을 체험하기 원하면, 너희의 연결은 아무리 긴밀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그와 함께 너희의 길을 갈 정도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을 정도로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너희가 더 이상 홀로 가지 않고 너희의 이 땅의 길에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인도자로 남기 원하는 그의 지속적인 동행을 받으며 갈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의 안건이 작을지라도 그와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작은 안건들이 너희로 하여금 이 연결을 이루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와 영원히 영원이 연결되길 갈망하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를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에게 자유의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한때 전적으로 속은 가운데 떠났던 분에게 다시 향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인 너희에게 이렇게 하게 강요할 수 없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세상과 세상의 자극을 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영원히 다시 얻기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그에게 향하는 모든 생각이 그에게 귀환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항상 더욱 진지하게 이 귀환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의 생각이 한때 너희를 생성되어 나오게 한 그에게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으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고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강요하면서 이 길을 가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옛 관계를 다시 만드는 유일한 연결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서 받길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방식으로 너희를 끌어드려, 너희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비록 이런 일이 모든 종류의 위험을 통해 일어날지라도 그는 너희가 자신과 연결을 이루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연결은 아버지가 많은 종류로 증명해 줄 사랑 안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로써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사랑을 얻고 자녀를 영원히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생각을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라.

너희 삶은 곧 더욱 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어려움을 가진 이 땅의 삶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곧 단지 너희 이 땅의 과정을 마치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영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다.

아멘

지도자 예수님.

B.D. No. 7496

1960년 1월 8일

너희가 나를 너희 지도자로 택하지 않으면, 너희 길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될 것인가? 너희가 항상 또 다시 이런 질문을 하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고 내 손을 잡고 안전하게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삼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올바르게 인도받을 것이다.

너희는 잘못 된 길을 가지 않고 목표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가고 이 길을 가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고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인도를 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를 떠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의지에 반대해 이런, 저러한 길을 가게 하거나 또는 가지 않게 너희의 의지를 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모든 곳에서 너희의 지도자로 일할 수 있기 위해 나는 부탁받기 원한다. 나는 모든 평탄하지 않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해주게 나에게 부탁하길 원한다.

나는 너희가 저항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내 인도에 맡기길 원한다. 나는 내가 너희를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앞서 가는 길을 너희가 따르길 원한다. 왜냐면 단지 급경사이고 힘이 들고 능력이 필요하고 튼튼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단 한가지 길 만이 목표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1960년 1월 8일)

단지 내가 항상 너희의 인도자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곧 더 이상 잘못 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길이 잘못 된 길로 인도할까 봐 너희의 연약한 능력으로 인해 너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앞서 가면,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 길을 짧게 해주고 모든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장애물을 넘게 너희를 옮겨주고 너희 손을 잡아 너희가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게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 없이 나를 신뢰해야만 한다. 너희는 잘못 인도받을까 봐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보다 나은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이웃들 가운데 아무리 신실한 친구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두가 높은 곳의 나에게 인도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나를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안에 어떤 염려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한번 신뢰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신뢰에 대한 상급을 주고 너희의 이 땅의 길을 내 보호하는 돌봄 아래 두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르막길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나와 함께 가는 것은 내 능력을 받고 너희가 내 손을 잡을 수 있고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목적대로 힘들이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평탄한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왜냐면 너희의 목표는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지도자로 나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가 혼자서 가거나 또는 너희에게 접근해 너희의 길을 치장하고 유혹하는 수단으로 가득 채워 너희가 높은 곳을 가는 길이 아니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잘 이해하는 내 대적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삶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너희가 나에게 귀환의 길을 연장시키거나 또는 귀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깊은 곳에서는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아름다운 초장으로 인도하는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길은 나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게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장하는 일은 끔찍하게 어렵고 다시 끝 없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지도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가 지도자로서 이 땅의 삶 동안 너희를 맡아주길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로 여기는 나에게 의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위해 행하고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해 너희가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하게 하고 너희의 영원한 고향인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와 다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기 위해 너희를 기다리는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아멘

인간의 영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권이여야 한다. 왜냐면 이를 위해 인간은 그의 이 땅의 삶 동안 가장 밝은 빛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된 일이고,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기 위해 추구하면, 모든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다. 이일은 인간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살려는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설교하셨고,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제자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랑의 삶은 어떤 비교할 수 없게 영광스러운 삶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갖게 한다. 자녀는 아버지처럼 창조하고 형성하는 일을 하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채워진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축복과 빛과 힘이 있다. 혼이 단지 빛과 힘을 받게 되면, 즉 언젠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찾게 되면, 혼은 성숙한 정도에 따라 혼은 축복된 상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왜냐면 자녀는 하나님 가장 가까스로 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허용하는 온전함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된 느낌을 갖지만, 개인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같아지게 되었고, 이는 둘이 함께 하는 축복된 상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갈망하고 받는 상태이고, 축복된 조화이고, 끊임없는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항상 높은 곳을 추구하는 상태이다. 왜냐면 온전함에는 한계가 없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축복에 속해있고 때문이다. 왜냐면 그런 추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진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성숙하게 될 수 있기 위해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순복하며 받아들인다. 왜냐면 열심히 사랑을 행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혼이 모든 충만한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 고난을 통해 정화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은 이 땅에서 싸워야만 하고, 많은 고난과 궁핍을 견뎌야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은 사랑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러면 혼은 하나님과 융합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의 자녀가 될 것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자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B.D. No. 7489

1959년 12월 29일

너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주님은 너희 부름을 항상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 생각이 자기에게 향하길 기다리고 있고 너희 심장 안으로 그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려고 기다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추어 주기 위해 너희 심장이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생각을 나에게 향함으로써 심장을 연다. 모든 영의 생각은 너희와 빛의 나라가 연결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든 영의 생각은 너희를 위해 언제든지 가장 가치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다. 왜냐하면 모든 연결은 비록 너희 육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너희 혼이 행복하게 느끼는 너희에게 빛과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작은 위험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를 통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그와 연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 많은 위험들은 항상 단지 너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가 항상 어디서든지 자신을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큰 축복을 체험하기 원하면, 너희의 연결은 아무리 긴밀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그와 함께 너희의 길을 갈 정도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을 정도로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너희가 더 이상 홀로 가지 않고 너희의 이 땅의 길에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인도자로 남기 원하는 그의 지속적인 동행을 받으며 갈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의 안건이 작을지라도 그와의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작은 안건들이 너희로 하여금 이 연결을 이루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와 영원히 영원이 연결되길 갈망하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를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에게 자유의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한때 전적으로 속은 가운데 떠났던 분에게 다시 향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인 너희에게 이렇게 하게 강요할 수 없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세상과 세상의 자극을 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영원히 다시 얻기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그에게 향하는 모든 생각이 그에게 귀환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항상 더욱 진지하게 이 귀환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의 생각이 한때 너희를 생성되어 나오게 한 그에게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으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고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강요하면서 이 길을 가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옛 관계를 다시 만드는 유일한 연결수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서 받길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방식으로 너희를 끌어드려, 너희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비록 이런 일이 모든 종류의 위험을 통해 일어날지라도 그는 너희가 자신과 연결을 이루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연결은 아버지가 많은 종류로 증명해 줄 사랑 안에서 이뤄질 것이다. 이로써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사랑을 얻고 자녀를 영원히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생각을 항상 그리고 항상 또 다시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라.

너희 삶은 곧 더욱 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어려움을 가진 이 땅의 삶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곧 단지 너희 이 땅의 과정을 마치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영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다.

아멘

지도자 예수님.

B.D. No. 7496

1960년 1월 8일

너희가 나를 너희 지도자로 택하지 않으면, 너희 길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될 것인가? 너희가 항상 또 다시 이런 질문을 하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의탁하고 내 손을 잡고 안전하게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삼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항상 올바르게 인도받을 것이다.

너희는 잘못 된 길을 가지 않고 목표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가고 이 길을 가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고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인도를 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를 떠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의지에 반대해 이런, 저러한 길을 가게 하거나 또는 가지 않게 너희의 의지를 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모든 곳에서 너희의 지도자로 일할 수 있기 위해 나는 부탁받기 원한다. 나는 모든 평탄하지 않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해주게 나에게 부탁하길 원한다.

나는 너희가 저항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내 인도에 맡기길 원한다. 나는 내가 너희를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앞서 가는 길을 너희가 따르길 원한다. 왜냐면 단지 급경사이고 힘이 들고 능력이 필요하고 튼튼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단 한가지 길 만이 목표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1960년 1월 8일)

단지 내가 항상 너희의 인도자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곧 더 이상 잘못 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길이 잘못 된 길로 인도할까 봐 너희의 연약한 능력으로 인해 너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앞서 가면, 너희는 염려할 필요 없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 길을 짧게 해주고 모든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장애물을 넘게 너희를 옮겨주고 너희 손을 잡아 너희가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게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 없이 나를 신뢰해야만 한다. 너희는 잘못 인도받을까 봐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보다 나은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이웃들 가운데 아무리 신실한 친구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두가 높은 곳의 나에게 인도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단지 나를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안에 어떤 염려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한번 신뢰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신뢰에 대한 상급을 주고 너희의 이 땅의 길을 내 보호하는 돌봄 아래 두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르막길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나와 함께 가는 것은 내 능력을 받고 너희가 내 손을 잡을 수 있고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목적대로 힘들이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평탄한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왜냐면 너희의 목표는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지도자로 나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가 혼자서 가거나 또는 너희에게 접근해 너희의 길을 치장하고 유혹하는 수단으로 가득 채워 너희가 높은 곳을 가는 길이 아니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잘 이해하는 내 대적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삶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너희가 나에게 귀환의 길을 연장시키거나 또는 귀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깊은 곳에서는 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아름다운 초장으로 인도하는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길은 나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게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장하는 일은 끔찍하게 어렵고 다시 끝 없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너희 지도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가 지도자로서 이 땅의 삶 동안 너희를 맡아주길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로 여기는 나에게 의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위해 행하고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해 너희가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하게 하고 너희의 영원한 고향인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와 다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기 위해 너희를 기다리는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아멘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이름으로 매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의 과제를 성취시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 일이나 또는 영적인 일든지 간에 너희가 축복된 일을 완성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혼자 행하면, 즉 내가 없이 나에게 내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일하면, 너희는 많은 헛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거나 또는 너희가 이 일을 항상 성공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긴밀하게 나를 생각하는 일이 이미 너희에게 내 도움을 보장하고 너희가 의식적으로 내 축복과 지원을 구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너희에게 좋게 되도록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모든 평안 속에 너희의 매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너희가 항상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하는 일에 내 축복을 요청함으로써 너희 주변에 보호벽을 세우지 않으면, 어두움의 세력이 항상 너희에게 들어올 수 있다. 어두움의 세력이 너희에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초기에 들어오는 일을 막는 일보다 어두움의 세력을 다시 물리치는 일이 더욱 어렵다. 왜냐면 어두움의 세력이 너희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러면 너희 의지가 단지 모든 힘을 드러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을 회복하게 된다.

너희 혼을 위한 싸움은 계속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자주 너희가 승리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자주 너희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 왜냐면 너희가 제한이 없는 능력을 요청할 수 있고 내 인도와 내 보호와 내 축복을 구하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항상 요청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내가 없이 너희의 매일의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심장으로 내 이름을 불러야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해야 하고 너희 자신을 제한이 없이 나에게 드러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혼의 원수에 대항해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은 빛의 존재들이 너희를 감싸고 어두움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쾌활하고 염려 없이 힘과 내적인 평안을 느끼며 너희의 매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도 너희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내가 항상 임재해 있고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와 내적인 연결이 세상 일에 또는 영적인 일에 관련 된 너희의 모든 계획이 성공한다는 가장 좋은 보장이자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항상 너희에게 역사하여 너희 생각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올바르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분리되게 하고 연결을 느슨하게 하면,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준 너희에게서 내적인 평화를 빼앗는 생각이 너희를 불안하게 하고 항상 더욱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하는 다른 생각이 너희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어두움의 세력은 이제 내적인 갈등과 부조화를 일으키는 일을 계속해서 너희가 날마다 하는 일이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너희 혼이 어두움의 세력의 포로가 되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너희가 나를 도피처로 삼으면, 너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영적인 위험에 있는 너희를 도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없이는 어두움의 세력과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고 너희는 내가 없이는 너무 연약하고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력에 당하게 된다. 너희가 항상

또 다시 나에게 그리고 내 보호 아래 너희 자신을 맡기고 항상 또 다시 내 축복을 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육체적인 행복과 그리고 영적인 행복을 나에게 구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을 잊지 않으면서 이로써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고백하면, 너희는 이런 모든 공격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대적자가 다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세운 것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나와 내 이름 앞에 도망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단지 믿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 내 대적자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아멘

기도의 축복.

B.D. No. 4769

1949년 10월 30일

너희 모두는 기도의 은혜를 자주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너희 모두는 충분할 정도로 자주 나와 대화하지 않는다. 왜냐면 침묵하는 나와 단둘이 나누는 모든 대화가 너희의 혼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생각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면, 모든 선한 생각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즉시 힘을 공급해주는 일이 가능하다. 왜냐면 내가 항상 모든 것을 관통하는 힘을 너희가 자신을 여는 곳으로 방산해주기 때문이다. 나와 연결은 항상 너희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충분하게 힘을 받는 상태에 처해도 충분할 수 없다. 비록 너희가 육체적으로 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은 계속해서 높은 곳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한 엄청난 힘을 얻는다.

나에게 향한 모든 생각으로 나타나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지는 아주 유익한 효과가 있다. 왜냐면 내가 이런 의지를 즉시 붙잡고, 이런 일은 혼에게 유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와 연결을 이를 때까지, 사람이 나와 조용한 대화를 나눌 때까지, 단지 세상적인 안건이 아니고, 은혜와 힘을 구하고, 혼의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가 나에게 향하기까지 나에게 향한 의지는 쉬지 않는다. 나는 항상 나의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조용하고 겸손하게 나에게 드리는 기도에 어떤 축복이 있는 지를 안다면, 너희는 기도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이고, 너희는 자주 긴밀한 생각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일이 영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너희가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는 빛의 영역에 머무르는 일이고, 언젠가 너희가 육체의 겉형체를 떠났을 때 이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혼은 이미 언젠가 있을 곳에 있게 된다. 혼은 기도하는 동안에 이 땅을 남겨두고, 나에게 자신을 열고, 나에게 의해 아주 투명한 빛의 옷을 입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옷은 혼에게 겉형체이고 혼을 행복하게 한다.

혼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이 더 자주 일어나게 할수록, 빛의 겉형체가 더 빛나게 되고, 나를 향한 욕망이 더 커진다. 혼은 더 이상 끝없이 멀리 느끼지 않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가온다. 혼은 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느끼기를 원하고, 빛과 힘을 받기를 원한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혼은 이제 나와 단둘이 침묵하는 대화를 나누고, 영으로, 진리로 기도를 드린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혼은 빛의 영역에서 내 가까이에 거하고, 나 자신이 발산해주는 것에 자신을 연다.

긴밀한 기도는 혼을 성숙하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에게 긴밀하게 향하는 사람은 또한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주 자신을 이 땅에서 분리시키라. 너희의 생각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라. 생각으로 나를 구하라.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라. 기도하는 가운데 머물라.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들으라. 너희는 곧 나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안에서 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은혜를 활용하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나와 직접 연결을 이루고, 나와 모든 연결이 너희 혼의 성숙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단순한 형체의 기도.

B.D. No. 3734

1946년 4월 3일

단순한 형태의 기도가 나를 기쁘게 한다.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말과 문장으로 내게 말하면, 그에게 유일하게 내 심장으로 가는 길을 찾게 해주는 깊은 긴밀함이 없다. 그러나 사람의 기도가 심장에서 나온다면, 그런 기도는 그의 가장 깊은 감정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과 같고, 이런 단순한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그런 기도를 들어주고, 성취시켜주기 때문이다. 나는 자녀가 신뢰하면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장식되지 않고 꾸밈이 없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모든 장식된 말은 심장에서 나오기 보다, 더 많이 이성적인 생각에서 나오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약하게 한다.

경건한 기도는 나와 단둘이 침묵하는 대화이다. 이런 대화가 모든 겸손과 사랑으로,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사랑이 충만하게 응답해주는 나에게 대한 신뢰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나는 그런 기도에 만족한다. 그러나 나는 형식적인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면 형식적인 기도는 너희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기도처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의 효과를 높이는 일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단지 긴밀함이다.

너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너희가 내 앞에서 사소한 가치도 없는, 긴 형식적인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쉬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나와 소통해야 한다. 그런 기도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런 기도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와 너희의 일상을 시작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나와 상담하고, 너희가 생각을 통해 나에게 알리는 너희 자신의 갈망을 통해, 내가 지속적으로 너희 곁에 머물게 한다면, 너희가 항상 또 다시 기도 안에서 나와 연결을 이룬다면, 너희가 나와 지속적인 영적인 연결을 통해, 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을 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원하면, 너희의 심장이 일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을 써도 입술의 기도로 효력이 나타나게 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자녀가 갈망하고 구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상달이 되게 하는, 나의 자녀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신을 나의 자녀라고 느끼면, 너희의 기도는 어린 아이와 같아 지고, 단순해질 것이고, 형식적인 기도들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형식적인 기도들은 너희에게 위로와 힘을 주지 못할 것이고, 너희 자신에게도 공허한 말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와 올바른 관계가 너희가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로써 너희의 기도가 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올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아멘

나에게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으로 진리로 경배를 드리라.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나를 기쁘게 하고 또한 내 귀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인간의 심장을 보고 심장이 함께 하지 않는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와 긴밀하게 단둘의 대화를 하기 위해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다면 너희가 나와 연결을 이루려는 의지를 통해 말 없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고 너희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하는 침묵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이고 너희 혼에게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한다. 왜냐면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이 너희가 힘과 은혜를 소유하게 해주고 혼이 힘과 은혜를 성장을 위한 도움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긴밀한 기도 방식은 내가 기뻐하는 올바른 기도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와 아주 가까워 내 사랑의 힘이 너희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힘이 너희를 항상 나에게 더 긴밀하게 이끈다. 너희가 나와 대화하기 원하면 입술로 하는 말은 진실로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입술로 하는 말은 쉽게 어떤 것을 숨기거나 가장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알지만 이웃이 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쉽게 속고 이제 이웃도 같은 기도 형식을 사용하게 된다. 기도하기 원하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라. 가장 깊은 침묵에 들어가라. 그 곳에서 너희는 나를 훨씬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치 자녀가 그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나와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저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뢰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요청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기도가 이제 내 귀에 도달하기 때문이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사람에게 나는 또한 내 약속을 지키고 그가 더 많이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고 침묵하는 가운데 신뢰하면서 나와 단둘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더 긴밀하게 나에게 속하게 될수록 이 약속이 더 분명하게 성취가 된다.

입술의 언어가 서로 의사 소통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희 심장을 들여다보고 너희의 생각을 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도 나를 속일 수 없고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칭송하기를 원하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의탁하고 의지하기 원하면 말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고요한 감사와 겸손한 부름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사랑을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믿음이 나를 진실로 기쁘게 하고 찬양과 칭송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웃에게 너희의 입술로 나를 고백해야 한다. 믿음에 대한 너희의 자세에 관한 일이면 너희는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나를 고백해야 하고 너희의 고백하는 용기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이런 고백은 아직 믿음이 약한 이웃에게 다시 동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고 이런 고백이 동시에 너희가 진리를 옹호하고 너희의 내면의 생각과 너희의 확신과 일치하지 않는 인상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고백을 하도록 요구받을 때 너희는 항상 진실되야 하고 나와 내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나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너희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에게 말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심장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심장이 함께 하지 않는 단지 입으로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특정한 안건에 대해 심장과 하나가 되어 나에게 드리는 모두가 그들의 심장의 깊은 곳에서 같은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이런 기도가 비록 단지 짧을지라도 이런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영으로 진리로 나에게 기도하면 나는 기도를 듣고 성취시켜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의심하지 않는 신뢰.

B.D. No. 7417

1959년 9월 27일

너희가 반지 올바르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올바르게 기도한다는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너희는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전적으로 염려할 것 없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강한 신뢰가 너희에게 부족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 너희가 단지 의심하지 않고 도움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때에 너희는 아직 항상 의심하고 질문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 아직 항상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 줄지 작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미 너희의 믿음은 응답을 받을 수 있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니다.

너희는 항상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끝이 없음을 사랑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런 깨달음은 가운데 기도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가 구하는 어떤 것도 성취시키지 않고 놔둘 수 없음을 안다. 왜냐면 내 사랑은 너희의 모든 불행을 피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내 권세는 아주 커서 비록 너희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나에게 어떠한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내 끝없는 사랑을 상상해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너희의 기도가 성취될 것이라는 너희의 신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로써 내가 내 역사에 제한을 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항상 단지 너희 사람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기준을 적용한다. 너희는 내 사랑에 제한을 가한다. 왜냐면 너희가 제한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제한이 없는 사랑을 선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이나 내 권세에 제한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도움을 받기를 너희의 기도가 성취되길,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긴밀하게 기도하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하려는 의지에 어떠한 제한이 없다.

너희 안에서 자라야만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너희에게 도움을 준다는 신뢰와 굳건한 확신이다. 너희의 신뢰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역사할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나와 함께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드리는 신뢰가 충만한 긴밀한 기도 후에 내 손길을 볼 수 있게 느낄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최선이 되게 인도받을 것이다. 모든 염려가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도로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절대로 놓지 않는 내 손을 항상 잡고 쾌활하게 부담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이런 너희 아버지와 긴밀한 연결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나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내 자녀에게 도움 주는 일을 눈 깜짝할 사이라도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신뢰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모든 의심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저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나 신뢰가 부족한 것이 내 사랑이 모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저항이라는 것이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각각의 사람의 형편을 돌본다. 모든 각각의 사람은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나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진실로 영원히 잘 돌봄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항상 계속하여 도움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자녀가 나를 신뢰하면, 나는 이제 그의 뜻대로 그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영으로 진리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자신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

B.D. No. 8059

1961년 12월 9일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실제적인 자기인 그들의 혼이 불멸한 것을 믿기를 원하면, 혼이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 맞이할 운명을 준비함을 믿기 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처할 운명에 무관심했던 것을 언젠가는 쓰라리게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항상 또 다시 전해진 경고와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미래의 운명에 관해 무관심 한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빠지게 위협하는 큰 죄악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단지 죽은 후에 계속 산다는 것을 그들이 비록 이 땅의 육체를 벗어야만 한다 할지라도 소멸될 수 없음을 알게 해야 한다.

그들의 생각은 마치 내일이 다가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다가올 때를 향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를 그들에게 증명해줄 수 없다. 그들은 이를 단지 믿을 수 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해 본다면, 그들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이 혼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로부터 생각을 통해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영적인 방향으로 향한 생각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로 이런 질문하는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강요를 통해 이런 영적인 생각으로 인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게 하기 위해 아주 작은 자극

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질문은 단지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종종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는 세상적인 소유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를 잃음으로 인해 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낄 수 있는 손실을 봐야만 한다. 이런 손해가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영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심각한 운명적인 일이 그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

사람에게 혼이 계속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비록 그가 교회를 통해 교육을 받았을 지라도 공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이를 의심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적인 확신이 부족하다. 이것이 영의 나라의 삶을 위해 살아야 할 그의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무관심 하게 만든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혼에게는 종말을 의미하지 않지만 확실한 종말을 향하게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다. 항상 또 다시 그에게 대화를 통해 또는 기록의 형태를 통해 그가 자유의지로 영접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가르침이 주어질 것이다. 세상의 물질을 잃어버리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목적인지 질문하는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면 그는 죽음 후의 계속 산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는 언젠가 다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자신 안에 항상 강할 것이다. 왜냐면 이 땅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는 단지 아주 작은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게 되고 버림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6637

1956년 9월 6일

영적인 죽음은 세상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하다. 영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두려움은 육체의 죽음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대한 죽음 후에도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혼이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혼이 이런 두려운 의식을 육체에게 전한다. 그러므로 육체는 그에게 가능한 동안 죽음에 대항해 거부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가운데 혼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 모든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휼에 대한 도움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청하기만 했으면, 그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혼은 전적인 밤 가운데 있고 혼이 다가가고 있는 더 깊은 밤을 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성숙한 혼은 전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기다린다. 혼은 그의 육신의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갈망하고 자신이 믿는 분에게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고 그의 공휼에 의탁한다. 이런 혼들은 자주 이미 죽기 전에 그들이 기

다리는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혼은 행복한 가운데 눈을 열고 육체를 떠나 그들이 보았던 나라로 도피하기 위해 영원히 눈을 감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지를 가르쳐 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웃들이 이런 혼들이 아직 마지막 순간에 깨어나 그들을 돕기를 원하고 도울 수 있는 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게 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만 한다. 혼이 죽음에 대항해 싸우고 두려워하는 일을 알게 된 사람이 이런 혼이 내적인 평안을 갖게 돕기 원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은 조용하고 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릴 수 있다. 왜냐면 모든 혼이 이런 도움을 느낄 것이고 마지막 구원의 닻줄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이 육체를 떠나면, 혼은 이웃의 사랑에 의해 도움을 청하는 긴밀한 기도에 자신의 귀를 닫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로써 아직 빛과 올바른 깨달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혼들을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도와줘야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혼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 자신이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낀다면, 혼이 축복된 평안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가장 큰 긍휼과 사랑의 역사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일은 이제 단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부르고 그가 이런 혼을 긍휼히 여기도록 기도하는 일이고 이런 사랑의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기도는 혼에게 혼이 가장 어두운 밤을 피하게 해주는 구원이 될 수 있다.

아멘

효과적인 혼을 위한 약: 하나님의 말씀.

B.D. No. 5609

1953년 2월 22일

병 든 혼을 회복시키는 일은 단지 치료할 능력이 있는 약이 이를 수 있고, 이 약은 혼에게 부족한 모든 것이 들어 있고, 연약함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가져온 것에 대한 약이다. 혼이 저세상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런 고통과 연약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인간이 전에는 단지 육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혼이 육체를 벗고 유일하게 이 땅의 삶의 결과가 남게 되면, 부족하게 형성된 혼의 모든 결점이 더욱 드러나고, 혼이 이제 저세상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난함을 아주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이다.

혼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될 수 있었다. 즉 혼이 자신을 잘 형성시키고 몸이 죽을 때 자신을 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올바른 약을 받았다면, 혼은 이미 이 땅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혼이 또한 비록 이 땅에서 보다 더 많은 수고로 이 땅에서 농친 일을 서서히 보충할 수 있지만, 혼은 저세상에서 같은 약을 통해 건강하게 될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혼에게 힘을 주고 혼을 건강하게 하는 올바른 수단이 없이는 혼은 절대로 자신의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를 개선시킬 수 없다.

이런 수단이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은 진실로 확실한 치유하는 효과를 가진 유일한 약이고, 혼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이고, 올바른 생명을 주고, 혼이 빛과 힘을 가지고 창조할 수 있고 축복되게 한다. 혼은 내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혼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혼은 실제 무감각하고 비참하고 완전히 힘이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은 활동과 힘과 빛이 없는 삶이다. 혼은 내 말씀을 통해 활동할 수 있기 위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혼이 나에게서 직접 힘을 받고, 좋은 약이 아픈 사람을 자극하고 활기를 불어 넣어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보이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힘이 혼이 활동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내 말씀은 단순히 영원한 질서의 법이고, 내 영원한 질서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냐면 생명은 내 뜻을 따라 역사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잘못된 역사를 하거나 일할 수 없게 되고, 그는 완전히 일할 수 없게 된다. 내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법이고, 너희가 영원 가운데서 일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만 한다. 너희는 내 법을 알아야만 하고 그러므로 또한 내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혼은 이미 혼 안에 생명을 얻고, 영의 나라에서 너희 자신의 혼과 많은 혼들에게 축복이 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혼이 죽을 병에 걸려 저세상에 도착하면, 혼에게 활동할 힘이 없고, 혼이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 앉지 않으려면, 혼은 외부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내 말씀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혼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혼에게 구원의 수단이 제공되면, 이런 중보기도는 단지 혼이

자신을 열도록 혼의 의지에 자극을 해준다. 왜냐면 혼 자신이 구원의 수단을 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저세상의 어떤 존재도 혼의 의지의 결정을 대신해줄 수 없고, 혼이 피할 수 없이 스스로 자신에게 자신을 치료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존재들에게 향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의지가 부드러워지고 순종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혼은 이미 이런 기도를 힘으로 느끼고, 자신에게 제공된 도움을 받아드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원하는 모든 혼에게 내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 왜냐면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내 영원한 질서를 따르는 일이고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질서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또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힘과 빛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영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불쌍한 혼을 위한 기도.

B.D. No. 3974

1947년 2월 12일

혼 이 고난 가운데 저세상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잊지 말라. 왜냐면 그들에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무 연약해서 자신을 도울 수 없고, 너희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너희의 기도를 통해 힘을 주면, 그들은 영원히 너희에게 감사할 것이다. 사랑이, 너희가 고통 가운데 놔두기를 원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너희의 힘이 닿는 대로 고통을 줄여주기 원하는 사랑이 이런 기도의 원인이 되야만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거하는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면, 단지 하나의 사랑의 불씨가 너희 안에 타오른다면, 깊은 긍휼이 너희 심장을 채울 것이고, 너희의 도움을 주려는 의지는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운명은, 비록 그들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말할 수 없게 슬픈 운명이고, 모든 연민의 정을 가진 혼들이 돕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끔찍한 어두움 속에 거하고, 그들의 주변 환경은, 그들이 미약하게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황량하고 비우호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에는 너무 연약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난이 아주 크다. 왜냐면 모든 것이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도로 불쌍한 혼들을 돌보면서, 너희가 모든 연민으로 그들의 큰 고통을 생각하려고 시도하고, 그들을 위해 긴밀하게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즉 그들에게 사랑의 축복을 분명하게 해주려고 시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

너희가 불쌍한 혼 안의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혼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왜냐면 그러면 혼이 빛의 나라에서 직접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빛의 나라의 거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그런 혼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혼 안에 빛을 향한 작은 갈망이 있고, 작은 불씨만큼의 사랑이라도 있고, 이런 사랑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혼을 돕기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빛의 나라의 거주자들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혼에게 힘이 더 많이 공급이 되고, 혼은 이제 영의 나라로 올라가는 일이 시작이 된다.

그러나 너희는 혼들을 그들의 운명에 맡겨둘 수 없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구원하고, 단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향한 생각이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기도는 심장에서 나와야만 하고, 기도가 단지 입술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혼에 대한 사랑이 너희가 이런 혼을 위해 긍휼과 도움을 구하게 해야만 한다. 너희 스스로가 혼의 운명을 쉽게 해주려는 느낌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 생각을 더 자주 혼에게 향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미 혼이 수월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모든 사랑의 기도를 힘의 선물로 느끼게 된다. 이런 혼을 잊지 말라. 왜냐면 혼이 너희를 필요로 하고, 너희가 혼이 깊은 곳에서 위를 향하도록, 그들 주변의 밤에서 빛에 도달하도록 돕는다면, 혼이 그에 대해 영원히 너희에게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중보기도의 능력.

B.D. No. 5161

1951년 6월 30일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능력을 너희를 떠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너희가 그들이 어떤 상장 정도에 있다고 여기든지 상관없이, 사용해야 한다. 왜냐면 그들 모두가 아직 힘을 필요로 하고, 모든 도움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혼들을 깊은 곳을 벗어나게 도왔다는 사실이 행복을 의식하게 한다. 만약에 너희 자신이 저 세상에 도달하여, 많은 혼들이 중보기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이 땅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비로소 이를 제대로 깨달을 것이다.

혼들이 단지 한번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이 능력을 활용하면, 혼들은 거대한 열심으로 역사한다. 그러나 먼저 사람편에서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을 자극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중보기도가 가장 빠르게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중보기도는 의식적으로 드러야만 한다. 즉 혼들이 그들의 성장을 하도록 도우려는 의도로 중보기도해야 한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중보기도가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제 죽은 혼들의 위험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심장으로 이런 혼들에게 능력을 전해주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혼들은 이런 능력의 공급을 확실하게 체험할 것이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감사하게 느낄 것이고, 모든 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빛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들 자신의 주변을 비추는 같은 사랑을 행하게 된다.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위험과 고통을 줄여 주려는 의지가 있으면, 너희는 말할 수 없게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의지가 너희가 유일하게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심장으로 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외적인 형식이나 또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해야만 한다. 왜냐면 외적인 형식이나 또는 입술의 기도는 의식적으로 도우려는 의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사랑이 구원한다. 이를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말해줘야 한다. 너희는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너희는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많은 빛나는 빛을 어둠에

전해, 그 곳에 많은 혼들이 모이게 하고, 빛의 비추임을 통해 감동받게 할 수 있다. 이로써 그들 안의 사랑의 느낌이 깨어나고, 항상 그들 자신이 일하기 원하게 만드는 성공을 한다.

사랑의 중보기도는 그의 효과가 절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거대한 힘의 흐름이다. 이런 중보기도에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라. 생각으로 그들을 너희에게 부르고, 너희가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조용하게 저항하지 않고 너희 도움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너희가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통해 전하는 능력을 활용하기 원하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생각을 통해 가르치라. 그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라. 단지 한 분이 그들을 구속할 수 있고, 단지 사랑을 통해서만 이런 한 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힘으로 마찬가지로 다시 큰 위험 속에 있는 혼들을 도와야 하고, 이런 사랑의 역사가 그들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인도한다는 것을 알려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공훈로 모두를 이끌어, 빛의 나라로 인도한다.

너희가 한 혼을 도와,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하게 하면, 그의 성장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의지의 연약함과 무능력이 사라지고, 혼은 열심히 높은 곳을 추구하고, 자신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을 높은 곳으로 이끈다. 왜냐면 그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이런 혼들에게 전하고, 이로써 단 하나의 올바른 중보기도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중보기도가 실제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기 위해 사랑하는 심장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라. 왜냐면 그들 모두가 아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아직 연약한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면, 그들은 너희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생각의 방향에 대한 책임.

B.D. No. 3550

1945년 9월 16일

사람의 의지는 자신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밀치고 들어오려고 한다. 다시 말해 여러 종류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생각의 형태로 사람의 심장에 밀려들어 영접 받기를 원한다. 이제 사람의 의지가 자신의 심장을 열고, 그에게 흘러오는 생각을 영접해야 하고, 그는 이 생각을 영접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임한 생각을 오래 간직하거나 또는 빨리 거부할 수 있다. 이 의지는 그 사람의 성품과 영의 성장정도에 따라 다르다.

성숙한 사람은 선한 생각에 머문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종류의 생각을 마음에 들어 한다. 그럴지라도 그에게 자신을 극복하고, 악한 생각을 끊어 버리고, 선한 생각을 영접할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 시험을 받는다.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면서, 생각의 영향을 인정하면서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이 선하고, 악한 영의 세계에서 오는 생각의 발산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의지 앞에 이런 시험은 실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실제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성의 작용이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안다. 이런 가정하에서도 생각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 왜냐면 의지가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의지는 만약에 그가 연약하고, 결정을 못하는 경우, 올바른 생각을 받기 위해 기도함으로 의지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보호없이 그에게 악한 생각을 일으키려는 영의 세력 아래 있지 않고, 단지 그의 의지가 선하면, 자신의 혼을 위해 합당하지 않은 영적인 내용에 대적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왜냐면 생각이 행동의 근원이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분별해야 한다. 그는 항상 어떤 사상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이 유도를 받는 지, 즉 선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인지, 악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악한 행동을 유발하는 생각을 대적해야 한다. 만약에 그가 연약할 경우에, 기도를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그는 항상 대적할 힘을 얻을 것이고, 그를 돌보는 영적 존재를 통해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영적인 존재는 그들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할 수 있기 위해,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나오는 선하고 귀한 영적인 내용을 전하기 위해, 단지 구하는 기도를 기다린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은 빛과 진리의 전달자이고, 이들의 생각의 영향력은, 이를 영접한다면, 영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그의 사상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의지가 유일하게 결정적이다.

아멘

 든 사람은 그가 내 말씀을 어떻게 활용했는 지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내 말씀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했는 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가 나 자신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 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가 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 은혜의 선물을 거절한 일을 몹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가 진지하게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체험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은혜의 선물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렇지라도 편안함과 부주의로 내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나를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내 음성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야만 한다.

나는 사람의 내면에 나에게 대한 저항이 없다면, 이런 모든 사람에게 그의 심장에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내 말씀은 그의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고 사람이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그의 심장과 그의 귀를 닫고 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했고 내 말을 영접하는 일의 중요성을 너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 혼을 위한 양식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 혼의 양식으로 유일하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혼을 위한 양식을 무시할 수 없다. 너희는 혼의 양식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 혼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과 음료를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나를 영접해야만 하고 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는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내 말씀이 제공될 때 너희가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에게 제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너희가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는 지를 깨닫게 되면, 너희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 혼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지만 너희가 경솔하게 이를 거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희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내 말씀이 너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 말씀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움추리고 굽주린 혼이 언젠가 내 앞에 서서 자신의 상태를 통해 이 혼이 이 땅의 삶에서 내 말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혼의 상태와 다른 방식으로 혼을 도울 수 없다. 왜냐하면 혼이 생명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혼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의 비참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에게 이제 시급히 필요한 것을 힘들게 얻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혼에게 풍성하게 제공되었고 자신에게 저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마련해주었을 것을 이 땅에서 활용하지 않은 일에 대한 혼의 후회는 크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지 소수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

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을 위한 음식과 음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제 이 땅의 육체를 떠나면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내 말씀을 무시한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왜냐하면 혼은 자유의지로 자신을 형성한 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혼은 잘못 형성된 상태로 저세상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내 말씀이 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책임감의 중요성.

B.D. No. 7073

1958년 3월 26일

모든 사람이 유일하게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그가 혼을 타락으로부터 영원한 흑암과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복된 운명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일이 그에게 최고로 중요하다. 그는 존재가 타락하기 전에 한때 그랬던 것처럼 혼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겉형체로부터 자신의 혼을 단지 자유롭게 하고 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출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다시 만들기만 하면 된다.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이 땅의 인생이 주어졌음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목적을 위해 인생을 사용해야만 한다.

매일 매시간 그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는 혼을 둘러싼 두꺼운 겉형체가 되게 하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해야만 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그의 행위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영원을 위해 자신의 성품을 바꾸는 일을 위해 혼이 성장하게 하는 일을 위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자기 사랑이 근원이 되어 한 모든 일은 단지 이 땅에서만 가치가 있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사람은 항상 그의 생각과 행함에 어떤 감정이 그를 지배하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사랑이 아직 강하게 나타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이 단지 희귀하게 자기행동의 근원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과 자신의 소원을 물리치게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도울 수 있다. 그는 항상 자신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볼 것이다. 그는 항상 섬길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위해 일할수록 그러나 그가 상급을 위해가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는 확신 가운데 온전하기 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활용하려는 확신 가운데 행할수록 더 많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는 높은 곳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위로부터 그에게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그는 그의 마지막 날에 헛되이 살았다 하지 않게 되길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뒤로 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이미 승리자가 된 것이다. 그의 혼의 겉형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헛되이 인생을 살았을까 봐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나 그는 이런 자신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만 하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미 자신에 대한 작업이 시작 된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귓가로 흘려버린 사람들은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가 세상일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자기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인생을 산다. 왜냐면 단지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명성을 구하는 자기 사랑이 그가 이렇게 행하게 하는 동인이고 이런 일은 혼에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사후의 혼이 계속 사는 것과 영계에서 자신의 고통을 믿지 않는다. 왜냐면 자기 사랑이 이를 믿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전해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이런 전하는 일을 통해 사람이 믿음에 도달하고 깨달음의 빛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할 수 없다. 사랑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위해 사랑의 불씨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각 사람이 불씨에 불을 지피기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 단지 그의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는 자유하다. 그러나 의지는 책임감을 통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책임의식이 만약에 그가 자신에 대해 자기를 지은 절대자에 대해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 안에서 깨어날 수 있다. 왜냐면 누구든지 이런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때 생각을 통해 답변이 주어질 것이고 이 답변이 언젠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진 의식적인 삶을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모든 사람에게 외부에서 그가 영접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설명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설명에 대한 자신의 고유의 입장이 요구 된다. 왜냐면 단지 그 자신이 그의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책임감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책임감의 중요성을 안다. 그는 자신의 혼을 위해 책임감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세상 것들의 허무함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이 없이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며 아무 것도 행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사역이 바로 사람의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가 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그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혼은 위험 가운데 있고 위험 가운데 머문다. 혼이 이런 어두운 상태로 영계로 갈 경우, 만약에 전적으로 자기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의 사랑이 영계에 도달해서 그에게 작은 빛이 임하지 않는 한 다시 깊은 곳으로 타락할 위험이 크다. 그러나 혼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을 혼은 더 이상 회복하거나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아멘

깊은 믿음을 통한 혼의 안정과 평안.

B.D. No. 3656

1946년 1월 14일

너희가 모든 피조물을 향한 나의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을 굳게 믿지 않는 동안에, 너희의 심장은 불안한 가운데 머물 것이다. 유일하게 깊은 믿음만이 너희에게 혼의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혼의 안정과 평화를 얻으려고 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

희는 가장 어려운 날에도, 세상의 고난과 곤경에도 이 땅의 삶을 다스릴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나의 뜻이거나 또는 나의 허용이 없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냐?" 라고 말한다. 나의 권세는 아주 강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아주 커서, 내가 너희 혼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막는다. 그럴지라도 너희의 육체가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면, 이를 나의 사랑의 증거로 여겨라. 왜냐면 고난이 너희 혼에게 최선이 되도록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의 사랑과 권세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을 신뢰하라.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너희를 멸망시키기 원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으로 절대로 너희의 멸망을 허용하지 않음을 생각하라. 대적하는 세력은 너희 의지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그가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는 너희에게 분노한다. 이제 너희의 의지가 진지하게 나에게 향해 있다면, 나는 너희를 보호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고, 대적자의 역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너희는 항상 단지 내가 너희를 도와줄, 너희가 절대로 방어할 수 없이,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음을 믿어야만 한다. 이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혼의 원수에 대항하는 최선의 무기이다. 나는 그런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모든 영의, 세상의 위험에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안해하고 의심하면, 대적자가 너희에게 진입하고, 대적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너희가 단지 기도를 통해 항상 너희 자신을 나와 연결시킨다면, 너희는 강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부르는 일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위험 앞에, 너희를 돕기 원하는 나의 사랑을 느낄 것이다. 어떤 세상의 염려도 생기지 않도록 하라. 왜냐면 내가 때가 되면, 이 염려를 넘겨받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 혼을 생각하라. 나의 말씀을 통해 혼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면서, 열심히 혼을 위해 돌보라. 너희가 너희 혼에게 나의 말씀을 공급하면, 혼은 믿음 안에서 강해질 것이다.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어떤 세상의 위험에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육신과 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나의 말을 믿으라. 너희의 심장에 평온과 평안이 임할 것이고, 너희는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깊은 믿음은 믿음의 능력을 발산하고, 이웃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살아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충만한 것을 믿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라. 너희들은 부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 것이고, 항상 나의 도움이 확실하고, 어떤 위험도, 비록 너희가 너희의 혼을 위해 위험을 견뎌야만 할지라도, 너희들을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때가 되면, 내가 위험을 끝내고, 너희의 믿음의 합당하게, 내가 너희를 돕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은 너희에게 평화를 줄 수 없고 단지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와 이웃의 내면의 평안을 위해 나 자신에게 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세상 편에서 아직 너희에게 많은 공격을 할 것이고 너희의 심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파도를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너희 심장 안에 평안을 줄 수 있다. 이로써 너희가 세상 한가운데 가장 큰 불안과 흥분 된 가운데 진실로 평안이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내 임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하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보라. 그러면 어떤 일도 더 이상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절대로 더 이상 너희를 흔들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것인 내 안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이제 또한 세상을 통과해야만 할지라도 내가 너희 옆에서 걷고 있다는 확신과 너희가 홀로 이 땅의 계곡을 걷지 않는다는 확신이 너희에게 내면의 평온함과 내 안의 평안을 준다.

너희가 내 임재 아래 안전하다고 느끼고 세상보다 강한 분에게 너희 자신을 맡기고 너희가 그에게 속하고 그에게 속해 머물려는 의지를 통해 그의 사랑을 얻는다면, 세상이 너희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폭풍이 너희 주위에서 격노할 수 있지만 너희는 이를 듣지 못한다. 왜냐면 내가 폭풍들에게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이런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라. 왜냐면 이런 평안이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나와 이런 긴밀한 연결을 통해 내가 항상 너희 곁에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기 때문이다. 또는 너희가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항상 단지 너희에게 준 목표인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가 항상 너희 곁에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이 스스로 물러간다. 왜냐면 너희가 세상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면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왜냐면 세상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고 세상은 모든 것을 혼돈 되게 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세상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평화를 잃게 하는 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평화를 방해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세상이 더 불안해질수록 그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세상에 대해 경고한다. 너희가 평안을 찾기 원한다면, 나는 나에게 도피하라고 너희에게 권면한다. 왜냐면 너희 모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동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단지 나를 통해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부족한 혼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고 외롭게 버림받은 것으로 느낀다면, 누가 역사하고 있는 지를 알라. 나는 단지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의 삶의 길에 동행하기 위해 나는 단지 너희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너희 심장 안에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평안은 단지 나에게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때에 너희에게 이런 평안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의 시선은 항상 하늘나라를 향하고 너희의 생각은 나에게 머물게 될 것이고 내 나라에 머물게 될 것이고 세상은 너희에게 그의 공포를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의 평안.

B.D. No. 7508

1960년 1월 26일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은 너희에게 세상의 평안을 제공하고 약속하지만 단지 너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내적인 평안을 너희에게 주지 못한다.

왜냐면 내적인 평안을 느끼는 것은 너희의 혼이며 이 혼은 단지 나로부터만 대화 요청을 받고 세상이나 세상 친구들로부터 받는 대화 요청은 단지 육체의 만족만을 주는 것으로서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은 다른 것을 요구한다. 혼은 내 대화 요청과 내 능력과 내 축복을 요구한다. 혼이 이를 가지면,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혼은 자신 안에서 평안을 갖는다.

내 안의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왜냐면 이는 동시에 삶을 내 뜻에 합당하게 사는 올바른 삶을 살게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너희는 너희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삶을 살 때 내면의 평안이 너희 심장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너와 나를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평안은 이제 너의 심장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내적인 평화를 보장한다. 사랑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요구이거나 세상적인 성취가 아니다. 사랑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재산이다. 이런 사람 자신 안에 평안을 가질 것이다.

세상 어디에 평안을 주는 곳이 있는가? 세상은 항상 너희 심장에 단지 내적인 불안함을 주고 끝 없이 정욕을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단지 물질만을 얻기 위해 추구하고 모으려고 하고 언제든지 모은 것에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세상이 갈수록 더 많이 너희에게 매달리고 그럴수록 너희는 영적인 것을 얻으려는 생각을 더 적게하고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더욱 불안해지며 더욱 심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혼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세상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로부터 오는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왜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찾았다는 것은 진실로 너희 혼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사는 내 계명대로 사는 사람만이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혼의 평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의 이런 삶을 통해 그에게 축복은 증가할 것이다. 그의 혼은 성장하고 항상 나와 깊이 연합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내 안에서 항상 보호감을 느낄 것이다. 왜냐면 그는 단지 나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 내가 너희 심장 안으로 들어가 너희 심장의 문을 헛되이 두드리지 않게 하라. 심장의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게 하라. 기쁜 심장으로 나를 환영하라. 너희 안에 내 거처를 준비하라. 너희는 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나 때문에 이웃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의 심장 안으로 나와 함께,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임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깨달았다면, 너희는 더 이상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그리워하지 않고 나의 임재를 위해, 너희가 너희의 심장에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에게 너희 혼을 위한 양식을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굶주리고 무기력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행복하게 해주는 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힘이 충분한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 곁에 서서, 너희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이 땅의 계곡을 더 이상 홀로 걷지 않고, 내가 한번 너희의 심장 안에 거처를 얻으면,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사랑을 행함을 통해 나를 맞이할 나의 거처를 준비하면, 너희는 나를 끊임없는 동반자로 얻는다.

내가 너희의 심장의 문을 두드리고, 나의 말씀을 제공한다면, 너희의 의지가 단지 내가 들어가게 하는 데 결정적이다. 그러면 그의 의지가 적절한시기에 나에게 향했기 때문에, 의지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 인도받는다. 너희는 나를 먼저 낯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후 나를 깨닫고,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너희는 나를 친구이자 형제로 만들고, 내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를 보고, 너희 자신을 나의 자녀로서 나와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너희가 끊임없이 사랑을 행함으로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될 때까지, 너희와 나와 관계가 항상 더 긴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너희의 심장의 문을 두드리면, 나를 너희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저항도 하지 말고, 나를 기쁜 심장으로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의 자원하는 의지를 통해 너희에게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문을 두드릴 때, 그의 집을 잠그는 사람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은혜의 선물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의지 자신이 은혜의 선물에 자신을 닫기 때문이고, 그는 또한 나에 의해 절대로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부름을 흘려듣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나에게 열라. 이로써 너희 혼이 굶주리고 무기력하게 될 필요가 없게 하라. 나 자신이 너희에게 주는 양식을 혼에게 제공하라. 나의 손님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줄 수 있게 하라. 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너희는 나의 양식의 힘이 필요하다. 내가 나의 살과 피로, 축복될 수 있기 위해 나의 말씀의 힘이 너희를 통해 흘러야만 하는 나의 말씀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게 저녁 만찬을 너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너의 심장 안으로 나를 영접하라.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기로 갈망하는 가운데 문을 두드릴 때, 나에게 문을 열라.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속이기 원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너희를 얻지 못할 음식을 너희에게 줄 수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말씀은 알아볼 수 있다. 왜냐면 나의 말씀은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은 사랑 자신인 내가 제공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큰 영적 문제를 돕기 위해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임했다. 나를 그들의 심장 안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들의 심장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 나는 그들의 심장 안에 거하기를 갈망한다. 너희는 나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고, 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가 임하면, 너희 심장의 문을 활짝 열어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언젠가 영원 가운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되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권면.

B.D. No. 4645
1949년 5월 19일

나의 모든 말씀이 너희 심장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 나의 말씀을 생각하라. 이 가운데 말씀이 너희에게 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너희가 올바르게 행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말씀으로부터 올바른 유익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성장에 진보를 이뤄 나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능한대로 자주 나의 말씀을 심장으로 영접하라는 조언보다 더 나은 조언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 이 땅의 너희 삶은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더 많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너희가 더 많이 나와 함께 살면, 이 땅의 삶은 너희 옆에서 진행되고, 너희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는 실제 이 땅에서 산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특별하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고 시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영접한 것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원하면, 너희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사랑이 충만하게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내가 제공하는 영적인 내용을 영접하는 모든 생각은 너희 성장을 지원해주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사랑의 손짓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이 손짓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왜냐면 나는 실제 필요하면, 시간을 연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짧은 동안의 시간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에게 훨씬 큰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에게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면 세상적으로 하는 생각을 통해 얻는 유익은 다시 세상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으로 만들어 내고, 벌어들이는 것은 영원을 위해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언젠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끝이 난다. 언젠가 너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영적인 재물을 모아둔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재물을 증가시키도록 권면하고, 항상 또 다시 나의 권면을 진지하게 여기고, 나의 말씀을 자주 영접하라고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면 위로부터 오는 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

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고, 너희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심장 안에서 나의 말씀을 음미해보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평안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나에 의해 넘치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